금주의 법구-〈법구경〉
세상은 끊임없이 불타오르고 있는데
그대는 암흑에 둘러싸여 있구나.
어찌하여 등불을 찾지 않는가.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11월 9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25호 2016년 12월 7일 수요일

탈북민 종교지형 변화… '조사시설 · 하나원' 포교기지로

〈2016 북한 종교자유 백서〉 살펴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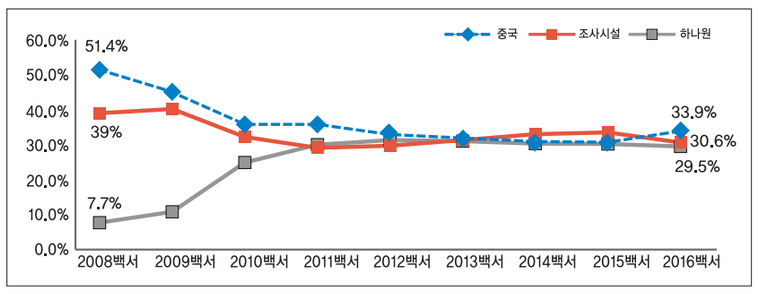
탈북민들이 과거엔 '중국 체류기간 동안' 종교 활동을 시작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던 반면, 최근엔 남한 입국 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조사시설)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서 시작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계종 포교원도 이 두 곳을 중심으로 탈북민 포교를 적극 활성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을 끈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11월 9일 〈2016 북한 종교자유 백서〉를 발간했다. 이는 북한의 종교자유 수준을 측정키 위해 탈북자 총 1만1,730명(남2,623 · 여9,096 · 미상11)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발간된 자료다. 조사 대상자는 북한 종교의 가장 최근 동향을 파악키 위해 2007년~2016년 4월 입국한 탈북자로 한정했다.

탈북민들의 종교활동 시작 시점을 조사한 결과, '조사시설서부터'라 응답한 자가 2,791명(33.9%), '중국에서부터'가 2,518명(30.6%), '하나원서부터'가 2,435명(29.5%), '중국 외 제3국에서부터'가 344명(4.2%), '북한에서부터'가 154명(1.9%)으로 나타났다. '남한 입국 전후' 비율로 비교 시 '중국에서부터' 포함 입국 전 종교활동을 시작한 비율은 36.6%이며, 입국 후 비율은 63.4%다. 앞서 2008년 백서에선 '중국에서부터'가 51.4%, '조사시설서'가 39%, '하나원서'가 7.7%로 집계됐다.

이는 조사시설과 하나원이 탈북민의 종교생활에 점차 큰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 근거에 대해 백서는 △최근 입국자의 경우 중국 체류 기간이 과거에 비해 짧은 점 △중국 당국이 탈북자에 대한 종교기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점 등을 제시했다.

탈북민 종교활동 시작 지점 변화



"입국 후 종교활동 시작" 늘어
'중국부터' 응답자 20%로 축소
"입국후 포교 지원 체계 갖춰야"
포교원, 12월 '새터민전법단' 창립
내년 2월 포교 교재 발간 계획도

이에 따라 불교계엔 조사시설과 하나원을 중심으로 탈북민 포교 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조사시설과 하나원서는 조계종 포교사가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를 진행한다. 다만 조사시설엔 불상이나 법당이 따로 마련되지 않고, 종교의식도 불가하다. 불교 · 개신교 · 가톨릭 종교인들이 각 종교의 기초교리를 전달하는 수준이다.

現 조사시설 담당자 권영익 포교사(포교사단 통일분과위원장)는 "조사시설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종교행위가 불가능하단 한계가 있다. 나눠주는 인쇄물에 대한 보안규정도 엄격한 편"이라며 "비교적 외부 지원이 자유로운 하나원을 중심으로 탈북민 포교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홍성란 하나원 상임포교사는 이웃종교는 조사시설에 성직자들을 파견하는 반면, 불교는 스님들은 파견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홍 포교사는 "하나원과 마찬가지로 조사시설에도 스님들이 파견돼야한다"며 "스님들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탈북민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의지처가 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조사시설 담당 포교사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시스템을 보완,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끌고 갈 상임포교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조계종 포교원은 12월 중 '새터민 전법단'을 꾸리고 조사시설과 하나원에 대한 포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병주 포교원 전법팀장은 "새터민 전법단이 출범하면 하나원 뿐 아니라 조사시설로도 활동영역이 확장될 것"이라며 "아울러 내년 2월 중 탈북민들을 위한 포교 교재가 발간된다. 교재가 하나원과 조사시설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할 것"이라 밝혔다. 포교원 측에 따르면 그간 △어린이분야 △군분야 등 특화 교재는 있었지만, 통일분야 교재가 별도로 발간되긴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탈북민 중 불자인구 비율은 점차 증가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응답자 1만1,030명 중 불교는 1,190명(10.7%)으로 10년전인 1997년 6.9%보다 증가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파사의 연등, 촛불과 하나되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11월 26일 5차 촛불행렬서 파산현정의 연등이 길을 밝혔다. 촛불행렬의 선두에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을 비롯해 해인사와 동화사, 동국대, 중앙승가대 등 전국 각지에 온 스님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사진은 청와대 동측 입구가 있는 삼청동에서 행진하는 스님들과 환호하는 시민들의 모습. 〈관련기사 2 · 27면〉

글 · 사진= 노덕현 기자

"최성규 목사 국민통합위원장 임명 철회"

종단협 등 비판 성명… 국가 정상화 결단 촉구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대통합 위원장에 최성규 목사 임명에 대해 불교계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이하 종단협)는 12월 1일 '최성규 목사 국민대통합위원장 임명에 대한 불교계 입장문'을 발표했다.

종단협은 입장문을 통해 "최성규 목사는 과거 부적절한 편향발언으로 민심을 분열시킨 논란의 장본인이다. 가족을 잃은 세월호 유족의 마음에 못을 박는 실언과 전직 대통령이 북한 대변인이라는 발언으로 국론을 분열시켰으며, 군사쿠데타를 역사적 필연이라고 미화하는 등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켰다"면서 "최성규 목사는 국민대통합위원장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다. 최 목사에 대한 임명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 정국 상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깊게 고심해 국가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도 12월 1일 비판 성명을 내고 "편향된 역사관과 종교관을 대표하는 인물을 국민통합의 얼굴마담으로 등장시킴으로써, 오로지 일부 종교단체의 지지로써 위기를 탈출하고자 있다"고 비판했다.

신성민 · 윤호섭 기자

사찰 옥죈 '사찰림 규제' 풀렸다

국회, 산지관리법 개정… 사찰림 內 시설 설치 가능

사찰의 신축만 가능했던 사찰림에 납골당 등 봉안시설과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장 정세균)는 11월 17일 본회의에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전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사찰림은 공익용산지로 이 공익용산지에서는 사찰 신축은 가능했으나 이외의 시설 설치는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찰림 내 사찰 신축 이외 봉안시설,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사찰림 규제가 풀림에 따라 종단과 각 교구별 활용 내규를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사찰림연구소 이사장 종수 스님은 "공청회 등을 통해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종단과 본사에서 지침과 함께 사찰림 활용 교육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사찰림 연구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활용법을 연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은 사찰 등이 종교부지 목적으로 점유한 국유림을 대부계약한 후 5년 경과시 교환이 가능하도록 임시특례를 주기로 했다.

2015년 9월 28일부터 2017년 9월 27일까지 2년간 시행되고 있는 현행 국유림법 부칙에는 종교부지 목적으로 국유림을 10년 이상 무단 점유시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교환 가능에 대한 방침은 확정되지 않았다.

수련시설 등 사찰 기능 향상
종단 · 교구별 활용 내규 필요
점유 국유림들 교환 특례도

이번 교환 가능 특례에 따라 과거 측량기술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국유림을 무단점유한 사찰은 장기적으로 토지 소유권도 확보할 수 있어 사찰 보호 및 발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정상 대부토지의 경우 교환대상이 되며 무단점유 토지의 경우 2017년 9월 27일까지 자진신고가 필요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통령 퇴진하라”… 스님도 규탄 나섰다

조계종 스님 2,684명 12월 1일 시국선언

대규모 스님, 정부 규탄 ‘이례적’
종단 스님 및 학인 스님들도 동참
朴 대통령 즉각 사퇴 등 촉구
재가단체들도 ‘1만 서명운동’ 계획



조계종 승려 2,684명은 12월 1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박근혜 퇴진과 국민주권 수호를 위한 조계종 승려 2,682인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태로 인한 국정혼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 스님들이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에 집단적 목소리를 냈다. 그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단체가 촛불시위에 참여하거나 시국선언을 하는 등 개별 행동은 해왔으나, 2,684명에 육박하는 조계종 스님들이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종 승려 2,684명은 12월 1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박근혜 퇴진과 국민주권 수호를 위한 조계종 승려 2,684인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엔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을 비롯한 비구 · 비구니 스님들과 중앙승가대 · 동국대 등 학인 스님들이 동참했다.

조계종 승려 2,684명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스님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수행자 양심에 근거해 호소한다”며 “부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 요구에 귀 기울여 역사 앞에 부끄러운 대통령으로 남지 않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그 자리서 내려오길 바란다”고 성토했다.

또 스님들은 “우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모든 삿된 일들의 진위가 명백히 밝혀지고, 법과 원칙에 의해 바로 잡히길 바란다”며 “박 대통령을 비롯해 이번 국정농단사태와 관련된 모든 이들의 과오가 숨김없이 공개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 박 대통령 역시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퇴진하란 국민들의 뜻을 준엄히 받아들여야한다”고 견책했다.

특히 스님들은 지난 11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회피는 국정 최고운영자로서 모습은 결코 아니었다”며 “대통령직에 연연하는 초라한 모습서 국민들은 더욱 큰 실망과 분노를 느꼈다. 박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만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 예의일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아울러 여당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하며 “깊은 반성으로 대대적으로 혁신해야한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 뜻에 따라 탄핵절차를 추진하라”며 “민심을 거스르는 정당은 반드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스님들은 “국정공백 상태를 하루빨리 해결해 이번 사태가 한국사회를 좀 더 투명하고 공정히 변화시키는 대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권력에 의한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사회, 국민들의 주권이 보장되며 민주주의가 오롯이 유지 발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정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11월 25일엔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가 ‘나라를 걱정하는 전국비구니회의 시국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비구니회는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하는 대통령이 민심으로부터 멀어졌고,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한다. 박 대통령은 ‘하야’란 국민의 엄중한 요구 앞에서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결단해야할 때”라며 “박 대통령은 진심으로 마음을 비워 냉철하고 지혜롭게 스스로 결단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간 불교계는 재가 및 시민사회단체가 사회참여를 해왔을 뿐 스님들은 ‘종교는 중립을 지켜야한다’는 원칙에 따라 집단적 행동을 자제해왔다.

한편 스님들의 적극적 움직임에 따라 불교계 재가단체들도 범불교적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 바른불교재가모임 · 불교환경연대 · 신대승네트워크 등 불교계 재가단체는 12월 6일 ‘한국사회대전환을 위한 박근혜 퇴진과 국민주권수호 범불교시국회의’를 출범하고, 1만 불자 시국성명 운동에 나선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한문불전 번역 전문가 첫 박사 나온다

동국대 불교융합학과 내년 박사학위 5명 탄생

조계종 교육원 지원 등 도움
12월 13일, 연구성과 연찬회

한문불전 번역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국불교융합학과(학과장 김종욱)에서 첫 박사학위자가 배출된다.

석 · 박사 통합과정인 한국불교융합학과는 2012년 3월 개설됐으며, 학기제로 운영되는 불교한문아카데미도 함께 만들어졌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도 한문불전 번역 전문가 양성이라는 취지에 공감해 협약을 맺고 학비 전액과 장학연구비를 승가교육진흥기금을 통해 지원했다.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입학한 스님 30명(일반학생 15명 포함 총 45명)은 한문원전 해독능력에 기초한 한글 · 영어 고전번역 능력을 배양했다. 이들 중 5명의 스님은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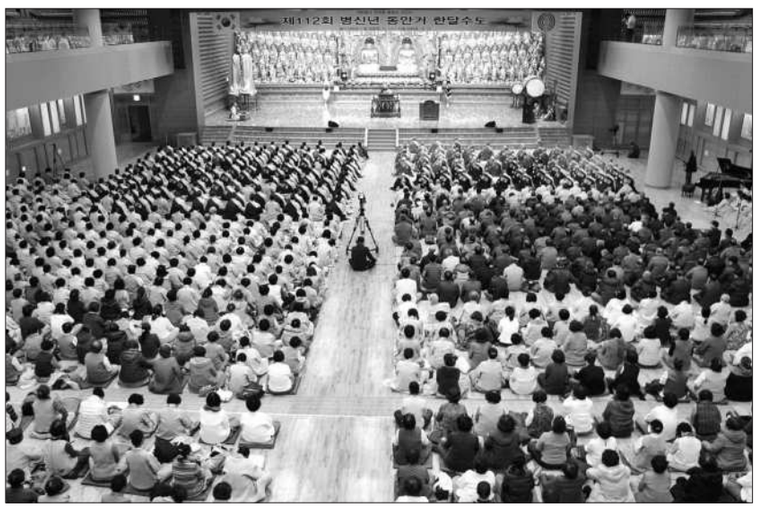
이에 따라 조계종 교육원과 동국대 한국불교융합학과는 12월 13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장의에서 연찬회를 열고 박사학위를 받는 스님들의 연구 성과를 알린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정영사 혜원의 대승의장 팔실의 연구와 역주(신경 스님)’ △‘정영사 혜원의 대승기신론의소 연구와 역주-대승의장과의 비교를 중심으로(대진 스님)’ △‘요대 선연의 화엄경담현결택 연구와 역주(지현 스님)’ △‘조선 후기 화엄현담 사기(私記)의 왕복서 연구와 역주(선암 스님)’ △‘조선 후기 묵암 최눌의 묵암집 연구와 영역 역주(현서 스님)’ 등이 발표된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수경 스님은 “종단의 불전 번역 전문가를 배출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종욱 불교학술원 한국불교융합학과장도 “지금은 스님들 위주지만 내년에는 재가자도 있다. 많은 불교인재를 배출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주경야선’ 전통 잇는 천태종 재가불자들 천태종은 11월 29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춘광 스님, 종의회의장 문덕 스님, 감사원장 용암 스님 등 종단 스님들과 안거 동참자 등 사부대중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2회 병신년 재가불자 동안거 결제식을 봉행했다. 구인사 동안거에 동참한 1,000여 불자들은 이날부터 한 달 동안 ‘관세음보살’을 일념으로 염송하는 관음정진에 매진하게 된다. 김주일 기자

월정사, 갈등하는 젊은 이에게 행복 길 제시

20일 ‘청년마음출가학교’ 개막

고학력에 다양한 능력을 갖추고도 직장을 찾기 어려운 우리 시대, 청년들을 위한 행복의 길은 없을까. 힘들고 지친 청춘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기 위한 청년마음출가학교가 열린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12월 20일부터 27일까지 7박 8일 동안 만 17세에서 29세까지의 남녀 각 30명을 대상으로 ‘2016 청년마음출가학교’를 실시한다.

이번 청년마음출가학교에는 지리산 실상사 회주이자 화쟁위원회 위원장인 도법 스님을 비롯해 소설가 조정래, 오대산 상원사 주지 인광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이 강사로 나선다.

출가학교 관계자는 “나를 세워서 행복을 찾는 시대를 넘어선 가치에 대한 모색”이라며 동참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공원 문화유산지구 관리 위해 ‘불사관리위원회’ 설치해야”

이병인 교수, 11월 30일 ‘문화유산지구 공익적 가치평가’ 토론회서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올바른 이용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공원문화유산지구는 과거 국립공원자연보존지구에선 건축 등 개발행위가 금지됐던 반면, 문화재 보전과 불사에 필요한 건물의 신 · 증축, 사찰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행위가 가능한 곳이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수암)는 11월 30일 ‘2016 공원문화유산지구 공익적 가치평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병인 부산대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교수는 오대산 월정사 등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된 사찰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종단 특별 기구를 창설하고,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한단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종교유산과 문화유산, 자연유산이 결합된 형태의 복합유산지역”이라며 “기본적으로 유산자원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교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한다. 핵심지역 외 완충지역에서 종교적 다양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 자연과 조화 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사찰은 ‘사찰 내 불사관리위원회 또는 교구환경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종단은 ‘불사관리위원회 설치 또는 환경위원회 업무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원문화유산지구 관리원칙의 하나로 불사(佛事)시 △무분별한 불사 지양할 것 △창건주와 중창주의 조성원리 및 안목 유지할 것 △주위 자연과 조화롭게 유지할 것 등을 내세웠다.

특히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지정기준에 대해선 “일정한 거리만 획일적으로 지정하는 등 한계가 있다. 각 사찰특성에 맞는 지구 지정이 필요하다”며 “경내지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지 현재 유산지구만으로 한정하는 건 스스로 축소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현재 자연공원법 제18조 제1항 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문화재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규정된다.

이어 “공원문화유산지구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특화된 관리방안을 수립해야한다”며 “비록 사찰이 사유지더라도 공원지역이란 기본적 특성을 바탕으로, 탐방객 및 사찰 관련인들의 탐방서비스와 실질적 지원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조계종 승가 토론교육 어떻게?

교육원, 1일 사찰 교수 스님 대상 연찬회

조계종 승가교육 중 토론 교육에 대한 교습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2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사찰교육기관 교수 스님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교육부장 진각 스님이 교육원 주요사업을 소개하고, 김슬옹 인하대 교육대학원 초빙교수에게 ‘토론식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듣는 시간이 마련됐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일선 교육현장에 있는 교수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다”면서 “지난 토론회를 통해서 토론 수업이 승가교육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오늘 자리를 통해 승가교육 내 토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논의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6년 12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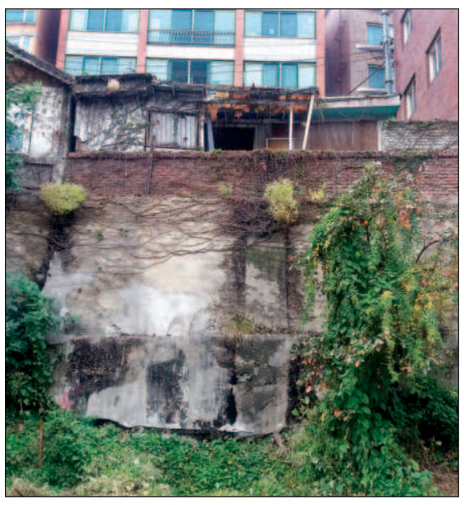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보물급 도난 불상 11점 다시 찾았다

서울경찰청, 27년간 문화재 은닉한 사범 검거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27년간 불교문화재 11점을 은닉한 前사립박물관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공개한 도난 불상 11점.


前사립박물관장 등은 원서동 무허가 건물을 창고로 이용하며 문화재를 은닉해왔다.

前사립박물관장 · 박물관국장
문화재보호법 등 위반 혐의
원서동 무허가 건물에 숨겨

위봉사 입상 · 대흥사 삼존불
당장 보물 지정돼도 무방해
조선후기 최고 조각승 색난
계보도 새로 파악 가능해져

피해사찰 6곳 협의체 구성
향후 수사 결과에 대응키로

도난됐던 보물급 불교문화재 11점이 다시 세상의 빛을 봤다.

서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난된 불교문화재를 27년간 은닉한 前사립박물관장 A씨와 아들인 前 박물관 국장 B씨 등 2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89년 9월 25일 전북 완주 소재 위봉사에서 도난된 관음보살입상 등 불교문화재 11점을 판매업자에서 취득 포장한 후 원서동 박물관 부지 내 무허가 창고 등에서 장기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올해 4월경 사찰 등에 불교문화재 11점을 되팔려다 범행이 발각됐다. 특히, A씨는 지난 2014년에도 문화재 은닉죄가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현재 A씨 등은 1991년~1996년경 문화재매매업자(2014년 사망)로 부터 도난 여부를 모르고 1억7천5백만 원에 구입했다고 선의취득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등은 A씨가 주장하는 선의취득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연호 지능범죄수사대 지능1팀장은 "일반적으로 문화재 사범들은 선의취득을 주장하며 불리한 경우에는 사망한 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수법을 사용한다"며 "회수된 해당 대흥사 삼존불상에서 제작시기, 소유사찰 등이 기재된 복장물이 있었음에도 사립박물관장은 어떠한 전시 · 조사 · 연구도 없이 무허가 건축물 창고 등에 장기간 은닉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을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물관에 근무했던 인력들을 참고인 조사한 결과 해당 불상들에 대해 유물카드나 대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되찾은 불상 11점 중에는 당장 보물로 지정돼도 손색이 없는 작품들이 상당 수이다. 위봉사 목조관음 · 지장보살입상은 보물 제1842호로 지정된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입상과 함께 조성된 것이다.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입상의 발원문에 따르면 "1605년에 조각승 원오 스님이 위봉사 북암에서 관음, 지장, 문수, 보현보살 4구를 조성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에 회수된 보살입상 2구가 이때 제작된 관음 · 지장보살상이다.

1991년 도난된 대흥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은 조선 중후기에 활동한 최고 조각승 색난 스님의 작품으로 색난 스님의 조각승 계보도를 새롭게 조명할수 있는 조성발원문 등이 함께 발견됐다.

이와 함께 목조관음 · 대세지보살좌상(문경시 운암사), 목조아미타불좌상(장수 팔성사), 목조관음 · 대세지보상좌상(군위 법주사), 목조관음보살좌상(여수 용문사) 등도 시 · 도지정문화재로 상신할 수 있는 높은 작품성을 가지고 있다.

수사에 참여한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은 "회수된 위봉사 보살상 2구와 대흥사 삼존불 3구는 시대와 규모 · 작품성을 봤을 때 당장 보물 지정 상신이 가능한 작품이며, 나머지 6구의 불상도 시 · 도문화재에 지정이 가능하다"면서 "모두 조선 후기 불교 조각의 양식적 특징, 조각승의 계보 연구에 매우 중요한 문화재"라고 평가했다.

보물급 불상이 포함된 11구의 도난 불상이 회수됨에 따라 조계종의 대응도 빨라졌다. 현재 6개 피해 사찰은 협의체를 구성해 경찰 수사에 따른 대응에 들어갔다. 피의자 기소가 이뤄지면 범죄 피해물로 환수가 가능하나, 불기소의 경우 민사재판을 통해 환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계종은 문화부장 정안 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문화재 절도 및 은닉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했다.

정안 스님은 "불교문화재 도난은 사찰에서 오랫동안 이어져온 역사적 의미까지도 무참히 훼손하는 몰염치한 범죄"라며 "자리를 떠난 성보들은 조속히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불자들에 의해 예경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의 장물 취득과 은닉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 개정을 시급히 요구한다"면서 "그래야만 문화재의 도난과 밀거래를 차단할 수 있고, 신앙의 대상이 문화재적 가치와 값으로 밀거래 돼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물관과 경매업체, 개인 컬렉터 등 전문 취급자에게는 문화재 구입 시에 출처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문화재 이력제도도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정안 스님은 "종단은 피해사찰협의회와 긴밀히 논의해 도난 불상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공명정대한 수사를 통해 도난 불교문화재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불교본부 발족

11월 29일 불교환경연대 등 29개 단체 참여



불교시민사회단체는 11월 29일 탈핵 100만 서명운동 불교본부를 창립했다.

지난 10월 전국 환경단체들이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를 발족한 가운데, 불교계가 이에 동참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 불교환경연대 등 29개 단체는 11월 29일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불교본부(이하 불교본부)'를 창설했다. 앞으로 불교본부는 내년 3월까지 10만 명 서명을 추진한다.

불교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생명존중과 소욕지족의 불교사상에 비춰볼 때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며 핵발전에 의존하는 지금의 에너지 정책은 맞지 않다"며 "이에 불교본부는 햇빛과 바람과 지열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로 정책을 전환해 안전하고 깨끗한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특히 불교본부는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를 거론하며 "우리나라도 이제 핵발전서 벗어나야한다. 더 이상 불안한 핵발전소를 옆에 두고 살 수 없으며, 10만년 이상 보관해야하는 핵폐기물을 후손들에게 떠넘길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핵에너지가 싸고 안전하며 청정하단 홍보와, 핵발전을 멈추면 우리나라가 암흑세계가 될 것처럼 과대 포장된 허위선전서 벗어나야한다"며 "핵발전이 위험하며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기술이 지구상 어느 나라에도 없단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한다. 이제라도 정말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가능 자연에너지로 정책을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고리 5 · 6호기 및 삼척 · 영덕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신규 핵시설 건설 철회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및 폐쇄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 공론화 재실시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 및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 등을 촉구했다.

박아름 기자

KAL 인도 델리 취항…성지순례객 큰 호응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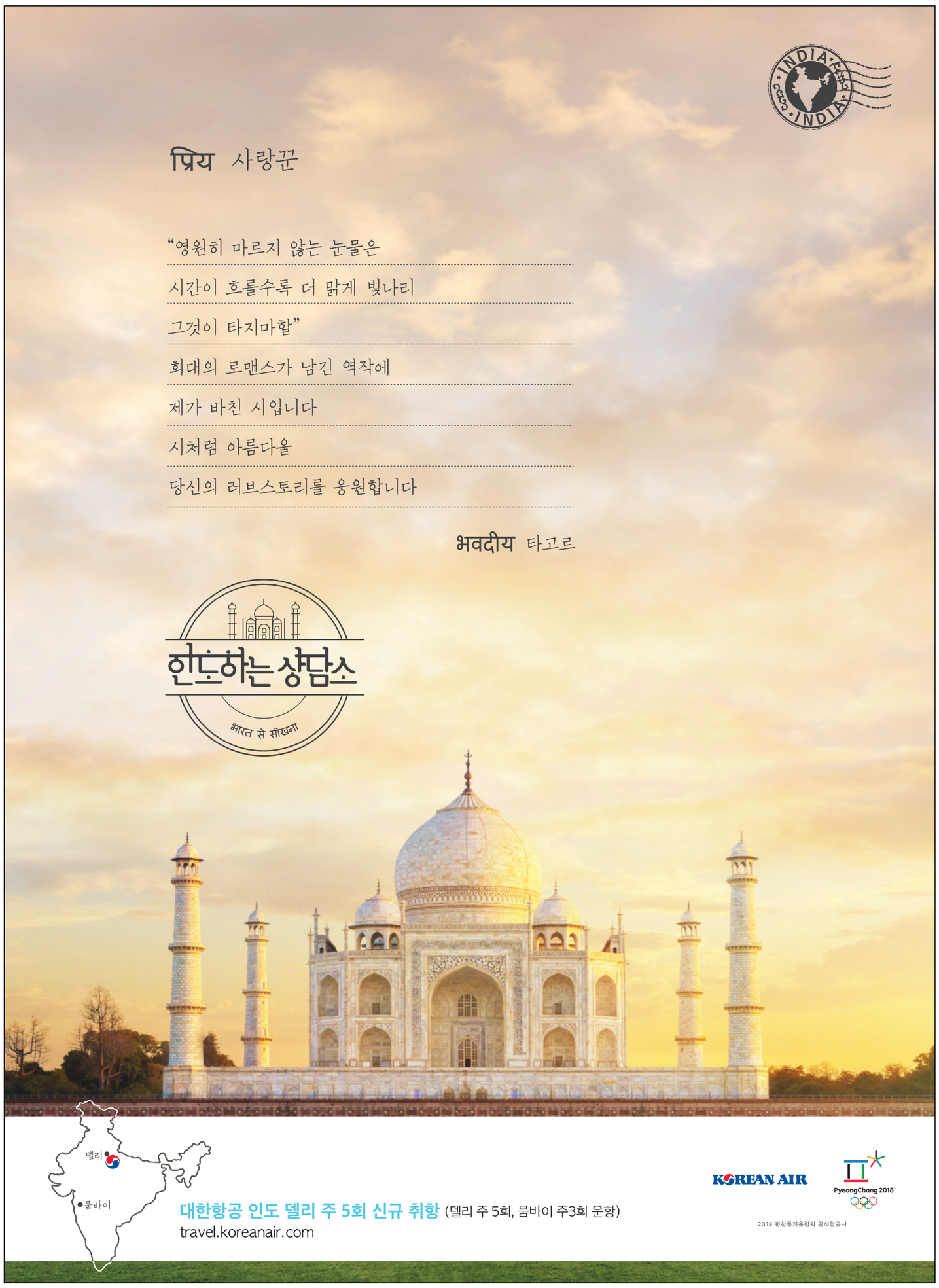
인도 노선은 주 8회 운항, 온라인 이벤트도 실시

대한항공이 12월 1일부터 인천~델리 신규노선 취항을 한다. 특히 델리는 주변에 부처님 성지가 많아 인도 성지순례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항공은 현재 인도 뭄바이 노선을 주 3회 운항중이며, 이번 델리 노선의 주 5회 신규 취항을 통해 인도 노선은 총 주 8회 운항하게 된다. 대한항공이 주 5회 취항하는 인천~델리 노선의 출발편(KE481)은 매주 화, 목, 금, 토, 일 낮 12시 4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6시 20분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에 도착한다. 복편(KE482)은 오후 7시 40분 델리를 출발해 다음 날 오전 5시 50분 인천에 도착한다. 인천~델리 노선에는 프레스티지 슬리퍼 등의 최신 좌석과 최첨단 주문형 오디오비디오시스템(AVOD)이 장착된 218석 규모의 A330-200 항공기가 투입된다. 대한항공은 이번 델리 취항으로 현재 취항하는 해외 도시가 총 119개로 늘어났다.

한편, 대한항공은 자사 마이크로 사이트(http://india.koreanair.com)를 통해 소중한 사람에게 인도 관련 힐링 메시지를 공유하는 '인도하는 영상 엽서 보내기 이벤트'와 인도 여행 전문가를 선정하는 '인도여행기 공모 이벤트' 등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대한항공 국제선 및 국내선 항공권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인도하는 영상 엽서 보내기 이벤트'는 마이크로 사이트서 제공하는 인도 여행 배경의 영상 엽서를 지인에게 보내면 자동으로 참여하게 된다. 영상 엽서를 통해 다양한 대상과 상황에 맞춰 준비된 메시지가 참가자들에게 제공된다. 또한 '인도여행기 공모 이벤트'는 인도에 대한 글과 사진 등 여행기를 작성해 응모한 참가자들 중 심사를 통해 인도 전문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이벤트는 11월 28일부터 5주간 진행되며, 당첨자는 이벤트 종료 후 마이크로 사이트 당첨자 게시판에 발표한다.

김주일 기자



일 주 문



부산전법도량 4대 의장

목종 부산 대광명사 주지 스님은 11월 28일 대광명사서 열린 부산전법도량 의장 이취임식서 제4대 의장에 취임했다.



샤카디타 송년의 밤

본각 샤카디타코리아 공동대표 스님은 12월 17일 오후 5시 행복마을 동사섭 서울센터서 '송년의 밤, 샤밤샤밤'을 개최한다.



군포교 기금 기탁

김규칠 (재)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11월 29일 군포교 진흥기금 7000만원을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에 기탁했다.



광희학원 이사장 추대

최용춘 前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은 11월 17일 학교법인 광희학원(동해중 · 고, 한중대)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추대됐다.



공불련 14차 봉사의 날

김상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은 12월 11일 영등포 보현의집에서 '제14차 사회봉사의 날'을 맞아 급식 · 청소봉사를 실시한다.

"절차탁마로 국제포교 역량 강화"

Interview

박홍우 前 대전고법원장, 신임 국제포교사회장 선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개인의 학문이 완성되지 않듯이 포교사를 품수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국제포교사들은 더 탁마해서 능력을 강화하고, 설득력 있게 외국인 포교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회원들의 지혜를 모아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한국불교세계화와 국내 외국인포교를 최전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신임회장으로 박홍우 前 대전고등지방법원장이 선출됐다. 단독으로 입후보한 박 회장은 11월 26일 열린 국제포교사회 정기총회서 만장일치로 제10대 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내년부터 2년간.

박 회장은 소견을 통해 국제포교사회 운영기조로 회원 역량강화와 종단 연계를 통한 소외계층 포교를 내세웠다.

박 회장은 "국제포교사는 부처님 가르침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외국어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한다"며 "역량강화를 위한 탁마에 나서야 한다. 향후 방안은 회원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 다문화 포교 종단 연계해 활동 극대화 "회원 의견 적극 수렴할 터"

박 회장은 이어 "국제포교사회 자체활동이 중요하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을 위해 국제포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종단과 연계해 이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데 노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박 회장은 당나라 문인 유우석(劉禹錫)의 글 '누실명(陋室銘)'의 한 구절을 인용해 회원 개개인이 주인의 식을 갖고 포교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산이 높지 않아도 신선이 있으면 명산이 되고, 물이 깊지 않아도 용이 있으면 신령스럽다고 했다. 불교의 수처작주(隨處作主)를 항상 마음에 새겨 국제포교에 앞장서자"고 당부한 뒤 "조직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해 포교사들의 활동무대를 넓히겠다. 이는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박홍우 신임회장은 신심 깊은 불자법조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1976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9년과 1986년 동대학 대학원서 헌법학 석사 ·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이후 30년 넘게 판사직을 수행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케이씨엘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불교계에서는 법조계 재가불자단체인 서초반야회장을 역임하고 2006년 국제포교사를 품수했다. 2013년에는 (재)아름다운동행에 아프리카 학교건립기금 100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독거노인 위한 김장 나눔

관음종복지재단, 관내 60가구 전달



사회복지법인 관음종복지재단(이사장 홍파)은 11월 30일 서울 낙산 묘각사서 김장나눔 행사를 열고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관내 주민센터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김장김치는 숭인1,2동 독거 어르신을 비롯한 저소득층 60가구 전달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대은 스님, 법무부장관 표창

안양교도소 제71회 교정의날 기념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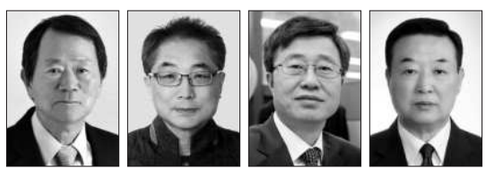


해동불원장 대은 스님은 11월 22일 안양교도소(소장 김안식)가 주최한 제71회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교정교화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대은 스님은 1976년 인천소년교도소를 시작으로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교정 활동 중이며 재소자를 위한 설법, 상담, 생일잔치, 염불경연대회와 월간 〈생활속불교〉를 발행해 전국교도소에 보내고 있다. 윤호섭 기자

창원불교, 시민불교문화상 발표

12월 19일 마산사보이호텔서 시상식



김현우 현태영 이재달 한성기

창원시불교연합회(회장 도홍)가 11월 30일 '제26회 향기로운 시민불교문화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문학상은 김현우 경남소설가협회 고문, 예술상은 현태영 창원예술극단 대표, 언론상은 이재달 MBC경남 보도국장, 행원상은 한성기 진해예총 고문(창원나래실버악단장)이 선정됐다.

김현우 소설가는 1964년 월간 〈학원〉에 장편소설 '하늘에 기를 올려라'로 등단해 11권의 소설집 및 동화집을 발간했다. 현태영 연극연출가는 1984년부터 70여 작품 연출과 희곡 창작에 매진하고 경남연극 발전과 후진양성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재달 보도국장은 1990년부터 취재기자, 취재부장, 보도국장 등으로 활동하며 지역 현안을 심층적으로 보도했다. 한성기 고문은 1991년부터 진해예총 임원과 창원나래실버악단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실버세대를 위한 문화활동에 기여하고 자선콘서트 공연 등을 통해 나눔과 봉사활동에 헌신했다.

시상식은 12월 19일 오후 6시 30분 마산사보이호텔 5층 대연회장에서 열린다. 하성미 기자

선암사 사수 · 종단 화합 동참 결의

2016 태고종 전국승려연수교육 1천여 명 참가

11월 24일 선암사서 열린 '태고총림 선암사 수호 및 종단 발전 결의 2016 전국승려연수교육'에서 참석자들은 "1500년 역사를 이어온 종단의 총림이며 수행정진의 근본도량인 선암사 수호에 전 종도가 합심하고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사진 아래〉

이 자리서 종정 혜초 스님은 법어를 통해 "경전에 선시불심(禪是佛心), 교시불어(敎是佛語), 율시불행(律是佛行)이란 말이 있는데 선암사 전통을 살펴보면 선과 교, 율을 겸해서 교육하던 유서 깊은 도량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이런 천년고찰 선암사의 전통과 역사, 주권을 지켜나가는데 한 발도 물러서는 일이 없도록 단단히 결심해야 한다. 전 태고종도는 근본도량 선암사를 영원히 수호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인사말서 "예로부터 우리 종단은 법난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전 종도가 부종수교의 굳은 결의로 힘을 합해 이를 극복해왔기 때문에 당면한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조혈모세포 기증 만 18세부터"

생명나눔, 광동高서 '조혈모세포기증 교육'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을 위한 조혈모세포 기증 교육이 실시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11월 25일 남양주 광동고교서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 교육'을 실시하고 400여 명의 고3 학생들에게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등록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사진 위〉

이날 교육에 참여한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 검사기획팀 소속 한진우 씨는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 설명했다. 한 씨는 "조혈모세포 기증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까지 희망등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곧 성인이 되는 고3 학생들이 올바른 인식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혈연 사이가 아니면 세포 조직 적합성 항원이 작동할 확률은 수만 분의 1로 매우 희박한 수준이다. 일치하는 환자가 나타나는 행운이 생긴다면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승희 기자

군산 종교계, 사랑담은 김장

11월 22일, 공무원 · 종교인 · 기업인 함께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종교단체와 군산시 공무원, 지역 기업들이 11월 22일 군산 공설운동장서 '화합과 희망의 프로젝트 사랑나눔 김장'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4대 종교인을 비롯한 참가자 250여 명은 김장 5000kg(500박스)를 담가 관내 저소득 및 취약계층 500여 곳에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 도 모 집



종 정 명 진 석법운 대종사

귀의 삼보하옵고…

새로운 불교, 혁신적인 종지종풍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석가세존으로부터 법맥을 이어온 저희 종단은 구태불교를 개혁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불교세계를 염원하는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은 본 종단과 함께하실 제방의 청정승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입종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 반 명함판 사진 3매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호 동명사
☎ 054)974-2605 / FAX 054)974-2705

제11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7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접수처 및 장소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올해에는 꼭!’ 그 발원 사찰서 한번 해볼까요?

전국 45개 사찰 ‘2017 해맞이 템플스테이’ 운영

병신년(丙申年)도 끝자락이다. 이맘때쯤이면 누구나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돌아보기 마련이다. 연초에 마음먹었던 내 다짐은 얼마나 잘 지켰는지,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은 없는지…. 돌이켜보면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릴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그랬듯이 새해 첫 아침에 산마루와 수평선에 걸린 새빨간 해를 보며 또 다시 다짐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템플스테이를 하며 새해맞이에 변화를 줘보는 건 어떨까?

2017년 새해맞이 템플스테이는 전국 45개 사찰서 운영된다. △해넘이 노을 감상 △소원지 쓰기 △타종의식 △해돋이 감상 △떡국 먹기 등 2016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아울러 템플스테이를 주관하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페이스북(www.facebook.com/templestay)을 통해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체험자 대상 ‘체험후기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템플스테이 세부 프로그램 등은 공식홈페이지(www.templestay.com)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눈에 띄는 새해맞이 템플스테이를 뽑아봤다.

흥법사 ‘해를 품은 나’

한때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은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이 연상되는 이름이다. 부산 흥법사는 시내에서도 어린이·청소년불자들의 신행활동이 두드러지는 사찰이다. 이 때문인지 프로그램 문턱도 높지 않고,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며 새해 계획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흥법사 탐방 △사찰예절 안내 △예불 △자기소개 및 마음 나누기 △자자(自恣-원망·분노 해소하기) △나의 컵 마주하기(새해계획) △새해맞이 타종 △떡국 먹기 △해맞이 및 특별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중학생부터 참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1인당 3만원. (051)508-0345

불갑사 ‘我몰라 템플스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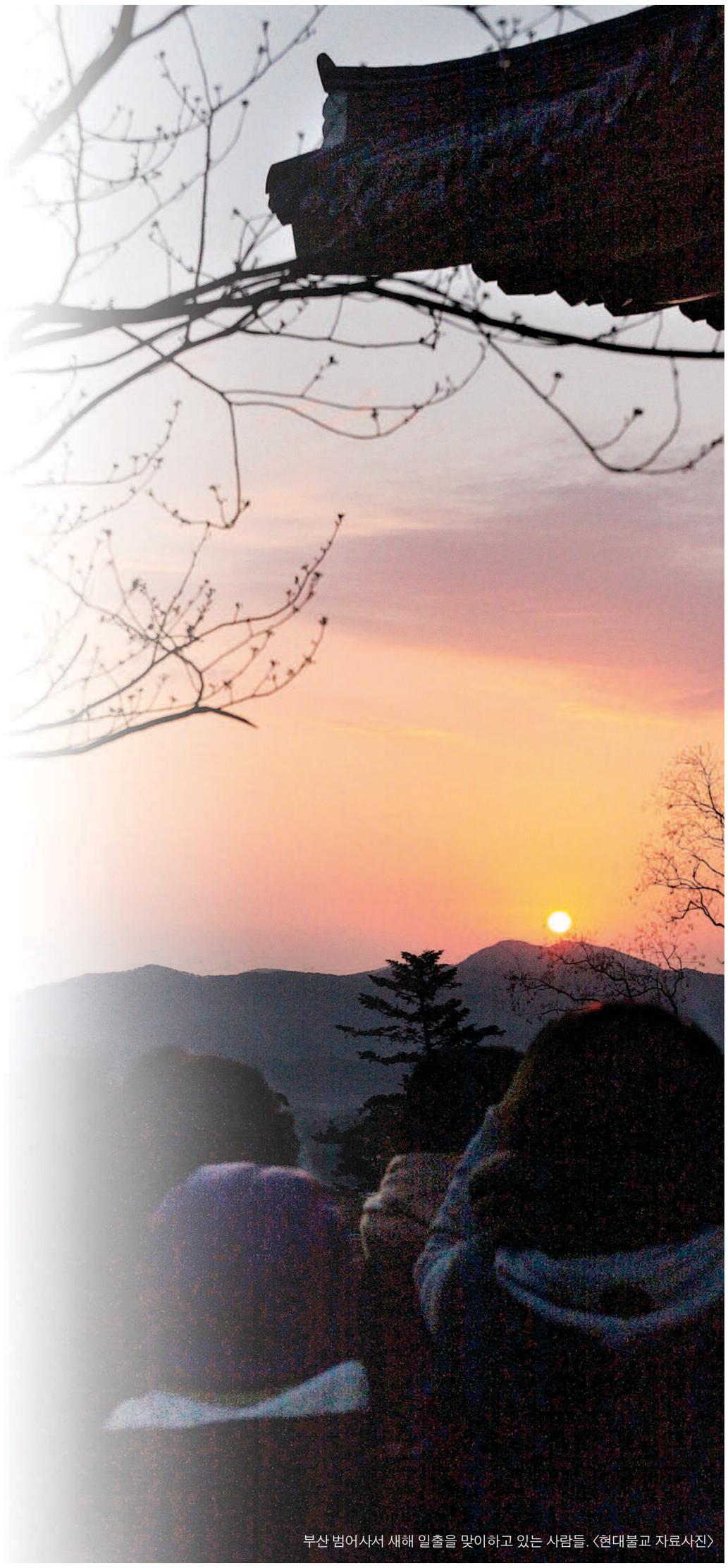
영광 불갑사는 다른 템플스테이보다는 조금 늦은 시간에 시작한다. 31일 저녁공양을 시작으로 차담과 ‘아(我)몰라 명상’이 진행된다. ‘아(我)몰라’는 자신의 심리상태를 잘 알지 못하는 참가자들을 위해 재치 있게 이름 붙인 것이다. 이 명상은 바쁜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감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다.

1월 1일에는 새벽 4시 경내 타종을 한 뒤 불갑산행을 하며 새해를 맞이하고, 하산해 떡국을 먹는다. 이날 오전에는 새해소원을 담은 기와불사 체험과 소원지 태우기 등이 진행된다. 초등학생부터 참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1인당 5만원(초등생 4만원). (061)352-8097

실상사 ‘해맞이 해넘이’

남원 실상사는 12월 30일부터 1월 1일까지 2박 3일 일정의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주제는 ‘잘 살기 위해서는 잘 쉬어야 합니다’로 지리산에서 자연과 하나 될 수 있는 사찰체험을 준비했다. 1일차에는 실상사 탐방, 스님과의 차담, 새해 발원문 쓰기가 진행된다. 이튿날에는 중군에서 산내에 이르는 둘레길을 스님과 함께 걷고, 자비명상을 하며 마음을 다스린다. 새해 첫날에는 해맞이 산행과 스님의 축원, 발원문 낭독이 이어진다.

실상사 템플스테이는 초등학생부터 참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성인 10만원·미성년자 8만원이다. (063)636-3191 윤호섭 기자


부산 범어사서 새해 일출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 〈현대불교 자료사진〉

2017 해맞이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지역	사찰명	연락처	일정
서울	국제선센터	02-2650-2213	12/31~1/1
	조계사	02-768-8523	12/31~1/1
	진관사	02-388-7999	1/7~8*
경기	대원사(가평)	031-582-0477	12/31~1/1
	법륜사(용인)	010-6766-8700	12/31~1/1
	봉선사(남양주)	031-527-9969	12/31~1/1
	신륵사(여주)	031-885-9024	12/31~1/1
	신흥사(화성)	031-357-2695	12/31~1/1
	용주사	031-235-6886	12/31~1/1
	화운사(용인)	031-337-2576	12/31~1/1
강원	건봉사	033-682-8103	12/31~1/1
	백담사(인제)	033-462-5565	12/31~1/1
경남	문수암(산청)	055-973-5820	12/31~1/1
	성주사(창원)	055-262-0108	12/31~1/1
	용화사(통영)	055-649-3060	12/31~1/1
경북	고운사	054-833-6933	12/31~1/1
	골굴사	054-775-1689	12/31~1/1
	도리사	054-474-3877	12/31~1/1
	보경사	054-262-1804	12/31~1/1
	불국사(경주)	054-746-0983	12/31~1/1
	심원사(성주)	054-931-6887	12/31~1/1
	은해사	054-335-3308	12/31~1/1
	자비선사	054-931-8874	12/31~1/1

지 역	사찰명	연락처	일 정
경북	축서사(봉화)	054-673-9962	12/31~1/2*
대구	동화사	053-980-7979	12/31~1/1
부산	홍법사	051-508-0345	12/31~1/1
	내원정사	051-242-0691	12/31~1/1
세종	영평사	044-854-1854	12/31~1/1
인천	전등사	032-937-0152	12/31~1/1
전남	대흥사(해남)	061-535-5775	12/31~1/1
	미황사	061-533-3521	12/31~1/1
	불갑사	061-352-8097	12/31~1/1
	송광사(순천)	010-8830-1921	12/31~1/1
	신흥사(완도)	061-554-2202	12/31~1/1
	쌍봉사(화순)	061-372-3766	12/31~1/1
	천은사	061-781-4800	12/31~1/1
	흥국사	061-685-5633	12/31~1/1
전북	금산사	063-542-0048	12/31~1/1
	내소사(부안)	063-583-3035	12/31~1/1
	선운사(고창)	063-561-1375	12/31~1/1
	실상사(남원)	063-636-3191	12/30~1/1*
충남	마곡사	041-841-6226	12/31~1/1
	부석사	070-8801-3824	12/31~1/1
	수덕사(예산)	041-330-7789	12/31~1/1
	영랑사(충남)	041-353-8053	12/31~1/1





LOTUS(연꽃香) 조연향

new

조연향의 은은한 연꽃향이 번뇌로 복잡한 마음과 정신을 바로 잡아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조연향은 맑고 깨끗한 아침 연못의 고요한 연꽃향과 고급 목분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조합으로 지쳐있는 심신을 다스립니다.

조연향은 우리 나라에서 만든 우리향입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격 [장] 10,000원 (제조 : 국내산)
[단] 15,000원 (제조 : 국내산)

소이(SOY) 왁스 양초
미국산 LOTUS 연꽃향초
로터스 양초 특징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ø × 18㎜ 연소시간 : 60 ~ 70시간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www.shcandle.com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신명나는 가족법회에 발걸음 '절로'

봉은사, 월 가족법회에 레크리에이션 도입

"훌랄라라~ 훌랄라라~ 훌랄라랄라 가위바위보!"

"와아아~ 이겼다!"

"진 사람은 손깍지를 하고 이긴 사람 목에 걸어주세요. '오늘 잘 걸렸다'는 마음으로 꽉 잡으세요. 그러면 이긴 사람은 진 사람의 옆구리를 사정없이 간지럽히세요!"

11월 마지막 일요일인 27일, 서울 강남 봉은사 법당에 어른과 아이들의 신명나는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 전화를 받으러 잠시 법당 밖으로 나온 이에게 묻자 '가족법회'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가족법회는 가족들끼리 절에 와서 불공 올리고 스님들의 법문을 듣는 게 대부분인데 무엇이 이리도 신난 걸까?

봉은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신(新) 개념 가족법회가 이목을 끌고 있다. 바로 불자가족을 위한 '공감 레크리에이션' 시간이다. 공감 레크리에이션은 오전에 봉행되는 '가족과 함께하는 일요법회'에 이어 오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 가족법회가 일반법회와 다르지 않게 진행돼 지루할 수 있다는 반성에서 마련한 것이다.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날 첫 선을 보인 프로그램에는 부모와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등 불자가족 50여 명이 참여했다.

"손동작과 함께 옆 사람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 너도 나를 사랑해'라고 노래할 겁니다. 그리고 '사랑해'가 나올 때마다 안아주세요."

참가자들은 레크리에이션 진행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노래를 부르며 서로

가족 위한 '공감 레크리에이션'
법회 후 오후에 별도로 진행
부모 · 자녀 유대감 형성 도와
세대별 사찰 유입 확대 계획

를 부둥켜안았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듯한 부모의 표정과 품에 안겨 두 눈을 꼭 감은 아이 모습은 행복 그 자체였다. 이후에도 박수게임을 비롯해 하트 그리기, 기차놀이, 모양 만들기, 림보 등 간단하지만 가족들이 함께 교감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과 진행자의 유쾌한 입담이 펼쳐졌다. 2시간 동안 가족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껴안고, 환호하며 정을 쌓았다.


봉은사 가족법회 레크리에이션 참가 가족들이 서로를 껴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

처남과 조카 등 6명을 데리고 가족법회에 참여한 정헌(46) 씨는 "아이들과 유아법회를 다니는데 가족법회는 처음이다. 처남댁이 서울에 놀러 와서 좋은 기회라 생각해 참가하게 됐다"면서 "절에서 애들과 즐거운 시간을 나눌 수 있어 좋다. 특히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생겨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아이들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할머니 손을 잡고 온 김규리(7) 양은 "집에서도 놀지만 절에서 할머니와 함께 놀 수 있어서 즐겁다"고 말했다.

봉은사는 매월 넷째 주 일요일마다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범 적용한 뒤 정례화해 불자가족의 사찰유입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인류의 원천은 가족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절에서 기도하고 불공 올리는 것도 나보다는 가족을 위한 것"이라며 "현대사회에서 '가족'보다는 '나'를 중시하는 경향이 짙어져 가족개념이 약화됐다. 불자가족들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자 레크리에이션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군포교 원력, 위법망구 자세로 정진"

조계종 군종교구, 제48주년 군승의날 기념법회

국토방위의 사명을 다하며 장병들을 위한 군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군승들을 격려하고, 출가수행자로서의 본분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11월 30일 국방부 일원서 '제48주년 군승의날' 행사를 개최했다. 군종교구는 국방부 원광사에서 2대 교구장 자광 스님을 계사로 포살법회와 '순직 군승 합동추모재'를, 이어 국방컨벤션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기념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초대교구장 일면 스님, 주호영 국회정각회장, 예비역 장군과 군승, 불교계 단체장, 군승 전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군종교구장 소임을 맡은지 40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220곳 부대와 270여곳 법당을 다니며 군포교 현장을 눈으로 확인했다"면서 "현역, 예비역 군승의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 앞으로도 군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며 장병들의 따뜻한 병영생활을 돕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기금 1억원을 (재)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군승을 대표해 발원문을 낭독하고 있는 현광 진병은 법사.

군승들을 공군10전투비행단 현광 진병은 법사가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부처님 제자로서, 부루나 후예로서 한국불교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서원과 정진을 다짐하며, 장병들을 위로하고 아픔을 어루만지는 군승이 되겠다"고 원력을 모았다.

윤호섭 기자

혁신운동 · 불자상 정립 방안 모색

12월 10일 조계종 포교원-동국대 종학연구소 연찬회

신행혁신운동과 불자상 정립을 포교종책 기조로 삼은 조계종 포교원이 연찬회를 통해 관련 방안을 모색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동국대 종학연구소(소장 종호)와 함께 12월 1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7대 포교원 5차 연찬회'를 개최한다. 연찬회 주제는 '신행혁신운동 및 불자상 정립,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다.

연찬회에서는 포교연구실장 원철 스님이 '신행혁신운동의 필요성과 전개방향'을, 박희승 봉암사 문경세계명상마을 사업단장이 '신행혁신운동에 따른 불자상과 청규 제정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명법 스님(은유와 마음연구소 대표), 유정길(지혜공유협동조합 이사장), 심산 스님(부산 흥법사 주지), 백도수(능인불교대학원대 교수) 씨가 참여한다.

윤호섭 기자

노년의 펜 끝으로 담아낸 '내 인생의 사계'

은평노인福, 리모델링 기념 및 어르신 자서전 출판기념회

어르신들이 집필한 자서전 출판을 통해 노년의 새로운 가치를 되짚어본 행사가 열렸다.

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승자, 이하 은평노인복지관)은 11월 30일 복지관 2층 소강당서 '새단장 기념 및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은평노인복지관은 '2016 어르신 자서전 쓰기' 사업을 소개하고 자서전쓰기반 글모음집 〈내 인생의 사계(四季)〉를 배포했다.

자서전쓰기반은 이성림 명지대 교수의 지도 아래 지난 4월~8월 매주 금요일 2시간 동안 글솜씨를 연마, 〈내 인생의 사계〉를 통해 총 427페이지 분량에 자신들의 삶을 기록했다.

'꼴찌 인생 파노라마'를 쓴 엄양현(79) 씨는 "어려운 결혼생활을 겪으며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주지 못해 항상 미안했다. 이번 자서전 출판을 통해 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생기록을 남겼다"고 말했다.



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승자)은 11월 30일 복지관 2층 소강당서 '새단장 기념 및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나이'를 쓴 이창규(83) 씨는 "80세가 넘은 인생의 황혼기에 내 삶을 글로 표현하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다. 앞으로도 노인들의 이야기를 전할 창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성림 교수는 "옛 말 둔필승총(鈍筆勝聰)은 '세상살이를 둔한 펜으로라도 적어 놓는 것이 총명한 기억력을 이긴다'는 뜻이다. 어르신들은 다양한 인생살이를 기록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주변엔 감사하며 자손들에겐 당부하고 싶은 내용을 기록했다"며 "여름 내내 읽고 수정한 글들을 읽고 어르신들과 공감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출판기념식에 앞서 복지관 리모델링 경과보고서 김승자 관장은 △복지관 전체 개별 난방시스템 △바닥 타일 △화장실 △중앙 출입문 △프로그램실 △인덕문고 등을 개보수 또는 설치했음을 알렸다. 은평노인복지관은 지난 9월 5일~11월 18일 리모델링을 실시했다.

한편 이날 자리엔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성흠제 은평구의회 의장, 김미경 서울시의회 의원 등 사부대중 150여 명이 참석해 복지관 난타동아리 · 은평청춘합창단 공연 등을 즐겼다.

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10년째 해외에 한국 알리는 신행 귀감

금강경독송회, 제10회 국제 에세이 콘테스트

불교신행단체로서 해외에 한국문화를 알리는 (사)청우불교원 금강경독송회가 10년째 국제 에세이 콘테스트를 열어 눈길을 끈다.

(사)청우불교원 금강경독송회는 내년 1월 8일까지 세계 각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10회 국제 에세이 콘테스트' 작품을 공모한다. 에세이는 금강경독송회 산하 한국정신과문화알리기회가 발간한 〈세종대왕〉을 읽고 써야 한다.

대상작은 고등학교 500달러, 중학교 300달러다. 최우수 · 우수상 등도 시상하며, 결과발표는 내년 3월 5일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scpp.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금강경독송회는 2005년부터 우리나라 위인(원효대사 · 세종대왕 · 이순신 장군 · 선덕여왕 등), 충효예(신라 화랑 · 효녀심청 · 의좋은 형제 · 논개 등), 문화유산(금속활자 · 고려청자 · 팔만대장경 · 석굴암 등)을 소개하는 책을 6개 언어로 총 75만권을 제작해 전 세계에 배포했다. 미국에서는 500개 대학과 6300개 중고등학교에 책자와 안내서를 보내고, 매년 독후감 대회를 열고 있다. 2014년에는 문화재보호 우수협력자 포상식서 문화재청장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윤호섭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5기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12월 중
◆ 개 강 일 : 2016년 12월 12일 월요일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2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전류가 흐르며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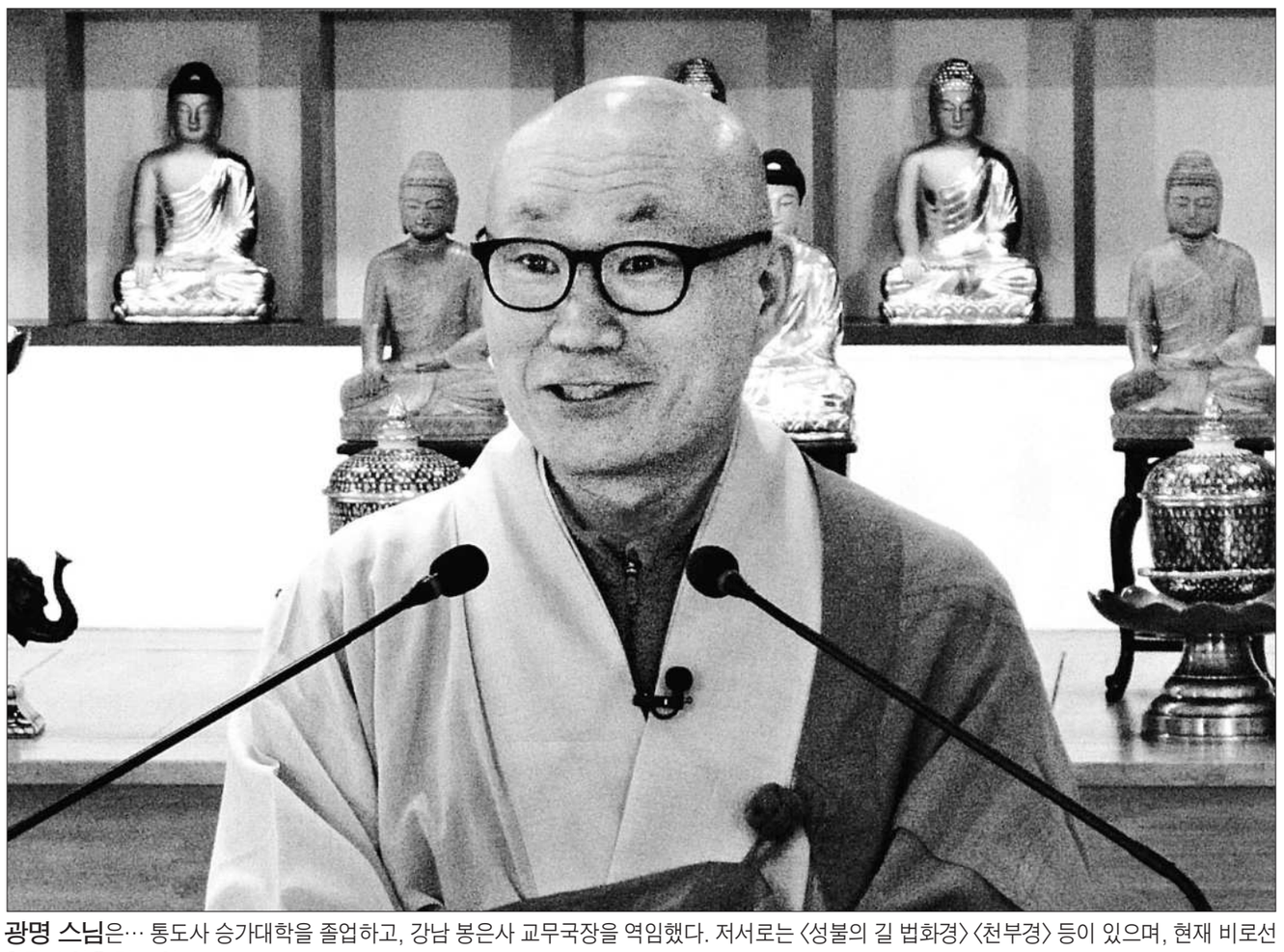
“천부경과 불교 가르침은 ‘空’으로 통한다”

참불선원 인문학강좌… 천부경

비로선원장 광명 스님

〈천부경〉은 1917년 묘향산서 수행하던 계연수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 경전이다. 원래 기원전 3800년 경 환웅으로부터 명령 받은 신지(고대 환웅 · 단군 시대 사관) 혁덕이 가장 오래된 서체 전자(篆字)로 기록한 것을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선생이 한문으로 번역해 전해왔다. 내용이 난해해 시중 해설서마다 각기 다른 주장이 난무한다. 총 81자 풀이의 핵심은 숫자다. 비로선원장 광명 스님은 11월 28일 참불선원 인문학강좌서 불교 가르침을 통해 〈천부경〉 핵심 내용을 풀이하고 “〈천부경〉과 부처님은 ‘空’을 통해 현대과학이 최근에 밝힌 우주 생성 원리를 먼 옛날부터 파악하고 있었다”고 감탄했다. 부처님 말씀을 통해 본 〈천부경〉서 서로 상통하는 오래된 지혜를 맛보자.

정리=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광명 스님은… 통도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강남 봉은사 교무국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성불의 길 법화경〉〈천부경〉 등이 있으며, 현재 비로선원장 소임을 맡고 있다.

스님, 〈천부경〉 만나다

지난 7월 이곳 참불선원에서 〈천부경〉 전래와 고대 한국사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며 2부 강의를 요청받았습니다. 오늘은 〈천부경〉을 연구하게 된 동기와 본격적인 〈천부경〉 내용 풀이를 강의하겠습니다. 〈천부경〉은 우리나라 고유의 경전이지만 불교의 내용과 상통하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부경〉은 숫자가 핵심입니다. 숫자를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국내엔 수십 권 해설서가 나왔습니다. 제가 〈천부경〉을 연구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 드리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긴데, 얼핏 기이한 내용도 포함되지만 편안히 들어주십시오.

저는 2000년도에 법주사 강원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전통강원은 커다란 기와집으로 4개 반이 있습니다. 1학년에 해당하는 치문반과 2학년인 사집반이 같이 쓰는 방 한 편엔 이불과 책꽂이가 있습니다. 개인소지품을 모두 그 방에 두곤 합니다. 한 학년을 마치고 올라갈 때 선배들이 나간 자리에 〈천부경〉 책 한 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1학년을 막 마쳤던 전 〈천부경〉이 부처님 경전으로 알고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개학날까지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 하안거 마치고 어머니를 뵈러 가는 길에 가지고 고향엘 내려갔습니다. 책을 쌓아둔 작은 방에 무심코 올려놓고 4년 후 강원을 졸업하고 하안거 해제기간 동안 다시 고향집에 갔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하루는 상기된 표정으로 오시더니 〈천부경〉 숫자를 해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부경〉이 뭔지도 모르는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매우 신기했습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 어머니께 전달된 내용을 연구하면서 〈천부경〉을 한 구절씩 해석해 나갔습니다. 〈천부경〉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一始無始一(일시무시일)
析三極 無盡本(석삼극 무진본)
天一一 地一二 人一三(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一積十巨 無櫃化三(일적십거 무궤화삼)
天二三 地二三 人二三(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大三合六生七八九(대삼합육생칠팔구)
運三四成環五七(운삼사성환오칠)
一妙衍萬往萬來 用變不動本
(일묘연만왕만래 용변부동본)
本心本太陽仰明(본심본태양앙명)
人中天地一(인중천지일)
一終無終一(일종무종일)

불교 교리로 풀린 숫자의 비밀

내용엔 1부터 9까지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그 중 가장 난해해 해설서에서도 명확하지 않은 4, 5, 6, 7, 8에 대해 어머니는 기도 메시지를 전달해왔습니다.

처음에 어머니가 적어온 한자는 ‘悉(실)’이었습니다. 도저히 정체를 알 수 없어 명문당 옥편을 찾아봤습니다. 명문당 옥편엔 폐어가 된 한자도 다 있기 때문입니다. 찾아보니 ‘悉’은 옛날에 숫자 4(四)를 뜻하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悉’을 실유불성(悉有佛性), 즉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는 뜻의 문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悉’은 일체 모든 존재를 뜻합니다. 다음날 새벽, 모친에 숫자 4가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를 뜻하냐고 물으니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정답을 알아낸 거지요.

이후 어머님은 또 숫자 7에 관해 ‘力必因緣 手走 火’가 뭔지 물으셨습니다. 중간에 因緣이란 글자를 보니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법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인연법으로 지은 업은 반드시 힘이 있어, 손에 횃불을 들고 달리는 것과 같이 분명히 보이는 결과를 얻는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숫자 7은 인연법은 반드시 결과가 있음을 알리는 숫자였습니다.

다음은 숫자 6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숫자 6에 관해 ‘永 遠’ 두 글자를 바로 알려줬습니다. 6은 끝 없이 영원하단 뜻이었습니다.

숫자 8에 관해선 ‘家’를 받았습니다. 2박 3일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화엄의 대가 현수 법장 스님에까지 생각이 미쳤습니다. 화엄사상은 법계 연기 사상입니다. 화엄에선 현상과 본체의 관계를 사법계(事法界) · 이법계(理法界) · 이사무애법계(理事無碍法界) · 사사무애법계(事事無碍法界)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 중 사사무애법계는 연기론의 극치로서 모든 현상의 조화를 뜻합니다.

> **천부경 해설은 ‘백가쟁명’**
> **불교 인연법에 기대 풀면**
> **공통된 ‘空’ 개념 발견**
> **숫자는 결국 ‘무아’를 상징**

아인슈타인은 물질에 일정한 진동수 이상 전자기파를 쏘이면 물질 표면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광전효과’를 증명해 빛이 입자임을 밝히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입자인 빛들이 서로 충돌하면 흩어지고 사사무애법계의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현수 법장 스님께선 조화를 설명할 때 집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문 · 지붕 · 창문 · 바닥 등 각 요소가 다 모여 조화를 이룬 하나의 집이 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집이란 조화의 집결체입니다. 숫자 8은 조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제가 화엄에 대해 몰랐다면 절대 해석할 수 없었을 겁니다.

숫자 5는 〈천부경〉의 출처 〈환단고기〉 내용을 참고해야 풀립니다. 〈환단고기〉는 우리나라 상고사에 대해 다룬 책입니다. 어머님께선 말을 탄 병사들이 중심 없이 흩어져가는 모습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 러시아 과학자 가모프는 빅뱅이란 가설을 세웠습니다. 우주는 아주 작은 한 점으로부터 폭발하듯 증가했단 의견입니다. 허블이 망원경으로 관측하기 전까지 모든 물리학자들은 이 빅뱅 이론을 비웃으며 우주 상태를 안정적인 상태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주는 빅뱅에 의해 중심없이 흩어지는 존재임을 현대과학은 밝혀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환단고기〉서 풀이한 〈천부경〉 내용은 불교와 모두 통하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運三四成環五七(운삼사성환오칠)서 四는 일체존재를 일컫는다고 했습니다. 三이 운행해 일체 존재를 이룬다는 게 ‘운삼사성’의 풀이입니다. 이 때 五는 운행하여 일체만물을 이루는 근원인 삼신(天 · 地 · 人)과 연기의 세계(七)를 연결하는 고리(環)입니다. 〈환단고기〉 [태백일사 삼신오제본기]에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고리는 5가지는 목 · 화 · 토 · 금 · 수입니다. 불교에선 4대 기운인 지 · 수 · 화 · 풍이 있습니다. ‘토’는 나머지 4개 기운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기운을 일컫기에 불교 4대 기운과 5개 고리는 상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순수한 ‘空性’

결국 〈천부경〉과 불교의 가르침은 우주의 시작이 기운에 의한 작용임을 밝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숫자들은 〈환단고기〉서 다 알 수 있습니다. 숫자 1은 허공, 다시 말해 불교의 공(空)을 이릅니다. 공의 의미를 없음 혹은 텅 비어있음 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원래 공은 공성(空性)입니다. 산스크리트어 sunyata(슈냐타)는 공성이라고 번역해야 옳습니다. 편의를 위해 단순히 공(空)이라고 번역한 것을 오해해선 안 됩니다. 공은 실체를 부정하는 개념인데 모든 것은 다 변한다는 뜻입니다. 공은 결국 변하는 성질을 가리킵니다. 〈대승기신론〉에선 공을 진여(眞如)라고 했습니다. 진여는 무상한 실체 그대로의 모습을 뜻하는 개념입니다.

부처란 번뇌를 다 끊어버린 순수 공성 상태에 이른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불성을 지녔지만 번뇌란 조건상태가 개입돼 중생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숫자 9는 우리말로 아홉이고, 아버지를 뜻합니다. 완성된 어른을 이르러 아버지라 했으니 결국 아버지는 부처님입니다.

세 번째 줄 ‘일적십거 무궤화삼’의 의미도 불교와 상통합니다. 이 구절에서 궤(積)는 쌓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하나씩 쌓아나가서 시방세계만큼 크게 되면 나를 구속하는 궤가 없어져 내 스스로가 삼신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 하나하나 쌓는 대상은 수행 공덕입니다.

제가 〈천부경〉 내용을 풀 수 있었던 이유는 불교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천부경〉의 내용은 불교의 가르침과 매우 비슷합니다. 여러분도 비교해서 공부해보면 재미있는 가르침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저의 숫자 풀이와 더불어 나머지 구절도 스스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8회 원효학술상(元曉學術賞) 공모

(재)대한불교진흥원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에서는 ‘세계 속의 한국 철학, 한국 철학 속의 세계’라는 슬로건 아래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 철학의 세계화를 주도할 학자를 격려하고 인재를 육성해 한국 철학이 국제 사회에서 세계 철학을 이끄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8회 원효학술상을 공모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와 월간 『불교문화』 공모 내용을 필히 참조 바랍.]

- **공모 주제** : 「불교의 현대화와 국제화」
  (* 상기 전제하에 다음 각 부문 중 자유선택 · 1인 1편 응모)
  –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 철학의 세계화를 위한 불교사상 연구 부문
  – 서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본 서양사상 연구 부문
  – 동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본 동양사상 연구 부문
- **시상 부문 및 상금** :
  – 교수(조교수 이상 및 그에 준하는 자), 저술상 : 1,000만원 혹은 논문상 : 700만원
  – 박사과정 후 비(非) 전임교수 1인, 논문상(저서 포함) : 500만원
  – 석 · 박사 과정 학생 3인 이내 : 금상(300만원), 은상(250만원), 동상(200만원)
  (모든 부문 공통 : 국내 및 재외국민, 외국인 포함 / 외국인의 경우 영어에 한함)
- **제출 자료** :
  1) 지원서 1부(양식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 www.kbpf.org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저서 2부, 논문(별쇄본) 3부
  ① 학생 논문의 경우 교수(조교수 이상 및 그에 준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할 것
  ② 심사 대상 작품은 최근 5년 이내(2012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까지)에 발표된 것에 한함 (저서는 ISBN 등록본).
  3) 외국인의 경우 영어에 한하며, 한국어본 초록(A4 3매 내외)을 제출해야 함.
- **접 수** :
  1) 접수 기간 : 2017년 1월 2일(월) ~ 2017년 2월 28일(화)까지
  2) 접수 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마감일 우편 소인 유효)
  3) 접수처 : 주소_0417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15층
  (재)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원효학술상 담당자, 전화_(02)719-2606
  *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십시오(kbpf@chol.com).
- **수상자 선정 및 시상식** :
  1) 심사 후 선정 및 통보 : 2017년 4월 중(수상자에 한해서 개별 통보)
  *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부문 또는 상금 내용에 변경이 있을 수도 있음.
  2) 시상식 : 2017년 4월 중(추후 공지)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재)대한불교진흥원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 www.kbpf.org 문의 : 02-719-2606

청견스님의 천만배 완결

깨달은 절수행이란?

다르마킹칼리지(절수행교육)

◎ 완벽한 : 표정, 자세, 동작, 호흡법, 동작알아차림, 감사염송법 텅빈 고요 삼매체험
◎ 순간 찰라 번뇌 망상, 잡생각 싹 끊는 비전
◎ 순간 찰라 마음이 크고 넓고 높게 큰마음 되는 비전
◎ 저절로 자동단전복식호흡의 비전
◎ 우주 태양+지구 땅의 기운 초고속 충전 비전
◎ 순수의식 참마음 참나 불성 초견성 비전

※ 상기 교육 마스터한 수행자에겐
◎ 스트레스와 부정적 맘으로 자율신경 무너져 심장 쿵쿵 뛰고 숨은 거칠고 공격홀몬 쏟아져 온몸 지배하는 병불행지옥 순간을 극복하는 지혜의 비전(10초~20초)
◎ 신명나는 인류최고의 가장 쉽고 온전한 빠른 요지부동 와선명상삼매를 체험케 함

절교육일정 : 매주 화,수,목,금,토 오후 2시 ~ 3시30분 (1일 3명 예약)
(깨달은 절수행이란? 책 읽고 홈페이지 참고하고 동참 요망)
절교육대상 : 상위 1% 수험생, 고시생, 명문대생, 한의사, 연구원, 벤처 CEO, IT연구원 예술인, 특별 우선 교육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선바위길 6 (신지2리 1101-1)
문 의 : 010-3487-0035 www.법왕정사.net

깨달은공동체 법왕정사 한불수행문화연구소

김진무 · 조현봉 · 최원섭 전법학술상 수상

불광연구원, 선정 결과 발표… 12월 11일 시상식


김진무


조현봉


최원섭

전법학 연구에 기여한 학자들에게 수여하는 전법학술상 올해 수상자로 김진무(원광대 강사) · 조현봉(동국대 강사) · 최원섭(금강대 HK연구교수)이 선정됐다. 대상인 바라밀상은 수상자 없음으로 결정됐다.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심사회의를 열고 올해 전법학술상 수상자를 이 같이 결정했다. 김진무 박사는 논문 '청대(淸代) 팽제청(彭際淸)의 불교부흥과 거사불교(居士佛敎)', 조현봉 박사는 '협조적 전법교화 체제 활성화를 위한 재가 포교사 리더십에 관한 연구', 최원섭 교수는 '방송 매개 전법을 위한 불교 콘텐츠 구성 방향'으로 전법학술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박사의 논문은 재가자 중심의 거사불교가 중국 불교에 중대한 사상사적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현재에도 다양한 담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논문으로 평가됐으며, 조 박사의 논문도 재가 포교사 능력을 향상시켜 종단의 포교정책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인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교수가 논문을 통해 제안한 불교 매뉴얼 마련과 불교콘텐츠 포털센터 구축 방안은 그간 방송 제작자들이 꾸준히 제기했던 요구들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잠실 불광사 보광당에서 진행하며, 시상식에 이어 수상논문에 대한 발표회도 함께 가질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상금 각 300만원씩이 수여되며, 불광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전법학연구〉 제11호에 논문이 게재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이중표 교수, '니까야로 읽는 반야심경' 특강

12월 19~22일 마포 다보빌딩서 총 8강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 부설 대원불교문화대학은 겨울방학을 맞아 이중표 전남대 철학과 교수 초청 '니까야로 읽는 반야심경' 강좌를 개최한다.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오후 7시 서울 마포 다보빌딩 다보원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는 매일 1 · 2교시씩 총 8강으로 진행된다.

진흥원은 "한국불교의 의식마다 빠지지 않고 독송되는 '반야심경'은 가장 짧은 불교경전이면서 반야경전의 중심사상을 270자로 함축시켜 서술해 놓았다"며 "대승불교의 정수를 모아 놓은 대표적인 경전인 '반야심경'의 니까야를 통한 재해석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강료는 5만원.

(02)707-1072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학硏, '불교사상과 미술' 동계 워크숍

12월 26~27일 산청 대원사서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종남)는 12월 26~27일 산청 대원사서 '불교사상과 미술'을 주제로 동계 워크숍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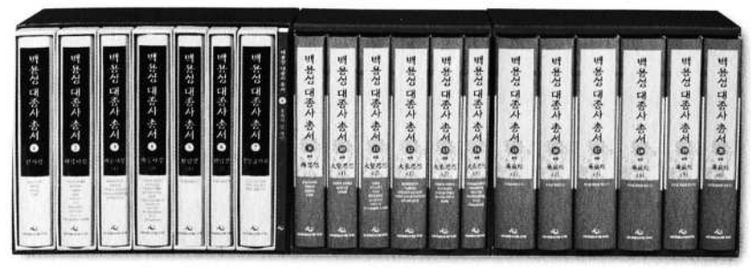
이날 워크숍에서는 홍대한 숙명여대 교수의 '고려 건국과 경상도 지역 석탑의 새로운 변화', 주경미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의 '불사리장엄구의 양가성 · 종교성과 세속성의 상치와 융합', 강소연 중앙승가대 교수의 '업 · 윤회사상과 감로탱화에 대한 연구' 등이 발표된다.

학술발표 이후에는 '불교사상과 미술'에 대한 종합 토론이 이뤄진다. 워크숍 이튿날에는 진주 청곡사, 고성 옥천사 답사도 진행된다. 참가자는 40명 선착순 마감이며, 이메일과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010)4313-2122

신성민 기자

백용성 스님 저서 망라한 '총서' 나왔다

대각회 · 전자불전硏, 〈백용성 대종사 총서〉 발간


조계종 대각회와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추진 · 발간한 〈백용성 대종사 총서〉 전집. 2013년부터 4년여의 시간 끝에 세상에 나왔다.

3.1 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 33인이자 한국불교 근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선지식인 백용성 스님(1864~1940)의 저서와 관련 자료를 망라한 총서가 발간됐다.

조계종 대각회(이사장 혜총)는 오는 12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목동 법안정사에서 〈백용성 대종사 총서〉 출간을 기념하는 고불식을 봉행한다. 근대 고승에 대한 전면적인 총서 발간은 유례가 없는 일로, 이번 총서 발간으로 용성 스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백용성 스님에 대한 전집은 1991년 대각회에서 발간된 바 있었으나, 대부분 자료를 영인(影印)하는 데 그치고 일부 오류도 있어 정확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사실을 인지한 대각회가 동국대 불교학술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와 함께 〈백용성 대종사 총서〉 발간 사업에 착수한 것은 2013년 2월부터다. 4년여의 연구기간 동안 용성 스님 자료 조사와 촬영 등이 진행됐으며, 스님의 기고문 · 서간문 등이 새로 발굴되기도 했다.

또한 이번에 대각회와 동국대가 새로 발간하는 〈백용성 대종사 총서〉는 스님의 저서와 신발굴자료에 대한 현대어 해석도 포함돼 그 가치를 높였다.

총 20권에 달하는 총서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 1그룹 8권은 스님의 저서와 발굴 자료를 현대에 맞게 해석한 것이며, 2그룹 12권은 이를 영인한 것들이다.

또한 용성 스님의 저서를 부문별로 분류해 묶은 것도 특징이다. 1그룹의 1권은 '선사상'을 주제로 〈용성선사 어록〉, 〈귀원정종〉, 〈청공원일〉, 〈수심론〉이 포함됐다. 2권은 '대각사상'을 주제로 〈선문촬요〉, 〈삼조만유론〉, 〈각해일륜〉, 〈임종결〉, 〈대각교 의식〉, 〈석가사〉, 〈불문입교문답〉, 〈오도의 진리〉, 〈오도는 각〉, 〈대각교중앙본부 도서목록〉이 묶였다.

오는 12월 13일 출간 고불식
저서 정리 · 新발굴 자료 포함
현대어로 해석, 20책 묶어내
2013년 시작… 4년여 진행
기초 연구 자료로 가치 높아

3, 4권은 '대승사상 Ⅰ · Ⅱ'로 〈불설법망경연의〉, 〈각설 범망경〉, 〈신역 대장경 금강경 강의〉, 〈신역 대장 금강마하반야바라밀경〉, 〈상역과해 금강경〉, 〈수능엄경 선한연의〉, 〈조선어 능엄경〉, 〈대승기신론〉, 〈천수경〉, 〈지장보살본원경〉 등이 담겼다. 5, 6권은 〈조선글 화엄경〉이, 7권은 신발굴자료, 8권은 총목차 및 색인으로 이뤄진다.

특히 7권 신발굴자료에는 스님의 기고문, 신문, 잡지, 서간문, 비문, 단행본, 유물, 사진 등 발굴된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됐다. 8권 총목차 및 색인에는 총서의 전체 목차와 더불어 새롭게 정리된 백용성 스님의 연보와 관련 연구 목록도 포함됐다.

이번 총서 발간에 대해 대각회 이사장 혜총 스님은 "용성 스님은 수행 · 항일민족운동 · 역경 · 선농불교 · 포교 · 불교정화 등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셨다"면서 "이번 총서는 용성 스님의 사상과 활동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종합한 것으로 한국 현대출판사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동국대 총장이자 대각사상연구원장인 보광 스님도 "이번 총서 발간은 용성 스님의 연구가 진일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것"이라며 "이번 사업은 근현대 한국불교 고승에 대한 연구 및 자료 축적의 모델을 보여준다는 면에서도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총서는 DB화를 통해 모든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동국대는 내년 8월까지 DB화를 완료하고 아카이브를 통해 디지털 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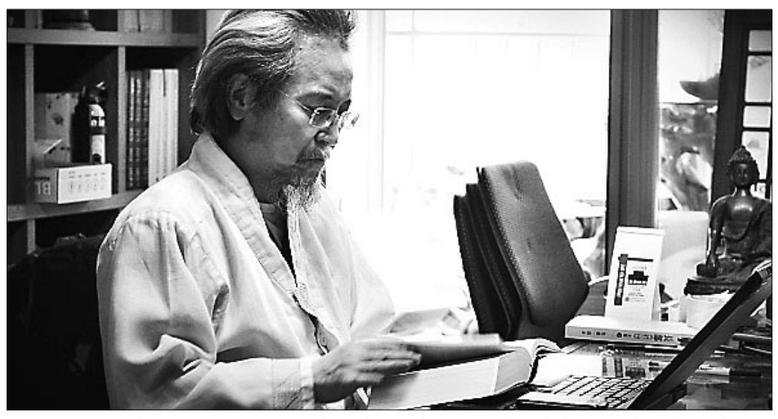
총서 DB화에 대해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ABC사업단 DB팀장은 "책으로 발간한 총서를 인터넷을 통해 불자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DB화를 추진 중에 있다"며 "용성 스님의 사상과 유훈을 일반 대중들이 알고 대중화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부처님 제자들의 오도송을 만나보세요"

전재성 빠알리성전協 회장 〈테라가타-장로게경〉 완역

장로들 오도송 1291수 담겨
〈테라가타〉완역, 세계 최초
제자들의 생생한 法悅 느껴져
사이비 수행자 비판도 '눈길'


초기불전 번역에 열중하고 있는 전재성 회장의 모습. 그는 〈테라가타-장로게경〉을 세계 최초로 완역했다.

오도송(悟道頌)은 일반적으로 선승이 자신의 깨달음을 읊은 선시(禪詩)를 의미한다. 하지만,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도 자신이 깨달은 바를 시로 표현했다. 이를 모아놓은 것이 〈테라가타〉이다.

〈테라가타〉는 남방 상좌부 경전으로 우리에게는 〈장로게경(長老偈經)〉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안에는 초기불교시대 불제자 260명의 출가 동기부터 수행과정, 깨달음이 게송으로 담겨있다. 그 분량도 1291수로 방대하다. 이 방대한 분량의 오도송이 세계 최초로 완역됐다.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장은 최근 〈테라가타- 장로게경〉 완역본을 출간했다. 〈테라가타〉는 1889년 처음으로 독일의 노이만에 의해 간략한 주석과 더불어 번역됐고, 1913년 영국 리스 데이비즈 부인에 의해 간략한 현생 인연담과 함께 발간됐다. 이후 영국과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번역이 나왔지만, 완역까지는 이뤄지지 못했다.

〈테라가타〉는 부처님 제자 260명의 게송인 만큼 출신성분부터 연령, 수행과정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마하깟사빠(마하가섭)처럼 바라문이 118명, 왕족이 60명이며, 지주가 7명, 상층계급은 54명이다. 장인은 9명, 배우 1명, 천민 10명, 서자 3명, 재가신자의 아들 3명이다. 바라문과 왕족이 가장 많지만, 당시 출가가 어려웠던 하층민들도 수행자가 됐음을 알 수 있다.

출가 연령도 흥미롭다. 대부분은 성년이 된 후에 출가했으나 쑤마나 장로의 경우에는 7세에 출가했으며, 담마싸빠삐따 장로는 120세 출가한 기록이 있다.

사이비 수행자에 대한 장로들의 비판은 현대 승가와 재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장로 빠라싸리야는 수행자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 사기꾼 · 협잡꾼 · 위증자 등으로 규정한다. 그러면서 "머리를 깎고 가사를 걸쳤으나 이득과 명예에 빠져 공경을 받는 것만을 원한다" 등의 게송을 통해 비판하고 있다.

전 회장은 "니까야에서는 살펴볼 수 없는 부처님 제자들의 위대함을 〈테라가타〉에서는 만날 수 있다"면서 "이번 완역본을 통해 부처님 제자들의 면모를 대중들이 알아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자비심으로 만든 김치공양 올립니다”

경남 하동 상선암, 11월 29~30일 쪽방주민 위한 김장행사

김치가 담긴 박스들이 상선암 앞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바로 옆 작업대엔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는 바쁜 손놀림이 쉬지 않고 움직였다. 작업대 뒤를 보니 오늘 중으로 끝낼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많아도 너무 많은 양이다. 하지만 봉사자들은 양념을 얼굴에 묻힌 채 환하게 웃는다. 서울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에게 김장 김치를 대접할 생각에 신이 난 모양이다.

경남 하동군 상선암(주지 보성) 앞마당에 (사)쪽방촌도우미봉사회(팀장 박부득, 이하 쪽방도우미회) 회원들이 모였다. 쪽방촌 뿐 아니라 전국에 보낼 김치 담그기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상선암은 매년 김장을 담아 전국 독거노인과 소외 계층에 보낸다. 이번 김장은 11월 29~30일 이틀 동안 진행됐다. 총 5톤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의 김장 배추를 씻고 다듬어 속을 만드는 일만 해도 하루가 넘어간다. 포장과 택배 배달까지 모두 책임진다. 택배로 보내는 주소지만 해도 전국에 100가구가 넘는다.

김장 나눔을 위해 쪽방도우미회는 서울서 29일 새벽 4시에 출발해 내려왔다. 직장일도 가정일도 일단 지금은 잊었단다. 오직 봉사로 인해 환희심을 얻는 시간이라며 기쁨이 가득하다.

배상만(66 · 서울 강서구) 씨는 “불자들이 함께 나눔에 동참하는 이 시간이 너무 기쁘다. 힘든지도 모르겠다”며 활짝 웃는다. 백선이(59 · 인천 부평구) 씨는 “새벽에 출발해 4시간 걸렸는데 힘들지 않고 매우 뿌듯하다. 많은 분들과 함께해 더 기쁘고 봉사가 생활화 된 분들보니 나도 닮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쪽방도우미회 회원들이 상선암까지 찾아 온 이유는 20년 전 인연 때문이다. 쪽방도우미회의 탄생이 상선암 주지 보성 스님의 후원으로 시작됐다.

보성 스님은 1년 중 가장 보람된 시간이라고 했다. 스님의 일상은 1년 동안 녹차 밭을 일구고 고사리, 매실, 감 등과 함께하는 그야말로 선농일치(禪農一致)의 삶이다. 그래서 농사에 거짓이 없다. 농약도 비료조차도 뿌리지 않는다. 자연에서만 나는 건강하고 맑은 것만 고집하는 것이다. 일반 농사와 달라 몇 배나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그 수확물을 팔고 남는 수익금을 또 전국에 회향한다.

전국 독거노인 · 소외 이웃 위해
‘선농일치’ 결과물 나눔으로 회향
김장과 배달 위해 총 3천만 원
쪽방도우미회 봉사 기쁨으로 ‘환희’

전국에 택배로 김치를 보내는 곳의 인연을 물었다. 스님은 “농사 수확물과 차를 팔기 위해 시장에 발품을 팔아 다닌 것”이 인연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을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못 먹고 사는 분들이 눈에 들어왔다고.



경남 하동 상선암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김장행사가 11월 29일~30일 진행됐다. 이 자리에 (사)쪽방촌도우미 회원들이 함께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맨 왼쪽이 상선암 주지 보성 스님.

“수확물을 들고 마땅히 팔 곳이 없었습니다. 시장에 직접 제가 갔고 지금도 저는 인터넷 판매 같은 건 못하고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시장서 스님의 눈에 들어온 것은 구입자들이 아니라 굶어 배고픈 사람들이었다.

“상선암으로 돌아와 그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쌀, 음식 재료를 보냈고 겨울에는 김치, 팥을 보내드렸는데 그분들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만난 것이 쪽방촌에서 봉사하는 김윤석 경찰서 반장과 쪽방도우미회 회원들입니다.”

매년 김장하는 양도 늘어 올해 소비한 금액만도 3,000만원이다. 들어가는 재료도 1년 농사를 지어 만든 매실액과 국산 고춧가루, 해남 배추로 최고급이니 다음해에도 그 이상이 소비될 것이라 예상했다.

박부득 쪽방도우미회 팀장은 현재 쪽방도우회 활동이 어려운 시기라고 설명을 이었다. 주변의 잦은 민원에 갈 곳을 잃게 된 것이다.

박 팀장은 “나눔 활동하는 동안 어려움은 언제나 있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피도 언제나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김장을 돕는 것은 무슨 뜻이겠는가? 아무리 힘들어도 봉사는 이어가겠다는 결심이다. 처음 시작된 이 자리에서 말이다”고 말했다.

쪽방도우미회는 현재 매주 목요일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쪽방 주민들을 위한 나눔 활동과 지역 돌보미로 활동 중이다.

하성미 기자

“主권은 국민에게… 목소리 내야할 때”

법륜 스님, 11월 26일 하반기 출가 콘서트서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행복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1월 26일 부산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본부 2층 대회의실서 하반기 출가 콘서트 ‘법륜 스님과 함께하는 행복의 길을 찾아서’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출가 콘서트는 지난 5월 상반기에 이어 2번째로 열렸다. 콘서트는 게시판을 통한 사전 질문과 즉문즉설, 그리고 가수 아웃사이더의 ‘출가 어택’으로 이어졌다. 주제는 △행복한 나라에서 살 권리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 △행복 위의 행복, 출가를 테마로 진행됐다.

법륜 스님은 먼저 현재 국정농단 시국에 관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지 제국이 아니다. ‘민국’이란 뜻은 주권이 곧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라며 “권리를 가진 자로 제대로 목소리를 내 실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참다운 행복을 위해서는 탐진치의 욕구를 버리고 알아차림으로 자신의 할 일을 제대로 알아야한다. 이를 실천할 때 참 행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수행과 전법 도량으로 도약할 것”

초기불전연구원 증축불사에 불자들 모연 이어져

빠알리 삼장 역경 불사로 현대에 부처님의 원음을 전달하고 있는 초기불전연구원(원장 대림)이 수행과 전법 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발원하고 증축불사를 계획 중이다. 이를 위해 초기불전연구원 불자들이 모연에 동참하고 한마음을 모았다.

11월 29일 김해 장유 보리원 법당서 모연금 전달식이 진행됐다.〈사진〉 이 자리서 황경환 초기불전선임연구원이 5000만원, 이유현 씨가 1000만원, 신혜경 씨가 5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원장 대림 스님과 지도법사 각묵 스님은 감사의 뜻과 함께 “그동안 역경 불사를 진행하며 정기적으로 학림을 개설하고 공부 모임을 이끌었다. 모임 때마다 70여명이 넘는 불자들이 찾아 주고 있는데 장소가 협소해 마음이 아팠다”며 “앞으로 역경 불사 뿐 아니라 수행과 전법 도량으로 도약하기 위해 증축 불사를 발원했다”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無明 벗겨내면 자신이 바로 비로자나불”

통도사, 11월 29일 화엄산림대법회 입재법회

선재동자의 구법의 마음이 모여 화엄의 문을 활짝 열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영배)가 제46회 화엄산림대법회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11월 29일 설법전에는 5000여명 불자들이 자리 잡았다.

입재는 방장 원명 스님의 법문으로 시작했다.

원명 스님은 “법회가 열린 근본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화엄세계에 주인은 바로 비로자나부처님”이라며 “동참제자 모두가 비로자나의 근본을 지니고 있는데, 지독히도 단단한 무명이라는 껍질만 벗겨내면 비로자나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여러분이 바로 비로자나부처”라고 설했다. 이어 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하시고 보니 온 세상이 화엄세계요 비로자나뿐이란 사실을 아셨다. 그 깨달음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화엄경”이라며 “화엄법회 기간 동안 멈추지 않는 구도심으로 보살도를 이루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영축총림 통도사는 11월 29일 제46회 화엄산림대법회를 설법전에서 봉행했다.

화엄산림대법회는 11월 29일 시작해 12월 28일 한 달 동안 열린다. 이 기간 동안 선, 교, 율의 대강백 31명의 법문이 이어진다. 아울러 매주 토요일 저녁 예불 후에는 장엄염불로 법성게가 진행된다. 이는 영가에게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유족에게는 친족을 잃은 슬픔을 위로하는 천도의식이다. 회향 법회 후 신도들은 위패와 다라니를 들고 금강계단에서 한 바퀴 돌고 고통 없는 열반 정토로 영가를 안내하고 소대에서 회향한다. 특히 이번 법회 기간 동안 법문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통도사는 법문 CD를 제작 · 보급한다.

화엄산림대법회는 1925년 극락암 경봉 스님이 어려운 이웃을 돌보기 위해 만일염불회를 개설하고 1927년 보우 스님, 해담 스님과 함께 극락암 무량수각에서 삼칠일간 법문한 것으로 시작됐다.

통도사는 “화엄산림 법회 목적에 대해 경봉 스님은 ‘유루의 법을 버리고 무루의 법을 증득’하는데 있음을 명확히 밝혀 놓으셨다”며 “이 기간 동안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실천, 그리고 선재동자의 금강 같은 구법의 마음을 배우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개인택시 법륜회, 자비의 후원품 전달

11월 24일 부산불교연합회 통해

부산개인택시 법륜회(회장 이상조)는 11월 24일 양정청소년수련관서 자비의 후원품을 전달했다.〈사진〉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품으로 부산불교연합회에 쌀 330kg, 라면 50상자, 설탕 100kg 등을 지원했다. 후원물품은 (사)부산불교복지협의회 소속 기관을 중심으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지역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원, 어린이 집, 장애인복지시설 등 40여 곳에 배분된다.

이상조 회장은 “이 땅의 소외받고 고통 받는 중생을 위해서 교법을 펴신 부처님의 뜻을 잇기 위해 법륜회가 창립됐다”며 “그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에 자비를 실천해주신 법륜회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법륜회는 2001년부터 결손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장학금 전달식, 양로원 및 고아원 방문, 수재민 돕기, 경로잔치, 독거노인반찬 만들기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비보살행을 실천했다.

하성미 기자

내장사 대웅보전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내장사
삼존불 · 후불탱화 점안식
■ 점안식 : 불기 2560년 12월 17일 (토) 오전 9시
■ 법요식 : 불기 2560년 12월 17일 (토) 오전 10시 30분
■ 문의 063)538-8741 종무실장 010-9506-7450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내 장 사

미소 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불사문의 050-2879-8709 010-3629-8709
9층 석가대탑
조성기간 : 13년 6개월
높 이 : 17미터

내소사, 지역 군법당 활성화 나서

공군 호국 의상암 이어 부안 1대대 법회 개최



부안 내소사가 지역 군법당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내소사(주지 진성)는 지난 봄부터 부안 공군 호국 의상암의 법당을 지원하고 대중스님이 직접 법회를 주관하는데 이어, 최근에는 그동안 방치되다시피 했던 35사단 부안1대대 법당 호국 대원정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11월 26일 호국 대원정사에서 첫 번째 법회가 열렸다.〈사진〉 법회에는 내소사 포교국장 도연 스님,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수연 스님, 원주 진하 스님이 참석했으며 정우영 대대장 등 부대 지휘관과 장병 50여 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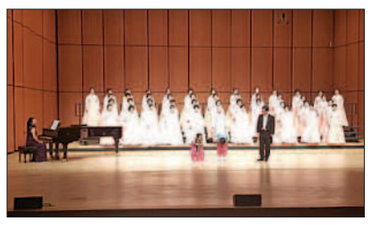
이날 법회에서 도연 스님은 "그동안 법회를 제대로 열지 못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내소사에서 정기적으로 법회를 봉행하는 것은 물론 장병들의 군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우영 대대장은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법회를 열지 못했지만 내소사에서 지원을 하기로 결정된 만큼 불자 장병들의 신행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소사는 지역 특성상 해경으로 근무하고 있는 불자들을 위해 경승단 결성과 정기적인 법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종교인들 함께 부른 평화의 노래

11월 27일 군산 4대 종단 평화합창제



군산지역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음의 메아리 속에 이웃종교를 이해하고, 시의 발전과 종교 간 화합을 기원하는 평화합창제가 11월 27일 군산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렸다.〈사진〉

군산지역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4대 종단이 한자리에 모여 자비와 사랑을 바탕으로 평화를 노래하는 이번 합창제는 불교 그린비합창단, 개신교 임마누엘합창단, 천주교 오리치오 앙상블, 원불교 원음합창단 등 각 종단을 대표하는 합창단이 동참해 아름다운 화음으로 자비와 사랑을 노래했다.

올해로 6번째 맞이하는 평화합창제에서 원음합창단은 무대에 올라 '백년꽃이 활짝피네', '찔레꽃', '사랑하는 마음'을 선보였다.

평화합창제는 지난 2011년 4대 종단 지도자들이 '군산시종교인연합회'를 구성,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는 취지 아래 각 종단이 순차적으로 주관해 왔다. 올해는 군산사암연합회가 주관했으며 내년에는 천주교가 주관하게 된다.

군산사암연합회장 도연 스님은 "상대방 종교를 이해하고 존중해 화합과 소통의 합창제가 되길 바란다"며 "합창제를 통해 국가의 안녕과 민생을 어루만지는 종교인으로 거듭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생명나눔, 자비의 연탄나누기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는 11월 27일 광주 북구 일원서 저소득층 가정에 '따뜻한 자비의 연탄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아이돌그룹 Miss-A멤버 수지, 무애암, 정상기업 등 회원들의 후원으로 마련된 기금 600여만 원을 환벽당 및 석곡동 일대 저소득층 50가구에 겨울 난방비로 전달했다.〈사진〉

현지 스님은 "자비의 연탄 나누기는 젊은 사람들에게 나눔의 정신을 알리고, 공동체적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라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 다문화교육 만족도 절반 못 미쳐

(사)착한벗들, 다문화 수용성 조사 연구결과

교육 경험자 중 43.5% 만족
내용 미흡·현실 거리감 지적
참여·활동적 프로그램 선호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필요



(사)착한벗들이 11월 26일 전주교육대학서 개최한 2016 다문화 정책토론회.

전북지역 다문화가정의 교육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문화교육과 활동에 동참한 이들은 다문화사회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참여 증진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결과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사)착한벗들'이 전북지역 중·고교생과 학부모, 다문화교육 참여교사, 사회활동가 등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서 나타났다.

(사)착한벗들(대표 회일, 참좋은우리절 주지)은 11월 26일 전주교육대학 교육문화회관에서 '2016 다문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착한벗들의 '2016 전북지역 다문화수용성 조사연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최준호 전북대 교수가 '전북지역 다문화수용성 조사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서재복 전주대 교수, 이중남 마하이주민지원센터 운영위원, 곽효정 공주대 강사가 참여했다. 사회는 이원식 금강대 교수가 맡았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다문화수용 인식과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다문화수용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활동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준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교육 및 활동에 실제 참여한 경험이 많을수록 다문화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지역 내 다문화 관련 활동에 참여의사를 보였다.

연구에서 전북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친화적 관계형성에 유리한 매개활동 소재와 주제 발굴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다문화 관련 기관의 상호 유기적 연계 시스템 구축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수용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는 다문화교육 경험자 가운데 43.5%만 교육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다문화교육의 미흡한 점은 '현실과 거리감(23.4%)', '내용이 다양하지 못함(23.0%)', '내용이 적음(21.6%)', '내용과 활동이 어려움(10.6%)' 순이었다.

향후 다문화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으로는 '서로의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프로그램'이 3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나라음식 체험(26.7%)',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게임 및 스포츠 동아리활동(20.4)',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프로그램(6.4%)'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이론위주의 다문화 프로그램을 탈피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착한벗들 대표 회일 스님은 "다문화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갈등이냐, 통합을 통한 발전의 동력이 되느냐는 우리의 시선에 달려있다"며 "각기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엄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다름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웅 사무국장은 "발전적인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원주민들의 긍정적이고 올바른 이해 증진이 기본 조건"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그동안 다문화가족에만 집중됐던 다문화정책을 원주민들로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착한벗들은 전주시 후원으로 시민들의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해 '음식으로 나누는 세계문화(동아시아음식체험)'와 '문화나눔 독서동아리(결혼이주여성과 일반시민이 함께 하는 독서)'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는 시민 34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이젠 자전거로 등교할 수 있어요"

빛고을나눔나무, 네팔서 자전거 100대 후원

부처님의 탄생지인 네팔 룸비니지역 학생들을 위해 한국불교계가 행복자전거를 선물했다.

빛고을나눔나무(이사장 연광)는 11월 22~29일 네팔 룸비니와 부트월 지역 인근 학교와 마을을 방문해 행복자전거 100대를 전달했다.〈사진〉 '행복자전거'는 룸비니지역의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매일 2시간 이상 걸어서 학교를 통학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통학용 자전거다.

빛고을나눔나무는 지난 6월부터 모금캠페인과 후원행사, 광주지역 사찰, 불교단체, 개인후원을 통해 마련된 기금 1000만원으로 자전거를 구입했다. 전달식에는 빛고을나눔나무 상임이사 혜공 스님, 문영배 기획팀장, 김영섭 자비신행회 사무처장 등 3인과 쉬리산티나무나 공립학교장, 교직원, 학생 등이 참여했다.

혜공 스님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네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행복을 더할 수 있는 자전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며 "자전거를 받고 즐거워하는 학생들의 얼굴에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자전거를 받은 비노드 반다리 군은 "생각지 못한 선물을 받아 감사하다. 다만 자전거를 받지 못한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다. 더 많은 친구들에게 이 같은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네팔 룸비니는 산악지대가 아닌 평지여서 자전거가 유용한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보통 노동자가 한 달을 일해야 자전거 한 대 값(10만원 상당)을 마련할 수 있다. 이에 빛고을나눔나무는 자전거가 다른 선물에 비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가족들도 함께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 지원사업을 준비했다. 더구나 자전거는 친구를 태워 함께 등교할 수 있어 나눔의 의미를 배가 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방문단 일행은 자전거 전달 외에도 현지 활동가의 요청으로 부트월 인근에 위치한 아팡아쉬람 고아원과 장애인 시설을 방문해 옷과 신발 등을 선물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성불사, 복지시설에 생필품 자비나눔

군산 성불사(주지 종명)가 복지시설을 방문해 자비행을 실천했다.

성불사 주지 종명 스님과 신도들은 11월 29일 군산시 소룡동 (사)군산행복의집을 방문해 생활필수품과 간식을 전달했다.〈사진〉 종명 스님은 "오랜 경기침체로 이웃 간 따뜻한 정이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불사는 1984년 창건한 이래 10여 년 동안 방생법회를 축소하고, 연중 3~4차례 어려운 이웃과 복지시설을 방문해 자비의 쌀, 생활필수품 등을 전달해오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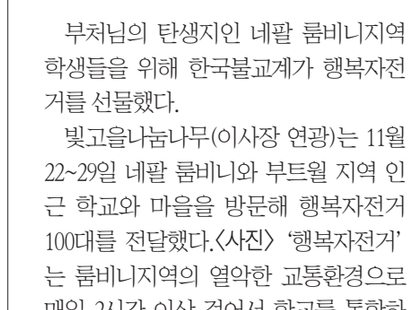


수제 햄머 Hammer

입점기념 세일 BIG SALE

장인의 숨결이 담긴 고결한 햄머

특징 100% 수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세상 하나 밖에 없는 나만의 동 제품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장인이 손수 망치로 두들겨 만든 햄머 제품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다른 제품들과 달리 우아하고 기품이 넘칩니다. 햄머는 코팅을 하지 않은 제품으로 자연적인 색깔변화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항균력이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는 성질을 가진 동, 햄머 제품은 대를 이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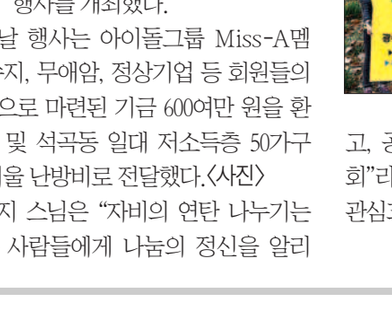

S800 유광

제조과정에서 오는 스크래치나 접합부의 땜자국 등 마감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햄머의 동 제품은 수작업으로 광택 정도나 수구의 모양, 크기 모두 약간씩 다를 수 있으며 만들 때마다 같은 빛깔을 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은 불가하오니 주문시 참고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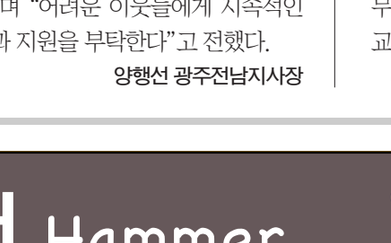
NY9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 S800 유광
주전자본체 : 90(W)×140(h)×800㎖
가 격 : ~~240,000원~~
→ 216,000원

수제동 주전자 – NY900 유광
주전자본체 : 105(W)×120(h)×900㎖
가 격 : ~~180,000원~~
→ 162,000원


드립퍼

드립퍼 – 고노형, 3~4인용
규 격 : 본체 가로 110×세로 95㎜
가 격 : ~~29,000원~~ → 89,100원


스푼

스 푼 – 수제동 스푼 S
규 격 : 10g
가 격 : ~~15,000원~~
→ 13,500원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품설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판매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바닥 없는 배면 어떠리! 강 건너면 그만이지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㉟ 인도에 다다른 현장법사

외뿔소 요괴 물리치고
한 걸음 더 인도 땅 깊숙이 들어서니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이 나오네.
감회도 새로워라, 금강경이 설해졌던 곳 아닌가?
환대 속에 하루를 머무르고
다음날 인도 왕성에 들어갔는데
아직 여난이 끝나지 않았구나, 여자 요괴 한 마리 있다.
달나라 옥토끼가 하계로 내려와
진짜 공주 쫓아내고 공주로 변신해
현장법사 가로채어 그 원양(元陽)을 채취해서
불로장생의 신선이 되려고 호시탐탐
공 던져 신랑 고르는 풍습을 빙자하여
일부러 현장법사를 겨누어 맞히고는
왕의 위엄을 빌어 강제로 혼사를 이루려 한다.
손오공이 그런 요괴의 정체를 모를 리가 있나?
한바탕 드잡이질에 요괴를 때려죽이려 하는데
"제천대성 잠깐 참으세요!"
광한궁(廣寒宮)의 태음성군(太陰星君)이 등장하여 옥토끼 구해가는구나
음(陰)을 상징하는 달의 요괴 물리쳤으니
이제 원양을 도둑질하려는 요괴는 끝!
요괴에게 자리 빼앗기고
갇혀 있던 공주 자리 찾아주니
현장법사의 공덕이 하나 더해졌구나!
가는 길에 구원외라는 신앙심 깊은 불자 집에서 극진한 환대를 받기도 하고…….
이제 정말 부처님 계신 곳
영취산 뇌음사에 도착하였네.
하늘 중간에 성스러운 오색 빛을 띠고
상서로운 안개가 겹겹이 둘러싸인 곳
바로 저기가 거기로구나!
감격에 겨운 현장법사
일보일배를 하는 공경한 자세로
앞으로 나가는데
콸콸 흐르는 강,
너비가 팔구리는 되는 강이 가로막네.
어찌 건너나 걱정을 하며 찾아보니
능운도라는 나루가 보이고
그 팔구리를 가로지른 나무 외다리가 있구나.
만길 무지개가 옆으로 누운 듯
천길 비단이 하늘 끝에 닿은 듯
도저히 사람이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아닐세.
현장법사 벌벌 떤다.
"나는 못 건넌다 못 건너!"
손오공이야 휘적휘적 건너서 어서 오라고 손짓하지만
저팔계도 벌벌 떨며 주저앉는다.
이 다리를 건너야 부처가 될 수 있다지만
부처가 못돼도 그만, 절대 못 건넌단다.



그림 · 최주현

그 때 물결 속에서 부르는 소리
"이걸 타시면 돼요! 타세요!"
누군가 삿대로 배를 몰고 나타난다.
손오공 밝은 눈으로 보니
접인조사(接引祖師), 보당광왕불(寶幢光王佛) 일세
그런데 배가 해괴하기 짝이 없다.
뱃전만 있고 바닥이 없는 배로구나.
접인조사님 말씀하신다.
티끌 세상에 물들지 않아 하나의 근원으로 돌아가니 억만 겁 토록 편안한 자유롭게 가는 배라네.
겁내는 현장법사 억지로 태우고 강 가운데로 나가는데 물살 위로 시체 하나 떠내려 온다.
알고 보니 현장법사 시체!
손오공이 말한다.
"사부님 겁내지 마세요! 저건 사부님의 껍질입니다."
접인조사가 축하한다.
"저건 당신이요. 육체의 구속을 벗었군요!"
이제 현장법사도 세속의 때를 벗고
구름도 탈 수 있는 몸이 되었구나!
차례로 여러 성중들의 환대를 받으며
석가모니불 계신 곳으로 나가니
부처님 참으로 기뻐하시네.
그 기나긴 길의 노고를 치하하시네.
그리곤 아난존자 가섭존자 불러 분부하신다.
삼장의 경전가운데 골고루 뽑아서 저들에게 주거라!
동토에 전하여 불법이 흥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아난, 가섭 두 존자를 따라 갔는데
이게 웬일? 두 존자 손을 벌린다.
"저희들에게 무슨 선물을 가져오셨나요?
설마 맨손으로 오신 건 아니겠지요?"

나무다리는 깨달음 후 실천 의미
밑 없는 배는 새 방편 의미
불법 실천의 방법은 다양하다

발끈한 손오공, 석가모니 부처님께 달려가려 한다.
두 존자 마지못해 경전을 내려 준다.
석가모니 부처님께 작별을 아뢰곤
모든 보살님 부처님께 일일이 절 드리며
분주히 중국으로 가는 길을 내달린다.
그런데 연등고불께서 가만히 신통으로 살피시니 아뿔싸! 현장법사가 얻은 경전은 무자경(無字經)!
글자가 없는 경전이로다.
본디 깊은 진리가 담긴 경이지만
동녘 땅의 중생들은 알아보지 못할 경이로다.
백웅존자에게 명하여 급히 뒤를 잡아
글자 없는 경전을 빼앗게 한다.
경전을 빼앗긴 손오공 일행 급히 추격을 하니
경전을 티끌세상 속으로 던져 버리고 달아나네.
몇 권 다시 주어서 살펴보니 글자 없는 경전!
선물? 뇌물? 그거 안주었다고
아난과 가섭이 가짜 경전을 준 것인가?
하마터면 헛수고 헛수고할 뻔 했구나
급히 돌아와 부처님께 하소연을 하니
부처님 허허 웃으신다.
너희들이 빈손으로 와 경전을 얻어가니
빈 책을 준 것 뿐이로다.
빈 책이란 본디 '글자 없는 참된 경전' 이지만
너희들 동녘 백성들이 알 수가 없을 것이로다.
다시 아난과 가섭존자 불러
글자있는 경전 주라고 명하신다.
그런데 두 존자 여전히 선물을 요구하니
당태종이 하사한 자금 바릿대를 선물로 바친다.
그리 하야 그리 하야.....
참으로 글자 있는 경전을 얻었구나.
이제는 현장법사도 범속한 몸을 벗어
구름 타고 중국으로 돌아간다.
팔대 금강의 호위까지 받으며 돌아간다.
정해진 난관의 수를 채우느라 통천하에 빠지기도 하지만
구름을 탈 수 있는데 큰 문제가 있으랴
휘익~ 한달음에 중국 돌아와 당태종 알현한다.
떠났던 때는 정관 13년 9월 12일
돌아온 지금은 정관 27년이니
14년 걸린 긴 여정일세.
지극한 환대로 지친 심신을 달래기 며칠
돌아온 기념으로 안탑사라는 절에서
황제에게 가져온 불경을 강론하는 자리를 연다.
막 경전을 펴드는 현장법사 앞에
8대 금강 현신을 한다.
"현장법사님, 저희들과 서천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행들 모두 휘익~ 서천으로 돌아가니
부처님 일행의 공덕을 칭찬하고
각각에게 올바른 과위를 내리신다.
현장법사는 전단공덕불(檀功德不)
손오공은 요괴 잘 잡아 투전승불(鬪戰勝佛)
저팔계는 아직 덜 떨어져 정단사자(淨壇使者)
사오정은 부동의 마음으로 금신나한(金身羅漢)
용마는 변함없는 뜻을 높이 사 팔부천룡(八部天龍)
저팔계가 나만 왜 급이 떨어지느냐 투덜대지만
제단 정리하면 먹을 것 많다는 말에 헤벌쭉~
역시 덜 떨어진 저팔계?
아무튼 모두 정과를 이루어 불보살의 지위에 올랐으니
동토에 경전 전한 그 공덕 찬란하여라!
그들이 이룬 수행의 공덕 높고도 높아라!
그 은혜 지금까지 이어지니
날이 갈수록 더더욱 사람들의 칭송 이어지리!
이렇게 '손오공이 기가막혀' 라는 이야기가 이어짐도
그 큰 공덕에 바치는 조그만 찬탄이로다!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인도로 들어선 길, 그렇지만 시련이 아주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의 여난이 남아 있죠. 달나라 옥토끼가 현장법사 원정을 탐하여……. 아주 계획적으로 하계로 내려옵니다. 인도의 공주로 내려오는 거지요. 진짜 공주를 술법으로 다른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그 보낸 곳이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이에요. 〈금강경〉에 나오는 기수급고독원이 맞습니다. 기타태자라는 분의 소유였는데, 급고독 장자가 그것을 사서 부처님께 바친 곳이지요. 태자가 땅을 금으로 덮어야 내 줄 수 있다고 하여, 금으로 동산을 덮었다는 곳이지요. 그래서 그곳에 '금으로 깔았다' 는 의미를 가진 포금선사(布金禪寺)가 자리하고 있었다네요. 바로 그곳에 현장법사 일행이 머무르게 되었고, 거기에서 요괴에게 추방되어 있던 공주를 알게 되고……. 그런 저런 인연이 겹쳐져서 결국 현장법사 원정을 탐내는 요괴를 물리치고 공주를 구하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지요. 서유기도 이제 거의 끝나가지만, 이 요괴를 끝으로 현장법사 원정 탐하는 요괴도 끝이지요. 달나라 토끼가 요괴로 나온 것은 아마도 그런 상징성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양의 상징은 바로 해, 즉 태양이지요. 음의 상징은 바로 달, 즉 태음입니다. 음력을 태음력이라고 하지요? 그 태음이 바로 달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달나라 토끼가 요괴로 등장한 것은, 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태음의 요괴가 양을 탐하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리침으로써 현장법사는 완전히 색(色)의 관문을 벗어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알고 보니 불행을 당했던 공주도 원래 달의 선녀였는데, 토끼를 함부로 때린 죄업을 받느라 그래 되었다는 인연담을 깔고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뒤로 하고 현장법사 일행, 드디어 부처님 계신 영취산 뇌음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뇌음사 안이라고 해도 넓고 넓네요. 그 속에 넓이가 7-8리나 되는 강이 흐르는……. 애고, 깨달음의 땅은 송곳 꽂을 자리도 없다던데……. 다른 한편으로는 넓고도 넓은 것이 깨달음의 땅이로군요. 거기에 그 넓은 강을 가로지르는 외나무다리! 낡은 통나무 다리! 하늘 끝까지 뻗은 것 같은 다리가 걸려 있네요. 현장법사와 저팔계 모두 "죽으면 죽었지 저건 못건너!"하는 다리지요. 바꿔 말하면 "못 깨달아도 좋아! 저 다리는 못건너!"입니다. 다행히 그 다리 말로 선택지가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것도 좀 황당하죠? 밑바닥 없는 배라네요. 한자로 표현하면 무저선(無底船). 낡은 통나무로 된 외나무다리, 밑바닥 없는 배…….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보기로 하지요.



• 공단등(6㎝) @2,500원
• 공단등(8㎝) @3,000원
• 바림등(8㎝) @3,000원
• 청도비닐만월등 160,000원



일반연잎 6,000 바림연잎 7,000 한지바림연잎 8,000
국산 LED전구(50개) 85,000원



방수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 22㎝ (50구) @65,000
• 23㎝ (50구) @65,000
• 25㎝ (50구) @65,000
• 30㎝ (50구) @65,000
• 35㎝ (50구) @70,000
• 40㎝ (50구) @73,000
• 50㎝ (50구) @75,000
• 1 m (50구) @90,000
• 2 m (25구) @80,000



한지 삼재풀이
할인가 700원(100개이상)
정 가 9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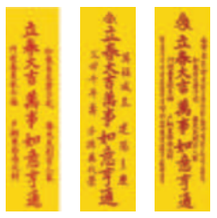
삼베 삼재풀이
할인가 800원(100개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음양오행 만재풀이
할인가 800원(100개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신년맞이기도부
할인가 800원(100개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한지입춘대길(大 / 2도)
판매가 12,000원 大 (10×43cm)
10,000원 2도 (7×30cm)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경면입춘대길
판매가 6,000원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 크 기 : 7.5×30㎝



입춘대길(大 / 小)
판매가 3,000원 / 2,500원
• 포장 : 100매 비닐포장
• 크기 : 大 7.5×28.5㎝ (흰색/노랑)
小 5×19.5㎝ (노랑)



금지경면 종합부
판매가 800원 (개당)
• 크 기 : 60×7㎝ (빨강/노랑)
• 포 장 : 개별 봉투포장



경면삼매삼재부
판매가 6,000원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 크 기 : 10×15㎝ / 9×14㎝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 크 기 : 9×20㎝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 크 기 : 9×20㎝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한지 세뱃돈봉투
판매가 10,000원 (100매 포장)
A : 흰색 / C : 노랑 –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B : 흰색 / D : 분홍 – 참 좋은 인연입니다.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0-3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 : 010-2094-2991-09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 : 강태규]

그 절집의 빛

㉕ 예천 용문사 목각탱

나무로 조각한 아미타극락회상 후불탱


용문사 대장전 목각탱. 목조각으로 만든 후불 목각탱이다. 1684년 제작. 크기:261×215cm.


목각탱에 부조한 아미타여래와 광배 문양.

사찰에 현존하는 목각탱은 8점
문경, 예천 등 경북북부에 중점분포
삼존불상과 일체형의 후불 목각탱
맨 아래 하단부는 구품연지의 세계


하단부의 화기와 마음 心자, 그리고 대성괘.

목각탱, 후불탱화의 조각화

일반적으로 대웅보전 석가모니삼존불 후불벽에는 영산회상도를, 극락보전 아미타삼존불 후불벽에는 극락회상도를 후불탱화로 봉안한다. 후불탱화의 재질은 삼베 천이거나 벽화의 경우 마감한 흙벽 자체가 바탕이 된다. 불전건물의 본존불 뒤에 후불탱화를 배치하는 작례는 한국 특유의 독창적인 양식이다. 후불탱화 대부분은 천이나 흙벽에 조성한 평면회화다. 그런데 임진왜란, 병자호란의 전란 이후 17세기 후반에 경상북도 문경, 예천, 상주 일원을 중심으로 대단히 창의적인 후불탱의 양식이 시도되어 주목을 끈다. 평면회화 양식의 후불탱을 입체적 목조조각으로 표현한 것이다. 화기기록에 '판탱(版幀)', '후불목탱(後佛木幀)' 등으로 기록하고 있는 목각탱(木刻幀) 양식이 그것이다.

목각탱은 나무로 만든 입체적 탱화다. 한마디로 '후불탱화의 조각화'로 압축할 수 있다. 후불탱과 불상 조형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 특별한 성보다. 조각과 회화의 입체적 깊이의 중간형식이 돋을새김인 부조(浮彫)다. 나무판 판재에 환조에 가까운 고부조로 불보살과 성중을 조각한 형태다. 후불탱의 자리에 목각탱을 대체한 까닭에 크기는 변함없다. 평균적으로 가로 세로 길이가 2~3m에 이른다. 그러다 보니 대략 폭 50cm 가량의 판재 네다섯 장을 나비장으로 이어 붙여 만든 것이 통례다. 사찰에 현존하는 목각탱은 8점으로 알려진다. 문경 대승사 대웅전 목각탱(1675년, 347×280cm), 예천 용문사 대장전 목각탱(1684년, 261×215cm),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각탱(1694년, 195×162cm), 상주 남장사 보광전 목각탱(조선후기, 226×236cm), 남원 실상사 약수암 목각탱(금산사 성보박물관 보관, 1782년, 181×183cm), 서울 경국사 극락보전 목각탱(17세기 후반, 또는 1887년 추정, 176×177cm) 등이 국가지정 보물로 등록되어 있고, 그 외에 완주 미륵사와 서울 연화사에도 목각탱이 전해진다. 보물로 지정된 6점의 목각탱 중에서 4점이 문경, 상주, 예천 등 경북북부 지역에 중점적으로 분포해서 주의를 끈다. 그것은 동일한 제작자 집단의 활동범위와 깊은 연관성을 가질 것이다. 용문사 목각탱 화기, 용문사 금당시창복장기 등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소영당 신경-종현의 증명(證明), 화원질의 첫머리에 나오는 조각승 단응과 탁밀의 활동무대와 일치하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17세기 후반 경북북부지역은 이들 승장들이 하나의 집단적 체계로 불사조성에 활발히 관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용문사 목각탱은 틀까지 온전한 전형

한편 위 통계에서 보듯 현존하는 최고최대 규모의 목각탱은 문경 대승사 대웅전의 목각탱이다. 10년 전까지만 하여도 시대가 가장 오래된 목각탱 자리는 예천 용문사 목각탱이 차지하고 있었다. 최근 조사에서 대승사 목각탱의 아미타여래 법신 뒤편에서 1675년 조성기록이 발견됨으로써 위상이 뒤바뀌었다. 하지만 시기로 보나 지역으로 보나, 심지어 동일한 제작자 집단으로 보나 대승사와 용문사의 두 조형은 우리나라 특유의 목각 후불탱의 시원이면서 전형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심리적 연륜은 용문사 목각탱이 더 오래된 고색의 느낌을 갖게 한다. 그것은 아무래도 배치공간인 대장전 내부의 고색창연함에 기인할 것이다. 특히 목각탱의 바깥 틀까지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어 완벽한 전형양식을 대표 할만하다. 조형, 구도, 형식에 있어 어디 한 곳 아쉬운 데가 없다. 목각탱 아름다움의 정수를 보여주는 불교조형의 수작으로 손색이 없다.

극락정토 연지구품으로 왕생발원

용문사 대장전 목각탱은 앞에 모신 아미타불-관세음보살-대세지보살의 목조 아미타삼존불과 같은 연대, 같은 승장들에 의해 조영된 삼존불과 일체형의 후불 목각탱이다. 모본을 바탕으로 회화적인 초를 그리고, 고부조로 조각한 뒤 도금으로 마무리 했다. 목각탱의 전체구조는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다. 장방형의 틀 좌우외부에는 오색찬란한 신령한 기운을 펼치고 극락조(봉황) 출현의 상서로움을 더해서 목조 후불탱화의 종교적 성스러움을 아름답게 부각했다. 사각형 틀은 대단히 세련되고 인상적이다. 먼저 사각형의 네 모서리에는 초록 12엽의 연화를 얹었다. 씨방 자리에는 금니를 입혔고, 모든 잎의 중앙에 흰 점을 찍어 내밀한 힘을 부여하고 있다. 틀의 각 변에는 주역의 팔괘 두 개를 결합한 대성괘 64괘 중에서 3개씩, 네 변에 12개의 대성괘를 넣어 동양철학의 보편적 우주관을 포용했다. 이러한 주역의 팔괘문양은 대승사 대웅전 목각탱에서도 보이는 대목이다. 틀의 윗변 장엄은 두 목각탱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다. 범자 '옴'자와 '만(卍)'자를 배치한 구도도 흡사하다. 하지만 대승사의 경우 틀의 윗변에만 문양을 넣었고, 용문사 목각탱은 틀의 네 변 모두에 정성을 쏟아 차이를 보인다. 사각형 틀의 아랫변에는 파격적이다. 향좌측부터 대성괘-화기-한자 心-화기-대성괘-화기-한자 明-화기-대성괘 순서로 문양을 배열하고 있다. 틀의 한 변 네 곳에 걸쳐 화기(畵記)를 적어 둔 경우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특히 마음 心자의 문양은 대단히 인상적이다.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요약하면 마음 心자로 귀결되는바, 일심(一心)의 한 물건이 아닐 수 없다. 明과 함께 '명심(明心)'의 깊은 울림을 가진다. '명심'은 깨달음을 얻는 밝은 마음이다. 틀의 좌우 양 변에도 주목할 문장을 새겨 두었다. 향우측에 '大須彌之中微塵刹土', '三世空色是塵圓融之法乃至', 향좌측엔 '當極樂之界寶池九品', '三種尊容又聖僧之位'의 문장을 새겼다. 목각탱에서 표현하고 있는 불국토와 조성 발원내용을 압축하고 있다. 아미타삼존을 비롯한 불보살과 성스러운 스님들을 봉안하였고, 향후 극락정토의 연지구품으로 왕생하기를 바라는 문장이다. 화기에 담는 발원문의 일종이라 할 수 있겠다.

극락회상도와 구품왕생도 결합

그런데 향좌측의 두 문장은 목각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 즉 목각탱은 아미타삼존불과 연지구품을 동시에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이 목각탱의 조형 모티프가 아미타여래 극락회상도와 구품왕생도에 있음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목각탱의 교리적 배경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관무량수경〉을 비롯한 정토삼부경이 조형사상의 바탕이 되는 소의경전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틀 내부의 조형은 8장의 판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화면의 중심부에 세로로 다섯 판재를 끼워 맞추고, 상하단에 각각 두 판과 한 판의 판재를 가로로 짜맞춘 구조다. 좌우 구름문양 좁은 목재는 상하 가장자리 목재판을 같은 크기로 잘라낸 것으로 추정된다. 화면의 중심부는 3단 구성의 아미타여래 극락회상도 장면이다. 중단과 상단에는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팔대보살과 석가모니불의 상수제자 가섭과 아난존자를 봉안하고, 하단 영역에는 4위의 사천왕을 배치했다. 공간엔 흰색 서기가 성스럽게 뻗치고, 상단 중앙엔 금빛 대연화가 마치 관경 16관변상도의 붉은 광명처럼 극락정토를 웅변하고 있다. 공간은 온통 성스러운 구름과 광명, 자비의 기운, 그윽한 전단향으로 충만하다. 그 거룩한 위신력과 원력 속에서 화불들이 나투고 집결하고 계신다. 아미타 본존불은 불상의 환조만큼이나 도드라진 고부조로 새겼다. 광배의 구성과 문양처리가 대단히 심오하고 심미적이다. 광배는 본질적으로 부처님의 위신력과 자비력의 광명이다. 광배가 자비력인 까닭에 물을 상징하는 육각형에서 넝쿨 문양의 생명력이 나선형과 태극의 힘으로 꿈틀거리며 순환한다. 광명으로 충만한 공간은 팔괘로 둘러싸인 법계우주로 표현해서 도가와 유가, 불교의 습합(習合)을 짐작케 한다. 습합은 습관적으로 몸에 배는 것이다. 금빛 광배의 바깥으론 흰색 연잎, 그 밖엔 다시 붉은 기운이 요동치는 기세다. 온갖 생명력의 운동에너지로 가득차 있다. 그 기세로부터 머리 위 광배의 끝자락에서 마침내 폭발한다. 폭발하는 흰빛 에너지 덩어리는 저 아래에서부터 배배 꼬인 엄청난 응집력, 핵력을 가진 듯이 보인다. 자비력의 광명이 분화구처럼 분출한 모양이 성스러움으로 이끈다. 그 거대한 대칭의 곡선이 아름답고 심오하게 다가온다. 신령의 힘과 관상의 아름다움을 구족한 환희지의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삼존불에 가려 보이지 않는 맨 아래 하단부 판재는 구품연지의 세계이고, 팔공덕수가 넘치는 보배연못이다. 〈관무량수경〉의 16관상에 묘사한 14관, 15관, 16관의 상배관, 중배관, 하배관의 연화좌가 베풀어져 있다. 그 연화좌의 근원은 청화백자 모양을 취한 보병에서 비롯되고 있다. 중앙의 보병에서 연꽃 줄기가 뻗치고 나와 가운데 상품상생의 연화좌부터 바깥으로 하품하생의 연화좌까지 좌우로 뻗어나가는 형상이다. 보병이 생명력의 원천이니, 보병이 곧 부처이고 여래의 상징일 것이다. 그런데 용문사 목각탱을 관상하는데 있어 가장 극적인 순간은 석양 무렵에 후불벽 뒤로 돌아가서 목조 후불탱을 보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목각탱의 뒷면은 삼베 천을 덧댔다. 그 무렵 노을빛이 천에 어린다. 붉은 범자가 노을빛에 여울지고 아미타여래를 스친 햇살이 고요히 마음을 비추일 것이다.


노재학(불교미술 사진작가)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면역력이 놀라운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대북


◀ 태징


◀ 2자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민초 위한 불교폐단 지적, 승려와 時로 소통

억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

㉟ 경재 하연

조선 전기의 문인 하연(河演, 1376~1453)은 조선이 건국된 후 성리학을 토대로 나라의 기반을 다지는 데 공헌했다. 그의 자는 연량(淵亮), 호는 경재(敬齋) 또는 신희옹(新稀翁)이다. 어린 시절부터 목은 이색(牧隱 李穡, 1328~1396)과 야은 길재(冶隱 吉再, 1353~1419)에게 뛰어난 필법과 재주를 인정받았으며 대학자 정몽주의 문하에서 성리학을 공부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고려의 은택을 입었는데 조선이 건국되자 부친 하자종(河自宗, ?~1433)은 두문동에 들어가 절의를 지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들 하연이 식년문과에 급제, 봉상시 녹사에 중용되자 마음을 바꾸어 조정에 나아가 공조참의를 제수 받았으니 이는 고려 왕실에 대한 변절이 아니라 진퇴를 고뇌했던 당대 문인들의 입장을 짐작하게 한다.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 초기 신진사대부들은 혼탁한 세상을 개혁하여 태평성대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성리학은 새 왕조를 건설하는 정치적 이념으로서 가장 참신한 이상을 구현할 수 있는 방책이었던 셈이다. 이를 주도했던 정도전, 하륜, 권근 등 신진사대부들은 사회적 개혁과 함께 성리학을 정치의 이념으로 정착시키고자 하여 집현전, 홍문관을 중심으로 수많은 서적을 편찬하였다. 〈대학연의〉나 〈성리대전〉이 집중적으로 강의되었던 것도 당시 조류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수신(修身)과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는 선비의 궁극적 목표이다. 그 또한 벼슬에 나아가 선공후사(先公後私)를 실현하고자 하였을 것이니 이런 뜻이야 이미 스승인 정몽주에게서 그 실천적 덕목을 영향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조선 초 정치적 상황은 혼란스러웠다. 정몽주의 죽음과 두문동으로 은둔한 조부 · 부친에게 닥친 정치 현실은 그에게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하늘이 낸 나라의 동량에겐 어려움을 극복하게 할 조력자도 나타나는 법. 바로 권근의 문인(門人) 강회백(姜淮伯, 1357~1402)이 그런 인물이었다. 그가 하연에게 "공은 좋은 벼슬을 하여 나라에 큰 정승이 될 것이니 향곡에서 늙을 사람이 아니다"고 한 말은 이미 하연의 품재와 시절의 흐름을 간파하고 내린 결론이었을 것이다. 아무튼 그가 원칙과 소신을 지켰던 관료로서 영의정에 오른 것이나 안견의 〈몽유도원도(夢遊桃園圖)〉에 찬시를 지은 경력은 강회백의 예견이 적중한 것이라 하겠다.

하연의 환로는 화려하였다. 1402년 사헌부 감찰에 임명되었고 1414년에는 사헌부 장령이 되었다가 2년 후 사헌부 집의에 임명되었다. 또 1445년 좌찬성을 거쳐 우의정에 올랐다가 1449년 영의정에 임명되었다. 특히 그가 맡았던 사헌부는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관청이다. 그가 장령에서 집의에 승진된 것도 청렴과 원칙, 강직한 그의 품성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특히 태종은 강직한 그의 성품을 익히 알았던 군주였다. 친히 그의 손을 잡고 "경이 사헌부에 있을 때 홀로 그 직분을 다했으니 그때부터 내가 알았다"고 한 것은 왕의 신임을 드러낸 말이다. 그가 승정원 동부대언에 제수될 재목임을 알았던 태종이나 지신사로 임명한 세종 또한 그의 신중한 처신을 깊이 신뢰했던 것이다.

그가 불교의 폐단을 지적, 개혁을 강조한 것은 1423년 대사헌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그가 상소하여 불교의 폐단을 신랄하게 지적한 것은 첫째, 백성은 기아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도 놀고먹는 승려들이 있고, 어려운 백성을 꾀어 먹을 것을 빼앗는다는 점. 둘째, 사원의 토지는 넓은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승려들의 수가 지나치게 적으며, 좋은 토지가 버려져 있는 현실적 폐단을 지적한 셈이다. 따라서 그의 생각은 사원이 소유한 대규모 사전(寺田)으로 인해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며, 세금이나 부역이 면제된 승려들의 무위도식(無爲徒食)하는 폐단을 시정하여 불교계의 방만한 폐단을 개혁하고자 한 것이다. 그의 〈척불소(斥佛疏)〉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몽주 문하서 성리학 공부**
> **조선 전기 나라 기반 다져**
> **〈척불소〉 상소 올렸지만**
> **불교 교유는 계속 이어가**

옛날에 당 고조는 사문을 싫어하여 장안에 다만 2곳의 절과 각 주에 각각 한 곳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였습니다. (중국은)천하가 크고 사해가 넓은데도 오히려 또 이와 같이 하였거늘 하물며 우리나라의 땅은 작은데도 많은 절집을 남겨두고 이에 따른 사전(寺田)을 넘치게 두는 것이 어찌 마땅한 것입니까. 신은 엎드려 바라건대 선왕의 유지를 잘 이어서 이단의 무리를 배척하시고 한양에 있는 사찰은 다만 2곳만을 남기고 각 도에는 각각 2~3곳을 넘지 않게 하시고 이어 시행했던 법을 파기하셔서 승직의 비답을 내리지 마십시오. 위에 올린 소를 아래에서 의논했더니 대신도 개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그 의논한 것을 올립니다. 아울러 조계, 화엄 칠종은 선교양종으로 합하게 하시고 한양 이외에는 다만 36사만 남겨두시고 사전은 헤아려서 주시고 나머지는 모두 파기하십시오.(昔唐高祖惡沙門。京師只留寺二所。諸州各留一所。餘皆罷之。以天下之大。四海之廣。尙且如此。況我國壤地 ㎜小。豈宜多置寺宇。濫屬土田乎。伏望殿下善繼先王之志。排斥異端之類。於京師只留二所。諸道各不過二三所。仍罷試選之法。勿下僧職之批。疏上。下其議。大臣亦以爲革之宜。上是其議。幷漕溪華嚴七宗。合爲禪敎兩宗。京外只留三十六寺。量給田土。餘悉罷之)

이 〈척불소〉는 그가 1423년 올린 상소문의 일부이다. 세종은 그의 상소를 받아들여 조계, 화엄 7개 종파를 선, 교 양종으로 통합하였고 36본산으로 통합하였으며 사원의 토지와 노비를 환수하는 조치를 내렸던 것이다. 이외에도 그는 1451년 문종이 대자암(大慈庵)을 중수하려고 하자 이를 반대하여 벼슬을 반납하는 결단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가 불교의 폐단을 지적하고 개혁하는데 적극적이었지만 이는 그의 정치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그는 상당수의 수행자들과 교유했던 흔적도 또렷이 남아 있다. 우선 〈중흥사의 감 스님의 시축에 차운하여(次重興鑑上人詩軸韻)〉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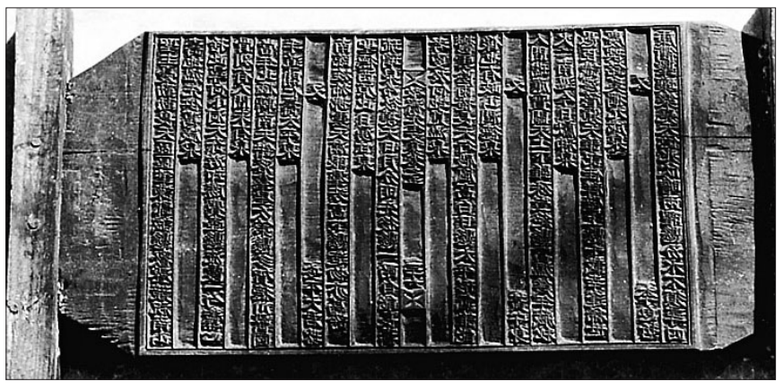
옛사람 뜻에 따라 승방에 묵었더니(昔人隨意宿僧房)
어찌 중흥사만 큰 언덕으로 막혔는가(胡乃重興隔大岡)
이 뒤에 만약 조정에서 휴가를 받으면(從此若乘朝暇日)
함께 양지 바른 창가에서 시축을 펴보리(共開黃卷面 朔)

아마 감 스님은 중흥사의 원로 스님일 터이다. 그 또한 선배들처럼 승방을 찾아갔지만 중흥사의 감 스님은 만나지는 못했던 듯하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후일을 기약했던 건 바로 양지 바른 승방의 창가에서 서로의 시를 화답하는 일이었다. 당시 관료문인이나 승려들의 소통 언어는 시였다. 각자의 속내를 담아낸 시구는 서로의 정치적 입장을 떠나 인간적인 따뜻한 배려와 이상을 담아냈을 것이다.

아무튼 중흥사는 그가 자주 출입했던 사찰이었던 듯, 다시 〈중흥사 주지 성유가 건포도를 보냈기에(重興寺住持省柔送乾葡萄)〉라는 시에서 건포도를 맛본 후의 감흥을 이렇게 노래했다.



경재 하연(1376~1453)의 영정. 그는 조선이 건국된 후 성리학을 토대로 나라의 기반을 다지는 데 공헌했다. 사진=한국학중앙연구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71호 하연 경재문집 목판(河演 敬齋文集 木板). 이 책판은 하연의 5대손 하흔이 흩어진 원고를 모아서 광해군 1년(1609)에 합천 해인사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사진=문화재청

자색 빛 둥근 건포도, 극치의 향기와 단맛이라(味盡香甘色紫球)
(건포도)씹자 가슴이 맑아지고 머리도 맑아지네(嚼來淸膈更淸頭)
유연하게 갑자기 시가의 흥이 일어나니(悠然忽有詩家興)
바로 산 중엔 팔월 가을이라(政是山中八月秋)

우리나라에 포도가 들어온 것은 고려, 혹은 조선 초기라고 한다. 당시 포도는 귀한 물품이었을 법한데 건포도를 보낸 것이다. 그런데 건포도의 일미(一味)는 향기와 단맛이었는지 "(건포도)씹자 가슴이 맑아지고 머리도 맑아지며/ 유연하게 갑자기 시가의 흥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더구나 가장 달이 밝은 8월의 산중에서 보낸 선물임에랴!

중흥사 주지 성유 스님이 보낸 건포도는 그의 시흥을 북돋게 한 쾌거의 선물이었던 셈이다. 이뿐 아니라 그의 성정(性情)을 일깨운 건 산승(山僧)이 보낸 해차였을 것이다. 싱그러운 해차의 향기, 산승과 깊은 우정의 일단을 보여준 시는 〈지리산 산승이 해차를 보내와서(智異山僧送新茶)〉이다.

진주의 풍미는 납일 전의 봄이라(晉池風味臘前春)
지리산 아래 초목들도 새싹이 돋겠지(智異山邊草樹新)
곱고 푸른 차 다리니 더욱 좋아서(金屑玉 煎更好)
맑은 색과 뛰어난 향기, 맛은 더욱 진기하네(色淸香絶味尤珍)

진주는 차의 산지이다. 더구나 납일 전에 딴 해차였으니 납일은 음력 12월 말즈음이다. 양력으로 환산하면 1월 말이나 2월 초 즈음이다. 지리산은 겨울에도 칡꽃이 피는 곳이다. 따라서 지리산 산승이 사는 곳은 쌍계사나 화계사, 아니면 지리산 깊은 산중에 위치한 암자일 터이다. 그가 보낸 차는 맑고 그윽하여 진기함을 더한 차였으니 차를 맛본 그의 시흥은 도도해졌을 것이다. 그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흰 수염을 보고 혹시 불로장생을 꿈꿨던 것은 아닐까. 그의 〈차노두황사탑전절구(次老杜黃師塔前絶句)〉는 다음과 같다.

일월은 서쪽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돌아오니(日月西飛更復東)
푸른 버들 풍요로운 풀, 그리고 따뜻한 바람이라(綠楊 草又薰風)
맑은 거울에 비친 흰 수염, 놀라지 마라(莫將淸鏡驚鬚白)
다만 술로 젊은 얼굴이 붉어지길 바라네(只要蒼 得酒紅)

해와 달이 오고감은 엄연한 원리이며 사시(四時)의 운행 또한 그렇다. 사람의 생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므로 봄날 같은 청년기가 지나가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건 늙어간다는 사실이다. 그 또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미 서리 내린 듯한 흰 수염에서 느끼는 허무감을 담담하게 드러냈다. 그런 모습에 놀라지 말라는 그의 의연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황 스님의 탑전에서 무상(無常)의 소식을 들었던 것일까. 술을 빌미로 창백한 얼굴이 붉어지기를 바라는 해맑은 그의 심사를 곁에서 듣는 듯하다.

그가 경상도 관찰사로 있을 때에 편찬한 〈경상도지리지〉는 후일 〈세종실록지리지〉를 편찬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진양연고(晉陽聯藁)〉를 편찬했다. 그의 문집 〈경재집(敬齋集)〉은 그의 후손 하곤이 〈진양연고(晉陽聯藁)〉에 편입하여 1609년 간행했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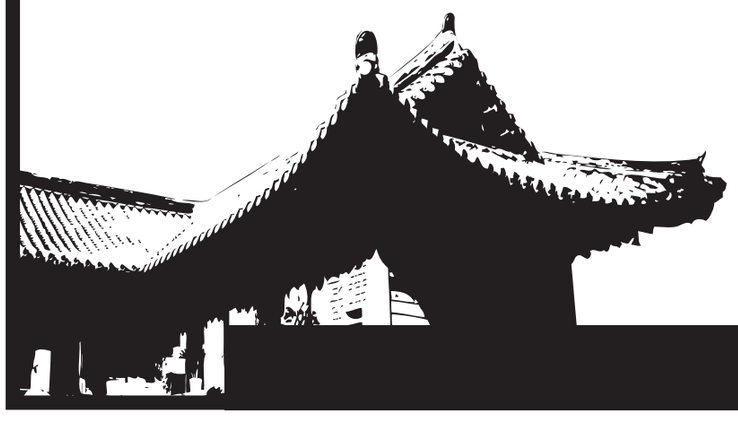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과거사 아픔 치유, 불교 미래 여는 일”

14살에 끌려갔는데 너무 어려 손님을 못 받는다고 많이 맞았어.
바닷가에서 사촌과 같이 납치 됐는데, 그 애는 일본군 총 맞아 죽었어.
이런 말은 아무한테도 안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돌아와서는 시집도 못가고 평생 고생하며 살았어.

대일항쟁기 위원회에서 발행한 〈들리나요? 열두 소녀의 이야기〉의 한 구절이다. 이런 가슴 아픈 위안부의 사연이 전해지는 한 사찰이 있다. 바로 부산 남구에 위치한 문수사다.

남구에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과 UN평화 기념관 그리고 UN기념공원과 평화공원이 위치한다. 특히 문수사 앞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추모탑에는 가슴 아픈 위안부의 증언이 남아 있다. 이 외에도 징용과 군속(군무원)으로 강제 징용된 사람들의 기억이 살아 생생히 전달되고 있다.

역사 가운데 어제의 기억과 오늘의 책임을 묻고 인권과 평화의 문을 여는 이곳을 문수사가 바라보고 있다. 마치 그들의 이야기에 매일 귀를 기울이듯 말이다.

11월 25일 만난 문수사 주지 지원 스님은 이런 잊혀가는 역사의 중요성을 설했다. 스님의 겨울 장삼은 덧댄 천으로 이곳저곳 기워 입은 흔적과 까맣게 변한 소매 끝은 낡아서 보기에도 길고 긴 세월이 느껴진다.

스님은 “‘기억’이 곧 시은(施恩)이다”는 마음으로 겨울이 찾아오면 잊지 않고 낡은 장삼을 꺼내 입는다고 했다. 스님이 꺼낸 장삼은 군대를 막 제대했을 때 어느 노 보살님이 손으로 직접 지어준 것이다. 스님은 그 노 보살의 마음이 아직까지도 전해진다며 40년이란 긴 시간이 묻어 있는 소매깃을 만졌다. 기억하고 입는 것으로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한다는 지원 스님, 그 기억의 방으로 들어가 미래에 대해 들었다.

그대는 자비보살

부산 문수사 주지 지원 스님

조계사 식당서 자비심 발현

조선족 자녀 장학금 전달 시작
(사)위드아시아 세워 세계구호
인도·캄보디아 등 자선활동
후원 위해 전국 방방곡곡 발걸음

근현대사 피해자 보듬는데 앞장

지원 스님의 이력은 역사와 함께 한다. 한일병합 이후 강제동원 된 위안부와 군속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활동부터 북한동포 및 원폭 피해자 돕기 등 우리가 외면했던 한국의 근현대사를 조명하는 곳곳에 스님의 활동은 스며들어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실제로 보고 듣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먼 타국으로 강제징용 당해 탄광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던 이들의 처참한 과거를 들으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직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수많은 유골이 일본의 이름 없는 사찰에 보관돼 있는 것을 알고 더욱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스님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종교인으로는 유일하게 이사직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스님이 몸담고 있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일제강점기인 1938년 4월 1일 국가 총동원령이 내려진 시기부터 해방 전까지 강제동원 된 희생자들의 유족을 찾아 복지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를 실시해 2008년부터는 유족들에게 일정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충분한 복지 지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시작됐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2014년에 이사회를 설립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이로 인해 올해 8월 11일에는 처음으로 부산 남구 대연동 일제강제동원역사관 7층 옥상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참석한 가운데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전국합동위령제를 열었다. 또한 피해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학술대회와 복지 후원을 위한 새로운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스님은 재단을 묵묵히 지원하는 한편, 앞장서서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기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1만2000평 위에 세워진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가운데 문수사 땅 4000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조속히 유족들을 위한 바른 복지가 이뤄지고 그분들을 기억하는 세대로 미래를 일궈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99년 위드아시아 발족

그렇다면 이런 스님의 활동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스님의 활동은 훨씬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9년 조계종 사회부장으로 서울 조계사 일대에서 활동하던 지원 스님은 조계사 근처 식당을 자주 찾았다. 식당에서 궂은일을 담당하던 아주머니들의 어눌한 말투는 스님의 관심을 끌었다. 스님은 그들의 사연을 자주 듣게 됐다.

“사연을 들어 보니 흑룡강에서 온 조선족들이었습니다. 아픈 남편을 대신해 넘어 온 사람부터 자녀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하는 등 다양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서 자녀들 교육을 위해 한 명 두 명 장학금을 전달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스님 혼자서는 많은 비용의 장학금을 감당할 수 없었다. 수혜를 바라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이었다. 스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모으고 단체를 조직했다. 그렇게 시작된 단체가 바로 NGO인 위드아시아다. 아시아와 함께한다는 뜻의 위드아시아는 1999년 발족됐다. 장학금 전달을 위한 시작이었던 만큼 위드아시아가 가장 먼저 추진한 사업도 교육 사업이었다.

“당시 참여불교운동본부의 진관 스님과 논의해 단체를 법인화 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해나갔습니다. 단체를 조직하니 보다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위드아시아는 인도 산티니케탄 지역 달라마을에 ‘위드아시아 제1중학교’를 건립한데 이어 전 세계에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도 유피주 에타하마을 불가촉천민지역에 ‘타타가타 학교(Tatagata Public School)’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인도 동부 몰가브니 지역에서 원주민 자립을 위한 소 육성 및 마을도서관 지원 사업, 라오스 비엔티엔 초등학교 개보수 사업,



위드아시아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이 2016년 5월 7~8일 진행한 마을장승축제에서 지원 스님은 효비빔밥 퍼포먼스를 통해 행복을 발원했다.



부산남구불교연합회(회장 지원)는 2016년 5월 10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해군작전사령부 해운사에 위문품을 전달했다.



2016년 8월 11일 부산 남구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추모공원에서 열린 ‘강제동원 희생자 전국합동위령제’에서 추모탑 제막식을 거행하고 있다.

문화재기능인목조각 제5772호 · 대한민국대한명인수미단 제483호

보리수불교예술원

DAUM NAVER 검색 | 보리수불교예술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검색창에서 ‘보리수불교예술원’을 검색하시면
보리수 공방으로 연결되고, 보리수 공방의 작업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상, 닫집, 수미단, 사천왕, 건축, 목탱화, 법상, 경탁,
경상, 현판, 주련, 복전함, 인등, 연, 단청, 개금



대표 오동렬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54-10 wangborisu@hanmail.net
전화 031)573-1269 / 010-5254-7596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녁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65×135㎜ 15만원
「중」 110×80×160㎜ 20만원
「대」 140×95×200㎜ 25만원

■ 재질 : 청동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3
■ 입금계좌 : 농 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20년 원폭·징용 피해자 거둔 실천가



근현대 피해자 보듬어

일제징용피해자 진상규명 앞장
원폭 피해자 지속 후원 나서
2세 환우 기초생활 지원 추진

실천과 수행은 하나다

포교 위한 '복지와 교육' 강조
수행 이정표 효봉 스님서 찾아
"불교 책무 다할 때 미래 밝아"

지원 스님은…

1966년 송광사 입산, 임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74년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동국대 불교대학 선학과를 졸업했다. 84년부터 현재까지 문수사 주지를 지내고 있으며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조계종 사회부장, 사회문화특보, 제11대 중앙종회 의원을 역임했다. 시집으로 〈산문에 부는 바람〉, 〈걸망도 내려놓고 마음도 내려놓고〉, 〈이별 연습〉이 있다.

하성미 기자

태국 치앙라이 산악지역 내 소수민족(라후족) '문수초등학교' 건립 및 마을 개선사업, 캄보디아 쁘 레이벵주 쁘레이끄랑마을, 끄로웃마을 화장실 개선 사업, 캄보디아 뿌레이벵주 찌삐여이마을 '우리공부방' 건립, 캄보디아 뿌레이벵주 뿌레이끄랑 마을 'Dream나래' 센터 운영 등 사업은 날로 확장됐다. 교육 사업은 국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빛을 발했다. 현재 위드아시아는 서울 금천구 구립도담어린이집과 부산 용호어린이집도 수탁 운영 중이다.

이는 교육의 힘을 믿고 또한 교육을 통한 포교의 길을 믿기에 가능했다.

"교육과 복지를 큰 축으로 삼아 포교 활동을 펼칩니다. 이 시대에 맞는 포교는 나눔에서 비롯되며 교육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입니다. 사찰에 더 이상 아이들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포교 대상이 있어야 포교를 할 것이고 부처님 말씀을 전달할 텐데…."

이어 스님은 "앞으로 더욱 더 사찰 안에서 만의 포교는 힘든 시기가 올 것"이라며 "교육이 답이다"고 말했다. 스님은 사찰 수익을 사회로 환원하고 복지와 나눔이 바탕이 된 교육으로 우리의 역할을 다질 시기라고 역설했다.

스님이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교육만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불교가 종교를 벗어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이를 통해 포교도 자연스럽게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폭의 아픔을 위로하다

위드아시아의 사회적 역할은 교육 뿐 아니라 원폭 피해자를 위한 후원에까지 미치고 있다. 지난 8월 6일 합천 평화의집은 경남 합천군 율곡면에서 '한국 원폭 2세 환우 생활쉼터' 개관식을 진행했다. 한국 원폭 2세 환우 생활쉼터는 2층짜리 주택 1층의 200㎡(약 60평) 규모로 방 네 칸과 부엌, 거실 등을 갖췄다. 민간차원으로 운영되며, 4명의 원폭 2세 환우들이 생활할 예정이다. 또 향후 홍보를 통해 생활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위드아시아는 2010년 원폭 2세 환우들을 위한 쉼터 합천 평화의집을 설립했다. 평화의집은 이후 원폭 2세 환우와 함께하는 봄, 가을 평화나들이, 67주기 한국원폭희생자 추모제 '해원을 넘어 평화의 언덕으로'를 개최해 원폭 피해자의 현실을 알렸다. 위드아시아는 2012 합천 비핵·평화대회를 개최해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 원폭 2세 환우와 가족을 위한 '김장잔치'등도 열었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졌을 당시 70만 명이 넘는 사상자와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그 때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있었던 한국인을 추정하면 7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세월이 흘러 1세대가 많이 돌아가셨지만 원폭의 아픔은 대를 이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스님은 원폭 피해자의 후손들을 위한 활동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님은 원인 모를 질병과 장애가 단지 자신의 책임인 것으로 여기고 살아온 그들을 위해 복지와 의료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원폭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그 혜택은 보잘 것이 없어요. 반드시 있어야 할 의료혜택과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이죠.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입니다. 원폭 2세대들은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교육의 기회도 박탈당했고 그러니 생활을 위한 취업을 꿈꿀 수도 없습니다."

위드아시아는 원폭 피해자를 위한 활동 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한 비핵화 운동에도 앞장섰다.

"핵이 얼마나 위험한지 증인들을 초대해 직접 알리고 세계평화를 위해 그 내용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합천 지역에서 특히 많은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나가사키, 히로시마를 옮겨두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세계 평화를 위해 생명의 존엄함을 알리고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바른 수행의 좌표로 미래를 제시

스님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며 어릴 적 출가 후 만난 은사 스님과 지중한 인연이 준 가르침에 감사했다.

"제 은사는 송광사 법흥 스님이십니다. 법흥 스님은 효봉 스님의 상좌이시니 저는 효봉 스님의 손상좌이지요. 저에게 큰 인연으로 가르침을 주신 스님들이십니다. 그 가운데 통도사 방장이신 벽안 스님을 시봉하기도 했습니다."

스님은 회향의 삶을 지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을 큰스님들과의 인연에서 찾았다. 또한 이번에 집필한 〈이 집안 소식을 뉘라서 알랴〉는 통합종단 초대종정을 역임한 효봉 스님의 선사상과 삶을 담아두었다. 자료를 모아 정리하기까지 총 8년간의 시간이 걸렸다. 효봉 스님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이라 더 귀중한 자료로 남게 됐다.

"대선사의 철저한 불교정신과 구도정신을 알 수 있습니다. 중생에 대한 회향의 삶과 죽음 앞에서도 좌탈입망으로 화두를 놓지 않으셨지요."

스님은 수행자에게 고인들의 수행궤적이 곧 이정표가 된다고 설명했다. 책을 집필한 이유가 수행의 정로(正路)에 목 말라하는 중생들을 위한 큰 실천행이 된다는 것이다.

"효봉 스님은 출가 전에 한국인 최초의 판사셨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과정 중 사형을 언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진범이 있었던 거죠. 그 후 스님은 법복을 벗고 엿장수와 옷을 바꿔 입고 3년 동안 전국을 떠돌다 금강산으로 입산했습니다. 그 때 당시 금강산 석두 스님을 만나 늦게 출가를 하셨죠."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절구통 수좌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한번 앉으면 일어나지 않고 공부하셨던 모습을 마치 본 것처럼 대화를 풀어갔다.

"1946년에는 해인사 방장으로 추대되어 불교중흥을 위한 의지를 다지며 불교정화 등 다양한 활동도 펼치셨습니다. 올해가 효봉 스님 열반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렸던 제가 불가와 인연을 맺은 지도 50년이 되었지요."

되돌아보면 지난 세월이 아쉽고 아득하다는 스님은 은사인 법흥 스님, 벽안 스님, 문수사를 창건한 덕암 스님까지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외우듯 법명을 부르기 시작했다. 마치 길손이 길이 잃어갈 수 없을 때 만난 이정표를 되새기듯 말이다.

이 시대 역사로 인해 생긴 많은 숙제들이 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길을 잃은 자를 위한 이정표로 오늘 스님은 또 다시 과거와 조용히 손을 잡는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 용기와 나눔 그리고 실천이라는 답을 내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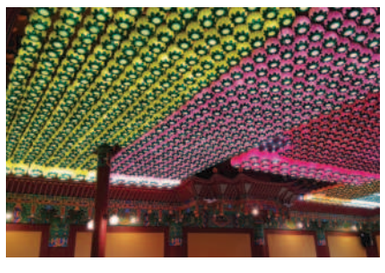


보련기획

전국 방방곡곡 자비의 등불을 밝힙니다!
연등자동승강장치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연등 자동승강장치란? 법당의 구조와 규모등의 특성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를 바탕으로 장엄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화된 프레임(틀)을 설치하여 자동으로 프레임을 상하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시키므로 연등, 축원표등의 설치, 교체 등의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동승강장치 설치 효과

- 높은 사다리에서의 낙상으로 인한 부상위험과 공포에서 해방
- 법당의 규모와 모양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로 뛰어난 장엄효과
- 프레임(틀)을 보다높게 하고,연등을 정방형으로 정렬하여 넓은 시야확보
- 최소의 인력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등,축원표 설치 교체 가능
- 철저한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로 반영구적 사용


원불

위패

인등

2017 카렌다 주문 접수
카렌다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2 www.boryeon.com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189번길 27 A동 (모현면 일산리 549-1)
찬덕연등의 전통과 기술력을 계승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유식 · 여래장연기, 기신론의 두 가지 관점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기신론은 6세기 중반부터 활발하게 연구되어 온 논서다. 최초의 기신론주소를 낸 담연(曇延, 516~588)으로부터 혜원(慧遠, 523~592), 우리나라의 원효(元曉, 617~686) 그리고 당나라 때의 법장(法藏, 643~712) 등은 대표적인 기신론 연구가였다. 이들의 연구 덕분으로 기신론 사상이 동북아시아 전역에 보급되어 불교사상의 주류와 개성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기신론은 대승불교를 이해하는 기본 텍스트가 되었으며, 특히 유식사상을 발전시키는 모태가 되어 기신론이 유식사상적 성격을 중시하는 관점을 지니는 논으로 이해되었다. 이는 기신론에 담겨져 있는 유식사상을 중요시 하는 입장에서 기신론의 내용을 파악한 기신론의 하나의 관점이 되었던 것이다. 담연과 혜원 및 원효의 주소에서 이러한 관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담연은 〈섭대승론〉에 설해져 있는 초기 유식사상에 입각하여 기신론을 이해했고, 혜원 역시 〈섭대승론〉 및 진제삼장의 유식설에 입각한 초기 유식사상의 관점에서 기신론에 접근하였다. 혜원은 특히 아려야식의 망(妄)이 떨어진 진식(眞識)의 측면을 부각시켜 기신론이 〈능가경〉과 같은 사상을 천명하고 있다 하였다. 그는 기신론이 〈능가경〉을 의지한 논서라 하여 〈능가경〉의 유식사상이 그대로 기신론에 의해 재조명된 것이라 주장하였다.

원효도 기신론을 유식사상의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그의 주소에는 〈능가경〉 3역을 골고루 인용한다. 〈능가경〉은 제일 먼저 유송(劉宋) 때 구나발타라(求那跋陀羅, 394~468)가 443년에 번역한 4권경이 있고, 다음 원위(元魏)의 보리유지(菩提流支, ?~572)가 513년에 번역한 10권경이 있다. 또 당나라 때 실차난타(實叉難陀, 652~710)가 700년에 번역한 7권경이 있다.

〈능가경〉은 후기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경전으로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 등 초기 대승경전과 〈열반경〉, 〈승만경〉, 〈해심밀경〉 등 중기 대승경전 등 여러 경전들의 사상을 종합하고 회통하여 여래장사상으로 귀결시킨 경으로 알려져 있는 경이다. 호법의 유식설에 영향을 끼쳤고, 기신론의 여래장사상도 〈능가경〉을 의지한 것으로 본다. 또한 중국 선종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능가경〉의 몇 가지의 특징을 요약한다면 첫째 여래장사상과 유식사상을 결합시켜 기

원효 등 유식으로 기신론 해석

법장은 화엄 기반 新이론 펼쳐

신론의 일심(一心) 이문(二門) 체계를 세우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요, 둘째는 명(名), 상(相), 분별(分別), 정지(正智), 진여(眞如) 등 오법설과 팔식설(八識說) 및 삼성설(三性說) 등을 설하면서 〈해심밀경〉 등 유식사상을 계승하여 후기 유식학설을 발전시킨 점, 셋째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하여 여러 가지 교법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결국 일불승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법화경과 같은 취지의 회삼귀일(會三歸一)의 사상이 나타나 있는 점이다. 그리고 사종선을 설하여 여래선의 경지에라야 무분별지를 얻는다고 강조해 놓은 점이다.

기신론을 연구한 제가들이 유식사상에 맞추어 기신론의 사상적 관점을 유식 쪽으로 보아온 경향이 많았음에도 화엄대가였던 법장은 관점을 달리했다. 그는 기신론을 여래장연기종(如來藏緣起宗)이라 교판하면서 중관과 유식에 대한 여래장연기종의 독립성을 내세우고 동시에 여래장연기종의 우월성을 주장하였다. 여래장이 지니는 불생멸의 측면을 더욱 중시하여 기신론이 여래장에 의한 생멸연기를 설하고 있다고 했다. 불생멸은 곧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이며 진심(眞心)이다. 이것이 연기의 시발점이 되므로 법상(法相)을 주목하는 유식사상보다 여래장연기사상이 훨씬 탁월한 것이라 하였으며, 이점에서 보면 기신론은 유식사상과는 다른 독립체계를 갖추어 있는 것이라 했다. 담연, 혜원, 원효에게서 일관되게 부각된 기신론의 유식사상은 〈섭대승론〉이나 진제의 구식설에 의거하여 기신론과 유식설을 동일계열의 유사한 것으로 보았지만 법장이 주장한 여래장연기종은 독자적인 설로 유식적 관점에서 벗어난 새로운 기신론관이 되었던 것이다.

나에게 인색한 마음이 남아있는가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㊽보시를 싫증내지 않으려면

菩薩發誓願時一切皆捨。雖有是語一切眾生實未得利。修行布施爾時一切眾生得利益受用。菩薩捨身不足為難。知身無常苦空不淨。為眾生故而不捨離。是則為難。菩薩悲心為眾生捨身不足為難。樂捨無有厭足。此則為難。假設使一凡夫令返大地力不能就甚生憂惱。菩薩見苦眾生未度脫時。心懷悲惱復過於是。以悲心故。菩薩觀身輕於草土。為眾生捨身何足為難。若人為己身故一念中受不殺戒。是人命終必生天上。菩薩為眾生捨於身命。所有功德生死之中無有受處。唯至菩提乃能容受。菩薩若聞有人來乞身時。ᄒᆞ時生念。我已久捨此身而不自取。方從我索必當謂我有慳惜心而試我耳。(보살발서원시일체개사。수유시어일체중생실미득리。수행보시이시일체중생득이익수용。보살사신부족위난。지신무상고공부정。위중생고이불사리。시즉위난。보살비심위중생사신부족위난。락사무유염족。차즉위난。가설사일범부령반대지력불능취심생우뇌。보살견고중생미도탈시。심회비뇌부과어시。이비심고。보살관신경어초토。위중생사신하족위난。약인위기신고일념중수불살계。시인명종필생천상。보살위중생사어신명。소유공덕생사지중무유수처。유지보리내능용수。보살약문유인래걸신시。즉시생념。아이구사차신이불자취。방종아색필당위아유간석심이시아이。)

번역

보살이 일체를 희사하기를 서원할 때, 비록 일체 중생이 있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이익 얻음은 없습니다. 수행하고 보시할 때, 일체 중생이 이익을 받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살은 몸을 희사하되 만족하지 않는 것이 어려우며, 몸은 무상(無常)하며, 괴로움이요, 공한 것이요, 부정한 것임을 알지만 중생을 위해 버리고 떠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을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살이 자비심으로 중생을 위해 몸을 희사하되 만족하지 않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거니와 즐거이 버리되 싫어하거나 만족하지 않는 이것이 어렵습니다. 가령 한명의 범부에게 넓은 땅을 갈도록 시켜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근심과 괴로움을 일으키거니와 보살이 고통 받는 중생을 보고 제도하지 못했을 때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 게 그 보다 큰 것은 자비심 때문입니다. 보살이 자신을 관찰함에 풀이나 흙보다 가벼이 여긴다면 중생을 위해 몸을 희사함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만약 사람이 자신만을 위해 한 생각 가운데 불살생계(不殺生戒)를 받아도 사람의 목숨이 끝날 때 반드시 천상에 나거니와 보살이 중생을 위해 몸과 목숨을 희사하여 소유한 공덕은 생사를 벗어나게 합니다. 오직 지극한 보리심이라야 능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보살이 만약 어떤 사람이 구걸하러 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즉시 생각을 일으키기를, '내가 이미 오래전에 이 몸을 버리고 스스로 취하지 않으리라 하였거니와 바야흐로 나를 좇아와 찾는 것이 분명하구나. 내가 인색한 마음이 있는지 나를 시험하는구나' 합니다.

해설

가진 이가 넉넉히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게 무엇이 어렵겠는가. 다만, 보시하되 보시했다는 만족감이나 또 보시를 해야 하는가 하는 싫증내지 않는 마음가짐이 어렵지 않겠는가.

보살은 자신의 몸을 넉넉한 재산쯤으로 생각해야 할지도 모른다.

제바보살이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지극한 보리심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보살심을 실천함에 이런 정도의 마음가짐이 있었던가?" 돌아보고 반성하게 만든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사랑하며 용서하며

초청강의가 있을 경우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가벼운 질문부터 던지는 경우가 있게 된다.

"사람의 신체 중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일까요?" 나의 물음에 대개는 자신 있게 '머리' 라고 답변한다. 그러나 사람은 걸어가고 앉아있고 서 있을 때만이 사람이 아니다. 누워 있을 때, 잠들어 있을 때도 사람이다.

하루는 낮과 밤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이가 70세일 경우 35년은 밤이요 35년은 낮인 셈이다. 그렇다면 휴식을 취하거나 누워 있거나 잠든 시간도 35년일 수 있을 터이다. 누워 있을 때는 가슴 부위가, 또는 배불뚝이 경우 배꼽부위가 신체중 제일 높은 곳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옆으로 누울 경우 어깨부위가 정답일 수도 있을 테니까. 들숨과 날숨이 이어지는 사람의 삶에는 정해진 답이 있을 수 없다. 사랑도, 정의도, 가치기준도 눈높이에 따라 환경의 변화만큼이나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두 개의 눈썹이 짝눈과 짝 눈썹을 이루고 있을 것이다. 왼쪽 귀와 오른쪽 귀가 모양과 생김이 다르고 크기와 두께와 색깔이 다를 터이다. 내 얼굴에 박혀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은 놀라울 만큼 다른 것이다.

같은 머리카락을 찾을 수 없고 같은 두 팔과 두 다리를 지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공산품에 이르기까지 비슷하나 같은 것은 없는 것이다. 하물며 내가 그 누구의 것이 영원히 될 수 없는데도 그 누구는 영원히 온전히 내 것이길 바라는 소유욕과 집착의 번뇌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소유욕을 줄여나가고 집착의 굴레에서 자유로운 것이 진리에 이르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릴 수 있고 더러는 헐떡이며 타는 목마름에 방황할 수 있다. 배(船)를 타지 않고도 멀미를 느낄 수 있고 두 눈 멀건이 뜨고도 가위에 눌릴 수 있다. 맹물을 마시고도 취할 수 있고 가족과 반려자가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넘쳐도 부족하고 있어도 없는 듯이 가슴이 허

다름의 문화 · 생각을 존중하라

이해 · 배려는 행복을 위한 길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긍정적인 착각과 부정적인 착각으로 행복과 자유를 꿈꾸며 삶의 의미에 느낌표를 더해가고 있을 터이다.

다른 사람은 옳고 그렇다며 동그라미 쪽으로 몰리지만 나의 눈높이로는 틀리고 아니다며 'X'를 고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념과 사상(思想), 철학의 기본 틀마저 배운 만큼 아는 만큼 색깔과 무게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종교가 다르고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선입견에 색안경을 쓰고 거리감을 두거나 평가 절하하는 경우도 우리네 생활 주변에는 널려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선(線)긋기를 즐기고 편을 가르고 짝을 이루어 명분을 앞세워 실리(實利)를 챙기는 이기(利己)적 동물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 한 울타리, 한 가족 사이에도 이방인(異邦人)이 끼어 있기 마련이요, 부부 사이에도 더러는 아웃사이더가 되어 물과 기름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번엔 가볍게 사람의 얼굴 쪽으로 방향을 돌려보자. 두 개의 콧구멍의 간격이 지극히 가까운데도 생김과 모양은 짝 콧구멍을 이루어 배 다른 형제처럼 거리감을 두고 있다. 두 개의 눈이, 전할 수 있다. 바람만 불어도 역마살 낀 운명처럼 어디론지 떠나고 싶고 틀을 벗고 굴레에서 자유로운 바람이고 싶다. 입장 바꿔 생각하면 내가 이럴 수 있듯이 타인(他人)도 그럴 수 있는 것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듯 그가 해도 로맨스인 것이다.

이 세상에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듯 내가 타인(他人)일 수 없듯 다른 사람도 나일 수 없는 것이다. 다름의 문화와 다름의 생각과 생활을 존중해 입장 바꿔 상대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행복과 자유에 이르는 바른 길이다. 참으로 뼈저리게 참으로 간절하게 다름을 받아들여 '사랑하며 용서하며'가 하나를 이룬다면 마음의 평화에 행복이 깃들 터이다.

마음이 열려야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부정적인 착각은 어둠을 몰고 오지만 긍정적인 착각은 밝음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생각의 전환이 생각의 윤회를 줄여주기 때문이다.

부처님 말씀을 옮겨 놓는다. "두드리지 말라 문은 항시 열려 있느니라. 두드리려는 마음이 곧 또 하나의 문을 만든다. 구하지 말라 구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할 것이요, 구하면 구할수록 마음은 번민에 찬다."

창사 36주년 기념 -

전 품목 25% 할인 판매 단행

※ 기간 : 2016년 12월 31일까지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심우선원 選佛場

「선불장이란」 부처를 뽑는 장소란 뜻으로 禪門의 宗主인 마조선사로부터 비롯된 말로 본 도량은 20여 년간 "돈오견성" 체험을 바탕으로 수행자를 독려, 견성해탈의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벼락치듯 돈오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동정일여, 몽중일여, 숙면일여, 오매일여"를 통해 의정이 독로될 때 비로소 확철대오의 기연이 도래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만법의 근원은 텅빈(空)의 자리에 있고 현대인의 모든 고통과 혼란은 공도리의 무지에서 오는 것으로... 마음이 밝아질 때 비로소 지혜로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침이란 "여실지견"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것으로**(단지 중생의 눈으로 實相을 경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뿐) 그것은 어떤 신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계종의 존경받는 큰 스님으로 고우스님이나 암도스님 같은 분들은 법문중에 자신의 경계를 꼭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좀 의아했으나 시간이 흘러가며 그분들의 진정성에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전에 성철스님은 지해종사(해오자)는 간판을 내려라 하고 경책하였습니다. 깨침이란 자기가 자기를 바로 보는 것으로 올바로 깨치면 그 즉시 열반을 증득, 자기인가(證悟)를 체득하는 것이므로 최상승법을 다루는 일은 절대적 양심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편안하십니까? 여기 선지로 함께 동행하는 깨달음(돈오견성, 해탈열반)으로의 여행에 수행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031-255-0066 | 010-3045-0085

부설 태극기 안에 담긴 행복한 삶의 지혜

동양사상의 꽃인 天, 地, 人 삼재사상(명리학, 풍수학, 한의학) 醫聖 이제마의 사상의학과 사암도인의 오행침법 전수 동,서양 철학과 현대물리학을 근본도리에 회통 강의

무문관 傳法講主 釋 眞 性

부처님 마음 공부

무량 청정암 열린 마음선원에서
아래의 내용으로 부처님 마음공부를
함께하실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아 래

❶ 교육과정 및 일정

과 정	요일및시간	수업내용	
기초과정	매주 화요일 (요일 변경 가능)	염불선	1단계 : 불교이해 2단계 : 경전독송 이해
중급과정	매주 수요일	참 선	참선이해, 법거량
고급과정	매주 금요일	간화선	화두참구, 깨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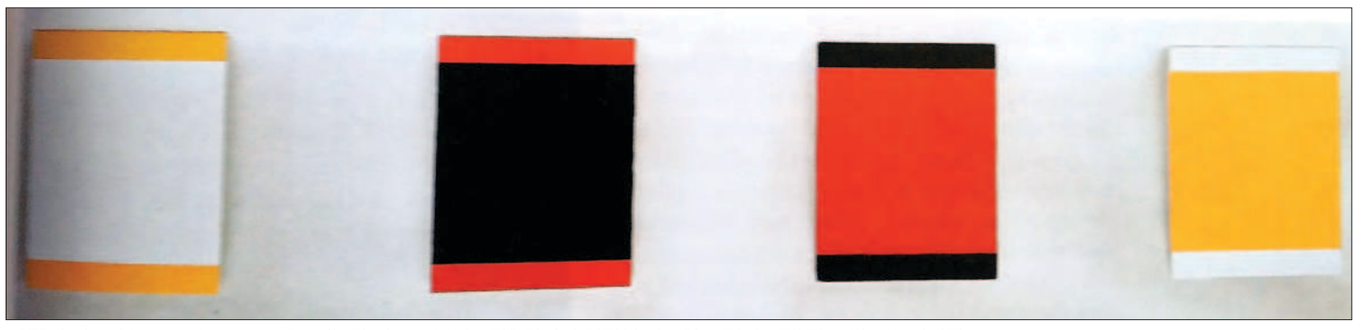
❷ 수업 신청 방법
- 기초과정 : 3개월 선착순 (20명 이내 한정)
- 법사와 1대 1 수업 운영
- 수 강 료 : 3개월 (30만원)

❸ 교육장소 : 무량 청정암
❹ 교 수 : 무량 청정암 최정훈 법사
❺ 문 의 : 010-2559-6886

무 량 청 정 암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대로176번길 23

“현실은 사실인가” 물음을 禪으로 답하다

禪과 현대미술
㉓ 블링키 팔라모 (Blinky Palermo)


1976년 작품 〈Himmelsrichtungen I〉은 ‘누가 천국을 보았는가? 아니면 어디에 천국이 존재하는가’ 라는 의문을 던진다.

현실은 사실일까? 진실일까? 현실을 대하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인식이 되며 동일한 현실 속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한 변화 속에서 진실한 인식을 하는 방법들을 찾아 나선 작가가 있다.

블링키 팔라모(Blinky Palermo, 1943~1977, 독일)는 미니멀적 추상미술의 선두주자에 들어가는 작가이다.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며 세상 속에 묻혀있던 그의 작품들이 1980년대 이후 많은 찬사를 받으며 다시 화단의 주목을 받게 된다.

요셉 보이스의 제자이며 몬드리안의 미학적 개념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그는 예술의 정신성에 대하여 많은 고뇌를 하게 된다. 현실은 모두가 진실일까 하는 그의 생각들은 선사상을 수용하며 인식의 확장을 가져오게 된다. 자신 앞에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들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현실이 전혀 다르게 인식된다는 것을 알아차린 그는 자신만의 방식들을 찾아 나서게 된다.

팔라모에게 현실은 리얼리티 그 자체였다. 자신이 살아 숨 쉬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가장 진실한 현실이며 그 현실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며 이를 작품 속에서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Komposition mit 8 rote Rechtecken, 95.7x110cm, 1964〉(8개의 사각형 빨강색의 구성)은 그의 초기 작품이며 작가의 생각을 잘 드러내고 있는 대표작 중의 하나이다. 각각 크기가 다른 8개의 사각형들이 한 화면에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다. 색은 동일하나 사각형의 크기와 모양은 다르다.

현실을 인식하는 자신의 관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브 클라인(Yves klein)과 동시대에 살았던 그는 유럽 추상미술에서 미니멀적 표현의 선두그룹에 있으며 새로운 예술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가 자신의 작품에서 드러내고자 한 개념은 이심전심(以心傳心)이다.

추상미술이 탄생하는 배경도 대상의 외형에 더 이상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이다. 기존의 예술은 대상을 변형 · 왜곡 · 해체시킴으로 해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면 추상미술에서는 대상을 관조하여 느껴지는 관점들을 단순한 색채와 기호, 도형으로 상징화하여 보여주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서로의 마음으로 소통한다는 것이다. 표현된 대상의 표면적 관점이 아닌 내면에 존재하는 본질적 관점들이 형식을 떠나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선사들이 선문답을 하나 현실을 떠나지 않는 것과 같다. 선문답은 지극히 리얼리티이다. 왜냐하면 유토피아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팔라모 역시 여기에 깊은 감동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실을 떠나지 않았으나 현실에서 보이는 대상이 아닌 본질을 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이다. 오히려 가장 리얼리티를 이야기 하고 있는 그의 작품이다.

혹자는 추상미술을 비판하며 현실적이지 않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현실은 무엇인가? 질문을 던져본다. 모두가 지금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모두가 동일한 인식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이라는 개념은 지극히 추상적이다”라고 필자는 말한다.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무유정법(無有定法)의 개념처럼 정해진 것이 없는데 마치 모든 것이 정해진 것처럼 인식하고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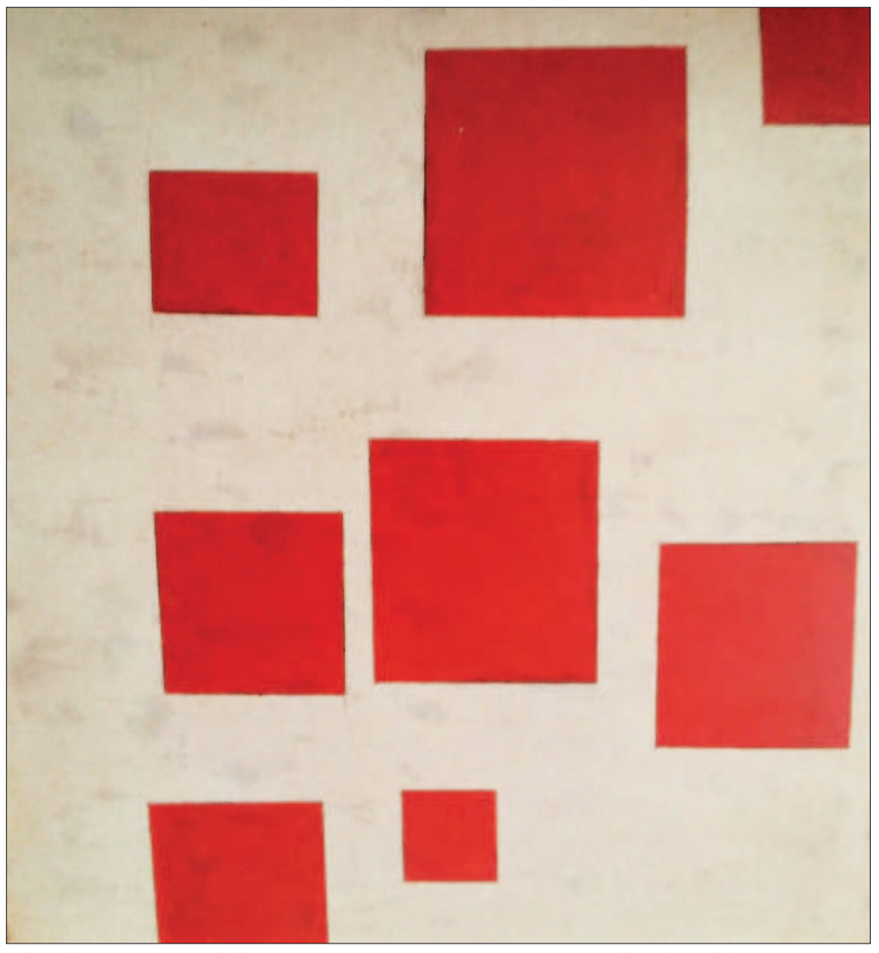
선사상 접하며 인식의 확장
현실의 표면 아닌 본질 추구
추상미술로써 현실을 표현해
‘卽心是佛’ 의 메시지 읽어야

현실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예술가의 정신이 작품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현실은 리얼리티 그대로 자신의 앞에 놓여 있다. 그것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이다. 자유를 추구하며 인식의 깊이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추상미술이다.

필자가 팔라모의 작품을 독일 쾰른에 있는 루드비히 박물관에서 처음 보았을 때 그 감동은 마치 오랜 도반을 만난 것처럼 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처음 보는 작품인데 너무나 친숙하고 마지 필자가 한 것처럼 동일시되는 느낌을 받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어떠한 설명이나 부차적인 이론적 접근이 아닌 본질적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장 현실적이지 않은가?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계산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것이 아닌 마음을 통하여 느껴지는 ‘지금’이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의 작품을 보면 이러한 시공간의 초월성이 느껴지는 것은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그의 다른 작품 〈Himmelsrichtungen I, 26.7x21cm(je), 1976〉(천국방향)을 살펴보자. 앞의 작품에서 현실을 보는 관점을 보여주었다면 이 작품은 현실 속에서 인식하는 또 다른 관점 즉, 생각의 깊은 성찰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누가 천국을 보았는가? 아니면 어디에 천국이 존재하는가’ 라는 의문을 던지는 것이다.


블링키 팔라모의 1964년 작품 〈Komposition mit 8 rote Rechtecken〉. 계산된 시간과 공간이 아닌 마음을 통하여 느껴지는 ‘지금’을 표현하고 있다.

당시 독일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2차 대전에서 패망하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찾게 되는 또 다른 철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데 바로 불교와 선사상이었다. 때문에 초기에 그들은 불교나 선사상을 이해하는 것도 자신들의 방식을 통해서였다. 예를 들면 기존에 자신들이 인지하고 지향하였던 신학, 철학적 관점에 불교의 개념들을 도입시킨 것이다. 때문에 그들이 인지한 불교나 선사상은 또 다른 관점의 신학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변화하여 불교와 선사상의 진정한 가치와 개념들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보았을 때 팔라모가 제시하는 천국은 기존의 천국의 개념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 누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비현실적인 관점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4개의 동일한 크기의 작품을 자세히 보면 색이 교차되어 표현되고 있다. 서로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여 모든 것이 다르게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외형적인 변화는 더욱 그러하다. 이는 그의 인식의 변화과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초반에는 동일한 화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통하여 현실을 인식하는 관점들을 보여주고 있다면 후반의 작품들은 더 나아가서 변화하는 가운데 변화하지 않는 현실의 가치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허공은 비어 있으나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각 개인의 경험이나 지식을 통하여 분석하고 개념화한다. 허공은 그 어떠한 분석이나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보이는 하늘은 하늘이다. 하늘이 아닌 것도 아니고 하늘이 높은 것도 아니고 푸른 것도 아니다. 그냥 하늘은 하늘일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들은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허공을 또 다른 허공으로 만들어 자신의 생각으로 규격화한다. 그러한 틀을 세상에 제시하며 자신이 보여주는 틀이 허공이라고 교육하고 강요하고 주입시킨다. 때문에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관념적인 경우가 많다. 즉,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현실이라는 틀 속으로 모든 것을 고정시키는 것이다.

팔라모는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느껴진다. 그가 보여주는 작품들은 지극히 현실적이다. 현실을 인지하는 방법에서 과거의 방식을 따르고 있지 않을 뿐 그가 보여주고자 하는 개념은 지극히 지금 자신의 앞에 놓여 있는 리얼리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선사들이 선문답을 할 때 역시 지금 현재의 현실을 떠나지 않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과거의 지식이나, 이성적 방법으로 그 답을 구하는 것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답은 언제나 현실에 존재한다. 현실을 떠난 깨달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팔라모의 작품을 보면 그 역시 필자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짧은 생을 살다간 팔라모는 자신의 작품을 통하여 현존하고 있다. 작품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와 소통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가 추구하던 예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현실을 지극히 리얼리티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는 하지만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방식으로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현실의 존재성을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그가 선택한 것은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현실을 인식하는 것은 선사들의 방식을 수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마조선사가 말씀하신 ‘즉심시불(卽心是佛)’이다. 모든 것은 현재의 마음을 떠나서 구하지 않는 것처럼 팔라모의 작품들도 현재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안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과 같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면에 나타나는 다양한 크기의 사각형들은 같지도 않으면서 다르지도 않다. 또한 현실을 떠나지도 않고 지금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추상미술이 추구한 것은 바로 현실이었다는 것을 팔라모의 작품을 통하여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다.

윤양호(원광대 선조형예술학과 교수)

전국 어디든 지극하고 여법하게 깊은 신심으로 다하겠습니다

바라밀 예술단

바라밀예술단은 큰스님들의 행사를 더욱 장엄하고 여법하게 봉행하는데 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바라밀예술단 단장 지우 스님

회심곡, 영산대재, 산사음악회, 예수재, 천도재, 위령재 및 봉안위패, 점안식 등 각종 불교행사
바라작법무, 나비작법무, 천상무춤, 북춤, 살풀이춤, 극락무춤, 지전무 등 모든 의식





행사문의 010-3597-1515 유튜브에서 ‘지우스님’을 검색하세요.

농협 010-3597-1515-09 (예금주 : 반야정사)

불상, 법당시공 및 철거(퇴불), 개금, 단청, 풍수 인테리어 등

좋은 인연으로 성실하게 마음에 꼭 드시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미텍 대표 윤승민 두손모음



도금 소불 6치 7치 분당 15,000 ~ 21,000원

■ 전시장 :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242-167번지
■ 공 장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41, 3층 308호 (신길동, 정우벤쳐타운 2)
■ 연락처 : 010-8523-7718

‘세계유산’ 백제 문화는 이렇게 아름다웠네

국립중앙박물관, ‘세계유산 백제’ 특별전… 내년 1월 30일까지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았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았다.(儉而不陋 華而不侈)”

백제의 시조 온조왕 당시 지은 왕궁에 대해 〈삼국사기〉는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이는 백제 문화와 미의식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왕흥사지 출토 사리장엄구.

고구려와 신라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잊힌 왕국’ 백제는 1970~80년대 이후 발굴이 이뤄지면서 그 면모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익산 왕궁리, 미륵사지 등 8곳의 백제 유적 당 평균 발굴기간은 18년이며, 10개의 조사기관이 참여했다. 또한 57권의 발굴조사보고서가 나왔다.

이후 백제 문화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2015년 7월 8일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기 때문이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영훈)이 (재)백제세계유산센터와 함께 개최하는 특별전 ‘세계유산 백제’는 웅진·사비기 백제 문화를 총망라하는 자리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전시회에서 이시기 대표 문화재 350건, 1720점을 도성·사찰·능묘로 구분해 소개한다. 백제를 단독 주제로 한 대규모 특별전은 1999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특별전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백제 사찰에 대한 전시다. 백제는 중국의 역사서에 ‘사찰과 불탑이 많은 나라’라고 기록될 만큼 불교가 성행했다. 왕실은 주도적으로 사찰을 세웠고 사리를 공양하는 등 불교를 적극 후원했다.

백제지구 유산 등재 1주년 기념

미륵사지·왕흥사지 사리장엄 등

국보·보물급 유물 1700점 전시

“백제 문화 가치 알리는데 일조”

특히, 발굴이 이뤄진 왕흥사지와 미륵사지의 사리장엄구에는 언제, 누가, 무엇을 위해 발원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를 통해 백제에서 국교였던 불교의 위상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왕흥사지, 미륵사지, 왕궁리 사리장엄을 처음으로 함께 모아 전시한다. 또한, 사지 발굴을 통해 세상에 나온 소조불상, 기와 등의 문화재도 충실히 만날 수 있다.

도성 전시 부분은 백제 왕궁의 면모와 생활 양식들을 만날 수 있다. 백제는 산과 평야가 어우러진 지형의 특징을 잘 살려 평지성과 산성을 결합하고 여기에 중국의 도성제(都城制) 요소를 추가한 독특한 도성 구조를 만들었다. 도성 안팎의 성곽, 관청, 창고, 공방, 정원, 화장실, 부엌 등에서 나온 자료들을 통해 당시의 건물의 구조, 행정 편제와 생활의 모습을 그려 볼 수 있다.

능묘 전시 부분에서는 무령왕릉을 비롯해 송산리 고분군, 능산리 고분군, 쌍릉 출토품을 소개한다. 1971년 도굴되지 않은 채 발견돼 크게 주목받은 무령왕릉은 6세기 전반 중국 남조와 백제, 일본을 연결하는 문화 교류망을 여실히 보여주는 동아시아의 대표 유적이다.

역사 웹툰 ‘조선왕조실톡’으로 유명한 무적핑크 작가가 그린 ‘백제본기’를 전시장에 설치된 태블릿 PC를 통해 만나볼 수 있는 점도 소소한 즐거움이다.



이영훈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이번 세계유산 백제 특별전시가 개방적이며 창의적인 백제 역사유적의 문화적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천년 뒤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문화를 남겨 줄 것인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특별전과 연계한 강연 등 부대 행사도 눈길을 끈다. 올해 12월과 2017년 1월 7일 및 21일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한다.

한편 이번 특별전은 11월 29일 개막했으며, 오는 2017년 1월 30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진행 된 다 . (02)2077-9000

신성민 기자



익산 미륵사지 출토 사리장엄구.

무채색 線으로 완성한 채움과 비움

스페이스 선+, 강은혜 작가 전시회

기하학적 선을 전면으로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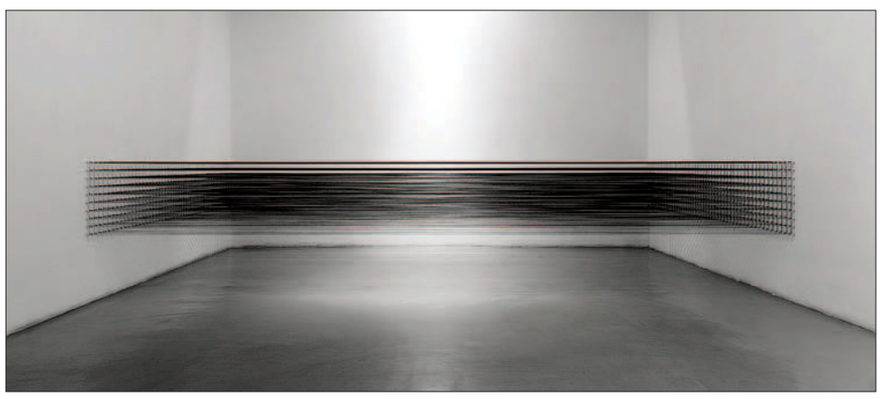
공간 분해 등 독자적인 해석해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선을 잇는 것은 공간을 만드는 행위이다. 공간에는 많은 형태들이 담겨 있다. 이 같은 공간을 선을 통해 재해석한 전시회가 열린다.

서울 삼청동 스페이스 선+는 12월 6일부터 19일까지 강은혜 작가의 ‘채움과 비움(Full or Empty)’ 전을 개최한다.

한국과 뉴욕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강 작가는 이번 전시회에서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인 선의 이미지를 이용해 건축적 공간의 독자적 재해석을 시도한다. 그는 무채색의 선으로 공간을 분해하고 공간 안에 음의 부피와 밀도를 표현하며, 나눔과 비율의 개념을 가지고 추상적인 형태와 윤곽을 공간 안에 적용한다.

강 작가의 모든 작업은 기본적으로 기하학적인 조형언어인 ‘선’과 연결되어 있다. 공간 안에 숨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상상하고, 그 공간으로부터 받은 영감과 이미지를 단순화시켜 수직·수평선으로 이루어진 이미지를 구현한다.



강은혜 작가의 작품 ‘Full or Empty No.01’

강 작가는 “점에서 점을 향해 가는 선들은 시간·공간적 이동을 상징하며, 어떤 지점에서는 방향을 틀어 과거나 미래를 향해 가기도 한다”면서 “각각의 점들은 개인을 상징하며, 그 사이 연결된 선들은 관계와 소통을 상징한다. 느슨하거나 팽팽한 긴장감이 존재하며, 때로는 그 긴장감을 주체하지 못해 끊어지기도 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관계성을 대변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 작가는 설치작업 동안 실의 텐션을 유지하며 공간을 오갔던 순간을 수행의 시간이라고 했다. 그는 “긴장감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끊임없이 반복되는 행위로부터 나는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의 평온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그러한 수행의 감정을 평면으로 가져와, 반복적으로 선을 긋는 행위로 ‘면’을 이루어가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명상(Meditation)’ 드로잉 연작이다. 하나하나의 선 긋기로 채워져 나가는 면은 ‘채움’이자 동시에 ‘비움’”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에 대해 스페이스 선+는 “강 작가는 기하학적 질서를 강조했던 몬드리안의 기하학적 추상처럼, 작업과정에서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고 비율을 적용하여 패턴이나 선들의 조합과 배열로 이미지를 표현했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02) 732-0732

신성민 기자

金魚 꿈꾸는 청년작가 한자리에

금어회, 15~21일 불일미술관서 ‘미·불’展

작가 12인, 작품 40여 점 선봬

전통·창작 불교회화 작품 ‘눈길’

현대의 금어(金魚)를 꿈꾸는 청년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한국전통미술청년작가협회(회장 호종현, 약칭 금어회)는 12월 15~21일까지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미·불(未/美·佛)’ 전시회를 개최한다.

금어회는 불교 미술을 사랑하는 청년작가들의 모임으로 정·준회원 8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정회원 12명이 4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호종현 금어회장은 “전통문화를 그대로 재현하는 ‘장인’과 창조력이 중요시되는 ‘작가’라는 정체성을 고민하는 청년작가들의 작품을 이번 전시회를 통해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시회 주제인 ‘미·불(未/美·佛)’은 청년 작가들의 고민이 담겨 있다”며 “아름다움(美)은 불모(佛母)로서 완성이고, 미치지 못했다(未)는 것은 불모로 성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성장하는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전시회에서는 전통 불교회화와 현대적 창작 작품이 다양하게 전시된다. 사진을 통해 수행자들의 모습을 조명하는 작품도 있다.



호종현 작가의 작품 ‘사유’

불일미술관 학예연구실장 구담 스님은 “금어회는 젊은 불모들의 단체로 불교 안에서 각 전시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 안에서 자신들만의 표현기법으로 자신들의 부처를 그려낸다”며 “올해로 제2회 국내전을 갖지만 그들의 활약상을 들여다보면 앞으로의 불교미술의 밝은 앞날을 전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금어회는 안정적 협회 운영과 사업 확장을 위해 사단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불교미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대만, 체코, 프랑스 등에서 해외 초청 전시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02)733-5322

신성민 기자

GmSoft GM SOFT since 2015 천수천안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매우 만족 - 99%”



◆전국 어디서에나 실시간으로 사용가능
◆저렴한 비용과 사용의 편의성
◆사찰관리업무 간편화
◆연등, 인등, 축원문 등의 간편 출력 가능
◆문자서비스, 우편라벨 등의 부가서비스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2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사찰신도수	1~100명	101~200명	201~300명	301~400명	401~500명	501~600명	600명초과
추가사용료	0원	2,000원	4,000원	6,000원	8,000원	10,000원	1명당 11원
합 계	19,800원	21,800원	23,800원	25,800원	27,800원	29,800원	〃
할인 혜택	12개월 결제시 1개월 사용료 할인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치유도 전문가를 만나야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행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 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 마다 가위 눌리는 경우
- 숙면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 심한 경우
-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가정불화, 사고 우환이 계속되는 경우
- 중, 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 행동, 폭력적 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을 해도 효과 못 보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 천도가능 함.
- 신기운, 무병에 시달리는 경우
- 동물(소,돼지,개,닭,오리,어류 등). 식물(큰나무 베고 탈난 경우) 영가도 천도 가능함.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또 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원격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가능)
- 몸안에 들어온 영가제령, 최고실력 보유 (전국 최고)

상담문의처 | 제주 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 전국 어디든 상담환영!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이젠 몸에 좋은 천연방향제가 대세!!

천연 한방방향제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 향이 좋은 생약재를 엄선한 한약 방향제입니다.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향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방향제와는 달리 자연에서 얻은 천연향으로 심신을 안정시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주는 이의 마음처럼 향기로운 동의보향은 오래토록 기억되는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용 대량 구매 시 추가로 덤 증정

- 용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장롱 등
- 규격 : 12*19cm(복주머니),100g

주문전화 : 010-5607-3313 (062)385-9954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제조원 : 수풀림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6.11.30~2016.12.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바람불면 다시오리라-소설 법정	백금남	쌤앤파커스
2	유식으로읽는반야심경	요코야마코이츠/하암	민족사
3	유마경강의(상)	남회근/송찬문	마하연
4	사찰불화명작강의	강소연	불광출판사
5	나를바꾸는100일	마가스님	휴(한겨레출판)
6	틱낫한기도의힘	틱낫한	불광출판사
7	금강경강의(강미농의)	강미농/양관	담앤북스
8	토끼뿔거북털	월주	(주)조계종출판사
9	불교에관한사소하지만결정적인물음49	장웅연/니나킴	담앤북스
10	원효대승기신론소(만화)-조합 주문	원효/서기님/박수로	주니어김영사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마음과 삶 풀어내는 열쇠 당신 안의 '질문'에 있다

만약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백성호 지음 | 권혁재 사진 | 앵글북스 펴냄 | 1만 4천원



하루에도 수백번 바뀌는 마음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는 아마도 깨달음의 경지에 오른 성인일 것이다. 그래서 저자의 책 제목 부터가 인상적이고 매력적이다. 제목은 〈만약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이다.

일간지 종교담당 기자인 저자는 삶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책 속에서 말한다.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더 이상 외부서 찾지 말라고. 당신을 가두는 벽에서 벗어나려면 내면으로 들어가라고 말이다. 그는 마음의 프레임을 넓혀야만 우리를 괴롭히던 삶의 좌충우돌이 줄어든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저자가 10년 넘게 수많은 종교인과 인문학자 들을 만나면서 얻어낸 삶의 공식을 한 땀 한 땀 모아 정리했다. 책은 단순히 삶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자기계발서나 피상적인 사상을 떠드는 인문서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법과 이해를 돕는다. 나아가 '깨달음'과 '이치'라는 피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보다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으로 쉽게 정리함으로써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수수께끼를 풀어내고 좀 더 수월하고 행복한 인생을 운용할 수 있는 법을 보여준다.

〈만약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은 기존에 출간된 〈현문우답〉 개정판으로, 첫 출간 후 깊은 사색을 통해 더욱 크게 성장한 저자가 기존 내용을 보다 깊이 있게, 그러나 보다 알기 쉽고 단순하게 풀어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서 널리 알려진 사진작가인 권혁재 기자도 이 작업에 함께해 '성장된 글'에 맞춰 자신의 최고 작품들을 선별 수록했다.

이 책은 15년 넘게 종교기자로 뛰어온 저자가 여러 성인과 종교 지도자, 영적 수행자 들의 발자취 속에서 배운 '마음을 마음대로 쓰는 법'에 대해 이야기 한다. 그것은 크게 '이해하기'와 '써먹기'로 나뉘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적어도 하루 한 번, 나를 비우고, 묵상하고, 깨치고, 거듭나면서 인생의 난관에 부딪쳤을 때 맞설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되는 포인트들을 정리해 '풋대를 놓치지 않는 법' '편견을 넘어 나의 길을 가는 법' 등 희망의 끈을 다시 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는다.

저자는 책 속에서 "두려움의 뿌리는 어디일까요. 답을 찾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두려움은 수시로 올라오니까요. 두려움의 바닥을 봐야 합니다. 두려움은 어김없이 나라는 자아가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 뿜어져 나옵니다. 어떤 씨앗을 고를 건가의 문제는 그에게 어떤 열매를 고를 건가의 문제가 됩니다. 씨앗 속에서 미리 그 열매를 보고, 그 열매 속에서 또 씨앗을 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더 멀리 보고 더 깊이 보고 더 넓게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안목이고, 통찰력이죠."라고 말한다.

책은 '마음'이라는 근원에 관련된 내용답게 천주교, 불교, 기독교 등 수많은 종교의 벽을 넘나들며 우리의 일상을 소재로 하여 실생활서 활용할 수 있는 마음 훈련법을 제시한다. 또한 저자는 우리가 실제로 종교라는 터널을 건너는 이유가 바로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수많은 장애물서 자유로워지기 위함이라고 말하며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때'야말로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채우기 위해 비우는 것. 새로움을 받아들이기 위해 낡은 생각과 자신을 버리는 것. 이는 여타 종교들이 말하는 '행복을 찾기 위한' 수행법들의 기본 원리이다. 그리고 그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 안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질문에 집중하고, 자연히 올라오는 그 답을 반복해서 바라보는 것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이 훈련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원활한 삶을 살기 위한 최고의 습관이 된다는 것이다. 내면서 일어나는 질문에 대한 이러한 구체적인 문답법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한다. 저자는 내 주변서 일어나는 현상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내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내 안에 깊이 물어볼 것을 권한다. 이러한 묵상은 어떠한 하나의 답에 이르게 하는데, 저자는 이때 멈추지 말고 다시 한 번 그것이 무엇이며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물어보라고 이야기한다. 바로 그때 우리가 진정한 삶의 본질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책 제목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한다. "두려운 마음을 창조한 뒤에는 두려운 마음을 파괴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다시 다른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마음을 쓸 수가 있는 거죠."라고.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원효대사가 위대한 사상가로 꼽히는 이유는?

분황 원효의 생애와 사상

고영섭 지음 | 운주사 펴냄 | 2만 5천원



한국불교를 뛰어넘어 세계적인 사상가로도 손색없는 원효 대사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또한 그가 펼쳐낸 거대한 사상의 핵심은 무엇이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시사할까? 원효 스님 탄신 1,400년을 맞아 그동안 원효 연구에 천착한 저자가 그의 생애와 사상을 총체적으로 조명해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제목은 〈분황 원효의 생애와 사상〉이다.

원효 스님은 꼭 불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 한번쯤 들어 봤을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승려중 한 분이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원효 대사는 다소 피상적이며, 그것도 〈삼국유사〉 등의 사서에 보이는 일화 위주의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사실 그가 왜 당시 세계제국인 당나라에서까지 보살로서 높이 평가받았는지, 또한 오늘날까지도 세계적인 사상가이자 성인으로 주목받는지에 대한 이유는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과연 원효 대사가 이처럼 위대한 사상가로 꼽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은 이런 의문에 답하고자 평생 원효를 연구한 저자가 자신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원효 생애와 사상을 총체적으로 탐색한 본격적인 원효 연구서이다.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 1장 〈생애와 저술〉서는 원효의 '생애와 역정'에 대해 서술하고 그가 지은 '저술의 서지학적 검토'를 했다. 그의 저술은 약 103부 208(214)여 권에 이르지만 현존하는 것은 겨우 20(22)부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에 원효의 저술 필사본과 산일문들이 더 확인되고 있어 그의 현존 저술분 확장과 정본화 작업이 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 2장 〈화회논법의 탐구 지형〉에서는 원효의 대표작 중 하나인 〈십문화쟁론〉 연구가 종래에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를 살피고, '원효 불학의 고유성'을 한국불교의 전통 확립과 관련해 기술했으며, 나아가 그의 학문태도이자 연구법인 화쟁과 회통 논법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규명했다. 제 3장 〈일심과 본각의 성격과 특징〉서는 원효 대사의 마음철학의 가장 주 개념인 '일심의 신해성'(대승기신론소)과 '본각의 결정성'(금강삼매경론)의 개념과 그것이 지닌 의미와 가치에 대해 논구했으며, 아울러 〈대승기신론〉이 제시한 진망화합심(여래장)과 〈화엄경〉이 제시한 일심(진심)이 어떻게 같고 다르며 그것이 남북통일의 관점서 어떻게 원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연찬했다. 또한 제 4장 〈일심과 경 사상 및 염불관과 염불선〉서는 한국 불교와 유교의 대표적인 두 사상가의 핵심 개념인 '원효의 일심과 퇴계의 경 사상'의 상통성과 상이점을 규명했으며, 불교 정토 수행의 대표적 두 수행자의 핵심 개념인 '원효의 염불관과 청화의 염불선'의 같은 점과 다른 점에 대해 탐구했다. 그래서 이들 논구를 통해 분황 원효의 생애와 사상의 지형도를 그려내고 방법론을 규명하고자 했다.

부록에는 약 두 갑자(1901~2016년) 동안의 〈원효 관련 논저 목록〉을 붙여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다. 원효 대사가 지은 저작뿐만 아니라 국내외서 이뤄진 원효 대사 연구 저서와 주석, 일반논문, 석사논문, 박사논문 등을 총망라하고자 했다. 원효 대사는 '하나의 마음'을 '두 개의 교문(一心二門)'으로 해명하는 논서인 〈대승기신론〉를 기초로 '일심 철학'을 구축했다. 그것은 살아 있는 모든 존재가 추구한 본성인 '하나를 향한 그리움'이자 '고향을 가는 기다림'이며 '일심의 근원인 붓다로 돌아감'이라는 메시지이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분황 원효의 삶과 사상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리키고 있다.

김주일 기자

선행 원리 익혀 습관 만들면 소원 이뤄져

선행의 기적

현재호 지음 | 들메나무 펴냄 | 1만 3천원



선행이란 현재 상황을 이해해 감사히 받아들이는 마음과 행동이다. 선행을 하겠다는 그 마음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선한 행동을 보거나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인체의 면역력이 높은 수치로 향상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이를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한다. 선행의 의미를 일찍 깨달은 선지자들은 다양한 의미의 명언을 쏟아냈다.

"한 인간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줄 수 있느냐로 판단된다." 〈아인슈타인〉 "선행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투자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남을 진정으로 위하고 남이 잘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하는, 그런 선한 마음은 나를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오늘, 기분이 나쁘다면, 비록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를 도와줄 생각을 하라." 〈혜민스님〉

선행은 거창한 명제가 아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이 선행의 시작이다. 길가에 떨어진 휴지를 줍는 것, 누군가 내 차 앞에 끼어들어도 욕하지 않는 것, 먼저 보고 먼저 인사하는 것, 자신을 태워준 버스기사에게 감사의 목례를 하는 것.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버릇이 될 때 선행은 기적처럼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 돌아온다. 이 책은 피상적으로만 알던 선행의 원리와 개념을 동서고금을 넘나드는 광폭의 지혜와 논리로 짚어주고, 이것이 자연 순환의 원리임을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말미에 선행을 적을 수 있는 〈선행 노트〉를 수록해 자신이 실천한 선행 하나하나를 적어보도록 했다. 틈나는 대로 읽고 꾸준히 실천하면 지혜와 통찰력이 깊어지고 바라는 대로의 삶이 펼쳐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선행은 복이 쌓이는 적선(積善)의 저축통장이다.

"잘못한 일도 없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열심히 사는 사람이 불행에 빠지는 경우는 단 하나다. 남을 배려하는 선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열심히 살았다 해도 나와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의 행복에는 관심 없는 것, 그것이 잘못이다. 나 자신이 자연의 일부분임을 자각한다면 이타적인 삶이 자연의 이치에 부합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세상 모든 인과관계에서 뿌린 만큼 거둔다는 것이 자연의 원리인 것이다.

"선행에는 시간과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선행은 자연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자연의 일부인 타인을 위해 이로운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이 곧 선행인 것이다.

김주일 기자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붓다북
www.buddhabook.co.kr
불교, 종합, 쇼핑몰.



서울 성북구 보문로38길11 동일하이빌 B1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3번출구)
붓다북 02. 953. 7181.

佛事 위해 재산 처분한 베트남 스님

'청빈 실천' 도안 람 탄 스님
불교 귀의 여정 '화제'


도안 람 탄 스님이 사찰 구조물을 직접 수리하고 있다. 사진출처=TOI

베스트셀러 〈페라리를 판 수도승(The Monk Who Sold His Ferrari, 로빈 사르마 作)〉은 자기성찰을 통해 서서히 수도승으로 변모해가는 주인공 줄리안 맨틀 이야기다. 줄리안은 세속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페라리' 스포츠카를 판다. 현대 종교계서 이러한 청빈함을 몸소 실천하는 승려가 몇이나 될까.

이 가운데 베트남의 도안 람 탄(Doan Lam Tan) 스님이 소설 속 주인공처럼 스님이 되기 위해 모든 부귀를 떨쳐버려 귀감이 되고 있다.

영자 일간지 'The Times of India(이하 TOI)'는 11월 27일(현지시간) 인도 북부 우타르푸라데시 주(州) 사르나트에 위치한 시발리 베트남 사원 주지 도안 람 탄 스님 이야기를 소개했다. 베트남 출신 탄 스님이 인도로 건너와 스님이 되기까지 과정은 한 편의 소설 같다. 탄 스님은 베트남서 평범하게 살던 중한 스님을 만난다.

"그 스님이 제게 한 달에 1달러 보수를 받는 일을 맡아 달라 부탁했어요. 하지만 생활비로 충분치 않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우울함이 밀려왔죠. 그러다 어느 날 한 스님이 꿈에 나왔습니다."

탄 스님은 꿈에서 어느 스님 옆에 서 있었는데, 몸을 휘감는 부처님의 기운을

한 스님, '1달러짜리 일' 부탁
거절 후 불안 · 우울함 휩싸여
"인도로 가라" 꿈 속 스님 말에
사르나트 이주 후 사원 건립
무소유 실천… 주민들에 귀감

느꼈다고 한다. 그 스님은 탄 스님에게 "네가 태어난 목적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윤회의 고리에 걸렸다"며 "인도에 가라"고 말했다. 이에 3개 불교학 박사 학위를 수료했던 탄 스님은 베트남서 생활을 정리하고 인도 사르나트로 향했다. 재산 뿐 아니라 자동차, 소지품 등 모두 처분해 인도로 가는 자금을 마련했다.

도착하자마자 탄 스님은 과거 자신에게 '1달러짜리 일'을 부탁했던 스님을 만났다. 그 스님은 탄 스님에게 사원을 건립할 것을 권유했고, 탄 스님은 2년 동안 베트남을 왕복하며 자금을 마련했다. 7~8차례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을 실시했고, 마침내 2014년 12월 12일 '시발리 베트남 사원'이 완공됐다.

사원엔 인도에 불교를 널리 퍼트린 아쇼카왕의 조형물을 비롯해 부처님의 각성 과정을 담은 불상 등이 설치됐다. 특히 분홍색 사암으로 지은 대들보 덕분에 '장미 사원'이라 불리며 관광객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프라틱 히라 우타르푸라데시 관광안내원조합 대표는 "'장미 사원'은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다. 사르나트 시내서 조금 떨어져있기 때문에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미 방문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광경에 어안이 벙벙해지곤 한다"고 밝혔다.

관광객 아비섹 라탄 씨도 "이곳은 인도서 가장 아름다운 불상이 있는 곳 중 하나"라고 감탄했다.

특히 탄 스님은 사원 건립 후에도 여전히 청백한 삶을 이어가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다. 현재 탄 스님의 개인 물품은 핸드폰, 자전거, 노트북 1개가 전부다. 끼니도 주민들로부터 밀가루빵 5개를 얻어 해결한다.

마을 주민 모한 씨는 "탄 스님은 요리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매일 밀가루빵 5개를 얻는다. 대신 스님은 주민들에게 매달 20kg 밀가루를 제공한다"며 "일종의 물물교환식"이라고 웃어보였다.

前 보드리서치재단장 찬디마 스님은 "탄 스님은 존재 자체로 영감을 준다. 현지인들과 의사소통이 수월치 않아도, 주민들은 마음깊이 그를 존경한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법륜 새긴 석판 발견… 인도미술 美 '그대로'

11월 24일 군드라캄마 강둑서 기원후 1세기 경 제작 추정


지난 11월 24일 프라카삼 주 베남팔리 마을 근처 군드라캄마 강둑서 기원후 1세기 경 제작으로 추정되는 불교 유물이 발견돼 화제다. 사진출처=HANS INDIA

간다라, 마투라와 더불어 고대 인도 미술의 중심지인 안드라 왕조 시대 불교 유물이 발견됐다.

인도 일간지 'HANS INDIA'는 11월 27일(현지시간) "지난 11월 24일 프라카삼 주 베남팔리 마을 근처 군드라캄마 강둑서 기원후 1세기 경 제작으로 추정되는 불교 유물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HANS INDIA'에 따르면 유물은 가로 1.4m · 세로 0.5m 크기 석판 2장으로, 다르마 차크라(법륜)를 경배하는 내용이 조각됐다.

인도고고학조사단 소속 무니랏남 레디 박사와 불교학자 겸 '비자야와다 & 아마라바티 문화센터' 대표이사 시바나지 레디 박사는 "팔나두(인도 남서부) 지역 석회암을 재료로 쓰고, 아마라바티 미술사조가 반영된 조각 내용으로 보아 기원후 1세기 경 작품으로 추정한다"며 "프라카삼 지역이 사타바하나(Satavahanas) 왕조에 지배당할 당시 농익은 아마라바티 미술사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레디 박사는 "석판은 안드라프라데쉬 주 내 성지 싱가라콘다 언덕의 찬다바람 마을 불탑서 떨어져 나온 것"이라며 석판의 용도가 탑 재료인 벽돌을 감싸는 장식용이라고 주장했다. 아마라바티는 큰 불탑을 중심으로 한 불교건축 유적으로, 그 주위에 돌린 대리석 울타리 난순(欄楯) 등이 널리 알려졌다.

난순에는 '아마라바티 양식'으로 불리는 아름다운 부조(浮彫)가 있는데, 주로 대탑을 묘사한 그림이 많아 건축사서도 주목된다.

한편 레디 박사는 석판이 찬다바람 박물관에 안치 · 전시될 수 있도록 안드라프라데쉬 주 고고학 · 박물관부에 공식 요청한 상태다.

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피규어 불상, 日 여성들 사로잡다

실용적이고 즐길 수 있는 불교 관련품 선호




불상의 나발을 이미지화한 니트 모자 '나발 니트 캡'(사진 왼쪽). 반야심경을 그림으로 표현한 마스킹 테이프.

일본 불교의 특징인 단가(檀家) 제도가 쇠퇴하며 신도수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40대 이하 여성층에서는 오히려 불교 붐이 일어나고 있어 화제다. 11월 28일 관련 내용을 '닛케이 스타일(日經スタイル)'이 취재했다.

신도들이 제반 의례와 가족묘지 관리를 사찰에 위임하고 그 사찰에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이른바 '단가제도'가 쇠퇴하자 사찰이 감소해가는 시점서, 젊은 여성층은 오히려 불교상품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등 불교 붐을 일으키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최근 번화가서 불상을 모티브로 유니크한 디자인의 상품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 상품의 소비층은 40대 이하의 여성들이며, 이들은 인터넷을 통한 불상관람 모임이나 사찰순례 모임 등을 주도하기도 한다.

독특한 디자인의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알려진 펠리시모(FELISSIMO)는 올 8월, 불상의 나발(螺髮, 소라모양을 한 부처의 머리카락)을 이미지화한 니트 모자 '나발 니트 캡'을 발표했다. 이 모자는 도쿄국립박물에서 개최한 불상전시회에 맞춰 관내 매장서 판매하자 순식간에 소진될 만큼 인기가 높았다.

펠리시모 디자인 팀은 스님들의 의견을 참고해 상품화했다고 한다. 또한 반야심경을 그림으로 표현한 마스킹 테이프 등 일상용품도 판매하고 있으며, 앞으로 불교를 소재로 한 상품을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펠리시모 자체 조사에 의하면 불교상품의 주 고객층은 30~40대 여성으로, 예상보다 10배에 달하는 호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상생활서 즐기는 불상'이라는 컨셉으로 피규어 불상을 판매하고 있는 불상 전문 매장 '이스무(イスム)'에도 많은 여성들이 주 고객층으로 방문하고 있다. 여성 고객들은 "사찰을 구경하는 기분이 든다", "조형미가 훌륭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평균가격이 8~9만엔(약80~90만원)인 고가의 제품을 구입한다고 한다.

이처럼 젊은 여성들이 주도하는 불교 붐 현상의 핵심은 '가볍고 즐길 수 있는 불교'라고 기사는 분석한다. 60대 이상 일본 여성들은 단가제도로 인해 불교신앙 활동이 의무화 돼있어 나이가 들수록 거부감이 생기는 반면, 이들의 자식 세대인 젊은 여성들은 문화로서 부담 없이 불교를 즐기기 때문이다.

단가제도와 믿음이라는 의무감으로 사찰을 지탱하는 시대가 아닌 지금, '가벼운 불교'가 일본 여성들을 사로잡고 있다.

주성원 객원기자

달라이라마, "도널드 트럼프 만날 것"

몽골 방문서 밝혀… 中, 몽골 회담 무기한 연기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월 18~21일 몽골을 방문한 달라이 라마는 미국 대선에 대해 질문하며 "자유진영 국가를 대표하는 나라인 미국을 방문하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도널드 트럼프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달라이 라마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대해 "걱정할 것이 없다. 트럼프 당선인이 국제 현실에 맞게 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거 기간 중 트럼프 후보가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일단 당선된 후 책임이 부여된 만큼 협력해 현실에 맞게 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 분리 독립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는 중국은 달라이 라마의 몽골 방문과 관련, "건전하고 지속적인 양국 관계 발전의 전체 구도 아래서" 달라이 라마의 방문을 취소하라고 몽골 측에 요구했으며, 예정돼 있던 중국-몽골 양국 정부 간 회담의 무기한 연기를 통보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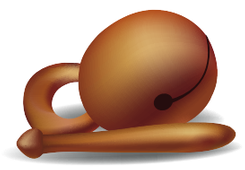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음식과 보물로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법으로 인도해야 곧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다.

– 법구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정신질환 상담
우울증, 정신분열, 정신이상, 빙의, 환청, 환시, 간질발작, 정신병원약을 복용하신 분
(상담 및 개인지도)
사주학, 성명학, 빙의퇴마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4호선 상계역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 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 점안식,
시다림, 구병시식
010-5905-1249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구성학 강의
신비의 점성술
매주 : 화,목 강의 / 2시~ 4시
(교재무료)
수강료 월 20만
구성역리학회
010-4876-5353
051-245-5353

관 상 (손금)
– 스님 특별 비법 개인지도
– 상술, 비법, 질병 전문강의
– 암,묘터,질병,재판,이혼수를 얼굴만 봐도 알수 있다
– 일반인,무속인,철학원,스님
010-4014-8822
(천기누설비법)

사찰 화분장 분재공원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 선설치 후지불
- 100평 기준 70기 유치
- 분재공원 조성은 신도 활성화
www.화분장.kr
010-8458-3310
대표 율평

EST 기치료센터
기치료 과정
최면상담사 과정
사주, 육효, 철학상담사과정
각 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개업하고자 하는분,공부하였으나 자신이 없는분,관심은있으나배울기회가없는분)
EST 기치료최면센터
010-6666-2733

? 고민 해결의 지 침 서
당신의 어떠한
고민도 해결 할 수
있는 지침서이다
010-7732-3267
농협 302-1030-1238-01 배종영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 너 지 힐 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빙의.퇴마.전생체험
수강생 모집 (개인지도)
3개월 과정.
교재는 무상 지급함
수업 : 매주 금요일 오후1시~5시까지
세종시 소정면 운당 (대승암)
010-5269-4168

배워야 산다
비법+명리+조상풀이법
포교당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 / 철학관 개업하실 분 / 무속제자, 신선생 / 무한 책임지도 / 사주풀이 전화 상담 중
010-5960-4984
지리산 현담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칡 판 매
스님이 직접 캔
칡을 판매합니다
경북 예천군 유천면 하천길 21-73
우체국 012-104-02-185640 김재홍
010-5585-0459

운전하고 사찰일 할 수 있는 곳
원합니다. 전국 어디든 상관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64세, 1종대형면허, 버스운전 경력)
010-6476-6026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010-2844-6444
010-3579-6444

법납 40년 된 비구가 무료봉사
통화사절, 문자 메세지로 다음 내용을 보낼 것
(스님께 기대하는 것, 사찰이름, 사찰형태, 지역, 창건연도 등)
010-3221-0839

요양,공부,수행처가 마땅하지 않은 비구니스님, 보살님
1인 단독 개인방사 드림, 25평형, 방2개, 거실,욕실, 주방
(양산 통도사 부근, 산사사찰)
010-4640-4747

문두루 기도비법?
원하는 것을 이루게되는 기도이며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구성학 + 현공풍수 양택
기본과정 수강회원 모집
● 서울과정 : 2016년 12월 6일 (화요일) 오후 1시 ~ 4시(180분) 개강
● 대전과정 : 2016년 12월 2일 (금요일) 오후 1시 ~ 4시(180분) 개강
● 서울 학회사무실 : 서울 관악구 봉천동 865-2번지 세종오피스텔 317호
● 대전 학회사무실 : 대전 서구 용문동 243-18번지 2층
010-5116-9313

비구니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거제)
010-7169-987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지역 천년고찰)
010-8559-9400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강원,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사찰내외 유무선 마이크 설치전문
일반적으로 중형교회의 경우 5000만원 내외 정도의 음향설비를 합니다. 그러나 대전 한성음향은 노래방기기설치 21년차로 특허도 있고 간략하고도 기성복이 아닌 맞춤옷같은 방법으로 대웅전 음향설비를 평균 200만원대 소형은 100만원대로 교회음향에 준하는 설비를 해 냅니다. 예불과 설법과 천도가 쉽게 할수 있게 설치해 드립니다. 설치된 곳은 강원 인제읍 무애암, 충북 보은읍 만선암,서울 강동구 둔촌동 대국사 경북경산 압량면 수안사, 경남창원 진해구 청룡사 등입니다. 문의 바랍니다.
특허등록업소 한성음향 (대전,전국 출장가능)
010-4440-868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10-8721-2198
02)2234-2198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 자 모 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국제불교방송 모집공고
1.시민 참여 기자 0명 / 2.전국지사장 0명 /
3.전국포교당 0명 / 4.프리랜서 전임기자 0명 / 5.광고국장 0명 /
6.위문공연(자원봉사자) – 국악, 무용,악기, 대형버스 면허자 /
7.법회장소 제공하실 분, 리무진 대형버스 사용하실 분 /
8.주 1회 동영상뉴스. 진행자(여) 0명
※ 자기소개서 이메일로 접수 (ibbtv1@gmail.com)
대표전화 : 1833-9540 국제불교방송 (www.ibbtv.com)

한국최초!! 내손안의 육임
이제 운세를 휴대전화와 휴대용 PC로 순쉽게 손안에서 해결되는 새로운 비법의 육임 운명법(사주, 개운법포함), 명궁법, 신수법, 시간법을 각자의 생년월시만 넣으면 8640페이지로 명쾌하게 해결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운명을 알아 맞추는 형식이었다면 육임 운명법은 운명의 법칙대로 살아야 잘사는 법을 만든 비술이다.
■ 시간법도 각각 年名(년명)을 대입하여 풀어놓은 국내 최초의 비술이며 휴대전화와 앱으로 볼 수 있는 국내최초로 만든 손 안의 운세이다.
■ 육임은 대운법 뿐만아니라 세운으로 각자의 운명을 어떻게 살아야 맞게 사는지를 자연법칙에 맞추어 만든 비술이다.
■ 인연이 가장 중요하고 직업이 중요하다. 만법이 자연에 순응하여 살듯이 인간도 자연법칙에 맞추어 살아야만 세상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사는 법이다.
■ 육임 운명법은 자연법칙에 맞는 인연과 직업을 명확히 알고 살도록 만든 최초의 비술이다.
● 가 액 : 600만원
(모바일 / PC 버전 : 내손 안의 육임 보는법 무료로 강좌해 드립니다.)
동영상 CD(외장하드)를 함께 드리며 화상강의도 가능합니다.
■ 육임강좌, 수강생 모집 : 수강료 300만원
■ 육임이 보인다. 공념 著 / 4×6배판 / 정가 70,000원
■ 강좌문의 : 공념학당 010-4471-6410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떳떳한 행동을 하라 나쁜 행동을 하지 말라.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편히 잠든다.

- 법구경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사찰보유)

▶ 관광 사찰 ◀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토지 : 1400여평
- 건물 : 목조법당 48여평, 요사채 38여평
- 세계불교박물관 (벼락맞은 대추나무 5400년된 회석 등 300여점 보유)
- 양도 : 13억 5천만원 (대출 5억포함)

▶ 아름다운 사찰 ◀
- 위치 : 경남 하동
- 토지 : 6,600여평
- 건물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 뒷산기암괴석,동백군락지,매실1톤수확,선방 최적지
- 양도 : 11억원

051-863-6622
010-3560-85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1, 504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양평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한옥법당 40㎡. 요사채 59㎡. 토지 1,500㎡
- 조용하며 산속토굴겸사찰.지하철10분.저렴한가격임.
- 양도가액 : 3억2천만원. 조정가능(융자1억포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 (대표 : 이규철)

■ 비밀보장. 방문접수.전국사찰. 암자 급히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위치 : 경기
◎ 부지 : 80평 ◎ 부지 : 2200평
◎ 법당 : 40평 ◎ 법당 : 60평, 외전각
◎ 요사 : 60평 ◎ 요사 : 100평
◎ 양도 : 6억 8천 ◎ 양도 : 30억 8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 장유폭포 부근
- 토지: 14,780평, 주차장 완비
- 건물: 건평 80여평, 법당 요사채 등
- 불모산 사찰, 정남향 최고 위치
- 양도 : 몽땅 6억 5천만원

010-2595-7752 전무

주소: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504호(만덕동302 다산타워)

영주 사찰(급)안내

- 토지 7,000㎡
- 한옥기와 법당, 산신각, 요사채 등
- 주변산, 바위, 약수, 토목완료
- 영주 4K 고속도로 접근성 좋음
- 가액 : 4억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사찰전문)
서울연락처: 070-8154-9393
(원주 이박사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서울 & 경기 사찰 / 포교원 중개 전문

-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전문적 / 중점적 중개
- 직접 방문을 통한 정확한 권리분석 및 상담
- 전국 매물 수백건 보유/심층상담을 통한 고객 만족 매칭서비스
- 공인중개사로서의 정확한 책임 중개
- 서울&경기 지역 매물 접수처(H.P 010-3426-9393, 카카오톡 : hyeonjong01)

서울.경기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 44 101호 / www.010-3426-9393.com

010-3426-9393 / 070-8145-9393

인천시 사찰 안내

- 위치 : 인천시 서구
- 지하철역5분거리 /주택밀집지역
- 토지 총 682㎡ (약200평)
- 목조법당 75㎡ (약22평)
- 요사채 92㎡ (약28평)
- 가액 : 6억

010-3426-9393 (포교원전문)
070-8154-9393

삼 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양도액 : 12억

- 위치 : 경기
- 대지 : 4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25평
- 가액 : 6억5천

[포교원]
- 위치 : 안양
- 총평 : 65평
- 법당 : 25평
- 요사 : 40,방3개
- 시설비 약간, 시설 굿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경매상담, 부동산 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량물건 보유 언제든 전화주시면 성실 안내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200평, 건평40평, 법당, 요사채, 방3개
- 친견실,공양간,샤워화장실2개 밖에 남녀화장실,산신각,용왕연못 등 시설일체 방문요망
- 가액 : 2억 5천 8백만원
- 급 양도

010-5427-3699

대형 사찰 양도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삼동
- 2614평
- 대웅전포함 정각4동 전철역사 인접
- 기본계약후잔금은행대출가능
- 가액 : 65억
- 꼭 사실분만 상담가능

010-3288-1317

멋진2층전원주택사찰

- 위치 : 경북 김천시내
- 평수 : 대지 217평 (아래층 방 5개, 법당, 주방, 해우소) (2층 방3개 거실,주방, 해우소)
- 마당 잔디 황토방 조경 좋음
- 가액 : 대출 1억 포함 2억 8천 5백만원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바다전망 좋은곳
- 30년 전통, 기와, 단청
- 면적 : 대지 850㎡
- 법당, 삼성각, 요사체
- 도로좋음, 주차가능
- 가액 : 8억 5천만원

금호부동산 연산 가-13-1645(박춘식)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18(연산동)

010-5346-4138
051-861-2233

암자안내(마산)

- 위치: 마산 무학산 입구(교방동)
- 건물 : 2층 (1.2층 전체 콘크리트 건물)
- 주변부지 사용 가능
- 가액 : 전월세, 보증금 3백만원, 월 13만원 시설비 500만원
- 몸만 오시면 됨

010-7169-9878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시장 부근 7호선 약 3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도시가스)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 주방,욕실,주차 2대
- 아주 깨끗함, 관리비 없음
- 가액: 1,000만원, 월 11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즉시 법회 가능

010-4646-363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중앙로 22. 2층 ● 법당 50평
- 아미타삼존불, 약사삼존불, 지장보살,
- 신중, 산신, 용왕, 영가단, 각후불탱화
- 소불 108불 이상, 음향시설, 냉난방기 종, 조명 등 집기일체
- 방, 주방, 화장실 겸 샤워실
- 스님의 건강문제로 급 인계하려합니다, 기도스님 보살님 대환영(몸만오시면됨)
- 가액 : 보 8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700만원

스님직통 010-3015-587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대지 45평, 건평 92평
- 4층 건물
- 건물 : 철근 콘트리트구조 산밑 아담하고 조용한 곳
- 가액 : 6억(절충가능)

010-5931-1071

사찰(급)안내

- 위치 : 창녕IC에서 10분거리
- 건물 3동, 대지 197평
- 법당, 삼존불 외 소불 150불
- 방 4개, 공양간, 화장실
- 가액 : 1억 4천만원 (융자 2천 5백만원 있음)
- 몸만 오시면 됨

010-7589-9600
010-3753-7844

사찰(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신정1동 신정시장 부근
- 평수 30평, 2층독채, 큰방3개, 거실, 욕실주방
- 편백나무 리모델링, 급한사정
- 위치 좋음, 교통도 좋음
- 삼존불, 석가모니, 약사여래, 관세음보살
- 후불탱화, 용왕, 산신, 신중
- 가액 : 전세 1,000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금액은 500만원

010-9902-3969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대구시내 2차선 도로변
- 대단지 아파트와 주택 밀집지역 중간부분 교통 원활
- 아미 관음 지장 후불 신중 칠성탱화 영가단, 소불 법당종 냉,난방기 음양 조명 등 시설완벽 불기 및 집기일체
- 신조성 1년 10개월 포교 및 명리 적합, 3층 건물중 2층 약 25평
- 보: 300백, 월30만. 주방시설은 있으나 방은 없음 시설비는 꼭 하실분에게 최소의 금액에 드리겠습니다

010-5050-625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영도구 남평
- 남향동 대로변
- 평수 : 3층건물 중 2층 38평
- 가액 : 보 500만원, 월 45만원 시설집기일체 600만원 (절충가)

010-7314-8732

절 터 안 내

- 위치 :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계곡속
- 천하명당 절터 434평
- 입구에 폭포있음, 지방도 바로옆
- 전기, 관정 공사 완공 하천부지 일부사용
- 가액 : 5,800만원 (가격 절충)
- 장난전화 사절. 꼭 필요하신분만, 공부하실분만 전화주세요

010-2499-3001

포교원 임대

- 위치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 건물 : 2층 건물중 2층 (옥상 사용 가능)
- 대도로변 위치 포교하기 좋은곳 주차장 있음
- 가액 : 보 1,000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시설 A급 몸만 오시면 됨

010-9908-801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회원구 내서읍 (내서 IC 3분거리)
- 대지 100평, 법당 25평
- 요사채, 스님친견실, 산신각 대형주차장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구포
- 평수 50평
- 즉시 법회 하셔도 됨
- 가액: 보 1,500만원, 월 10만원
- 시설보시금 : 칠백만원

010-2938-2550

상가 임대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청룡동 33-4 동산아파트 상가 범어사 90번 종점
- 용도: 사주카페, 불교용품, 소품갤러리
- 가액 : 전세 1천 5백만원 월 40만원 권리금 천만원

010-9394-148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금산
- 종교부지 280평, 임야 50평
- 법당 : 철재 경량골 23평
- 삼성각 : 목조 기와 7평(단청, 30년됨)
- 요사채: 철재 스레트 30평, 방 5개, 주방 1개, 화장실(실내1, 실외1)
- 가액 : 1억 8천(융자 6천만원)

010-3875-6305
041-752-059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 북구 시장입구
- 3층 건물 2층
- 평수 : 약 53평
- 방3, 에어컨 3대,최고시설 완비
- 보증금 900만원, 월 40만원 도시가스 시설 시설비 상담 후 절충가능

010-8770-3813

토굴을 구합니다

- 산속이나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면 좋겠습니다
- 싼 값으로 양도하실 분이나 임대로 빌려 주실분은 연락주십시오

010-7678-5536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중앙로 22. 2층 ● 법당 50평
- 아미타삼존불, 약사삼존불, 지장보살,
- 신중, 산신, 용왕, 영가단, 각후불탱화
- 소불 108불 이상, 음향시설, 냉난방기 종, 조명 등 집기일체
- 방, 주방, 화장실 겸 샤워실
- 스님의 건강문제로 급 인계하려합니다, 기도스님 보살님 대환영(몸만오시면됨)
- 가액 : 보 8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700만원

스님직통 010-3015-5875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산시 자인면 율옥리
- 총평수 : 545평(자연녹지)
- 가액: 평당 20만원

010-6752-933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연산5동 시내 중심가
- 1층 법당(약 25평) 2층 (방 3개)
- 가액 : 40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약간

010-7459-2977

도심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 대지 69평
- 1층:27평(방3칸, 공양실, 요사) 2층:25평, 법당, 스님 친견실
- 삼존불, 각단 탱화 법당시설 완벽
- 종무소 3평, 도시가스, 주차가능
- 가액 : 3억 9천

010-7311-5335

사찰안내 또는 전세

- 위치 : 경북 문경시 동로면 생달리 586
- 부지 400평
- 목조법당 25평
- 요사콘크리트 슬라브 50평
- 심야보일러, 田 다소
- 가액 : 3억 5천만원(양도) 6,000만원(전세)

010-5780-1415
033-762-2494

능인 로즈마리
능인 라 벤 더



(단)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 (연소시간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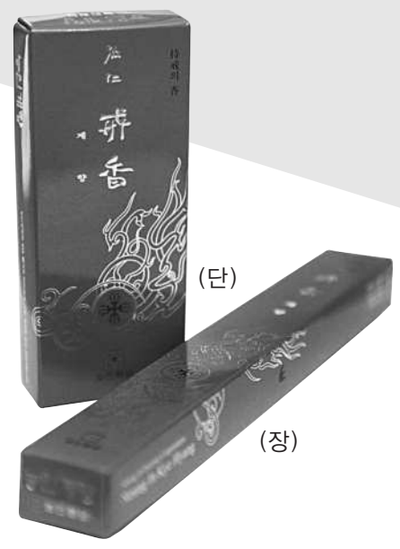
능인 계향

능인계향은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향입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 각 30,000원 (장,단)

· 규격 : 장(24.5㎝) 약 1시간 10분 / 단(14㎝)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장)

■ 주문 : 현대불교 헌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중독이 나를 힘들게 할 때

토마스 비엔 · 비버리 비엔(명상 지도자)

〈10〉 부정적 감정 변화시키기

‘만족 씨앗’에 물주면 긍정심이 ‘쑥쑥’



‘긍정’은 최고 수련법

인간 발달의 척도 가운데 하나는, 감정 조절력을 얼마나 갖췄느냐이다. 아이였을 때 우리는 손에 쥔 막대사탕을 빼앗기기만 해도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어른이 된 우리를 울리려면 막대사탕만으로 되지 않는다. 그런데 중독자들은 중독에 빠져 있는 동안에 감정 조절과 관련한 발달이 정체되어 있다. 어떤 중독자는 감정 조절력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경우도 있다. 중독은 마음챙김과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 회피의 일종이다. 그리고 중독자들이 회피하는 대상 가운데 하나가 부정적인 감정이다.

그렇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부정적 기분과 감정이라는 도전에 어떻게 응수해야 하는가? 우선 붓다의 다음 말을 기억하자. “우주를 열 번 뒤지더라도 자기 자신보다 더 자애의 마음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는 없다.” 이 말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자.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부정적인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세상에 나 자신보다 자애의 마음을 받을 가치가 더 큰 존재는 없다. 결단코 없다.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진실을 받아들인 다음에야 부정적 감정을 변화시킬 준비가 된다. 이제 부정적 감정을 변화시키는 두 가지 기본적인 방법을 소개한다. 하나는 긍정적 감정을 계발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부정적 감정을 돌보는 방법이다.

부정적 감정을 부인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부정적 감정을 제대로 돌보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말은 맞다. 그러나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이 지닌 치유적이고 바람직한 면(그러나 우리가 당연시하는 면)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긍정적 인식을 키우는 것도 부정적 감정을 돌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나에게 이러한 인식에 눈을 뜨게 해준 두 개의 통로가 있었다.

첫 번째 통로는 서양심리학이 아닌 불교심리학이었다. 불교심리학에서는 인간에게 의식의 저장고가 있어서, 마치 싹을 틔우는 잠재력을 지닌 씨앗처럼 온갖 종류의 느낌과 의식이 그 저장고에 담겨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중 어떤 씨앗에 물을 줄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우리는 마땅히 행복과 만족, 평화와 안녕이라는 씨앗에 물을 주어야 한다. 동시에 부정적인 씨앗이 자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긍정적인 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실 긍정적인 자원은 우리 바로 곁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긍정적인 자원을 알아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내는 최고의 수련법일지 모른다.

심리학은 최근에 와서야 긍정적 심리상태의 계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예전에는 긍정적 심리상태의 계발을 그저 부인과 억압의 한 형태로 폄하하고 있었다. 긍정심리학은 심리학이 인간의 부정적 심리상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 심리상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울증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낙관주의에 대해서도, 병리적 심리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회복탄력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긍정심리학 분야의 몇몇 연구자들은 긍정적 감정이 다른 어떤 방식보다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부정적 감정을 치유할 수 있다고 본다. 미시건 대학의 바버라 프레드릭슨과 동료들이 행한 일련의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일으킨 부정적 감정이 그들의 심장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참가자들은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는 영화를 보았을 때보다 긍정적 감정을 북돋는 영화를 봤을 때 심장이 더 빠르게 정상 기능을 회복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다음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한다. “긍정적 감정은 부정적 감정을 보살피고 치유한다.”

마음챙김으로 無我 받아들이기

부정적 감정은 물결효과를 일으킨다. 부정적 감정은 우리의 인식의 폭을 좁게 만든다. 슬픔과 걱정에 휩싸여 있을 때에는 선택의 폭과 가능성이 줄어든다. 반대로 긍정적 감정은 더 다양한 가능성을 보게 한다. 긍정적 감정은 선순환을 일으킨다. 가능성이 커 보이면 행동을 취하기도 더 수월하다. 새로운 것을 더 많이 시도해보고, 기존에 하던 일도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게 된다. 그러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행복하다고 느낄 이유를 더 많이 갖게 된다. 반대로,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의 경험은 이것과 매우 다르다.

긍정적인 면을 키우라고 해서 부정적 감정을 부인하거나 억압하라는 말로 여겨서는 안 된다. 부정적 감정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제거하기보다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부정적 감정을 다루는 첫 번째 단계는 평온의 마음을 계발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사마타(집중)라 한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지금 느끼고 있는 슬픔에 주의를 기울인다.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모두 자각하라. 그런 다음 이것이 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라. 목과 어깨가 조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지, 복부가 잔뜩 긴장하고 있지 않은지 보라. 어떤 신체 증상이 나타나든 그것과 더불어 숨을 들이쉬고 내쉬라.

마찬가지로, 당신의 부정적 감정도 보듬어 안아야 한다. 무엇으로 보듬어 안는가? 마음챙김으로 보듬어 안아야 한다. 슬픔과 괴로움의 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즉 그것들에 너무 빠져들어도 안 되지만 또 너무 초연해도 안 된다(지나치게 초연한 태도는 곧 부인이고 억압이다).

물론 스위치를 끄듯이 간단히 슬픔을 떨칠 수는 없다. 약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시도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다. 당신은 스위치는 없지만 변화를 일으킬 수는 있다. 어떻게? 호흡을 자각함으로써,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봄으로써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 이때 치유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마치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음식이 소화되고 손톱이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 부정적 감정은 보듬고
>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면
> 끈기 있는 마음챙김 통해
> 어느새 변화된 자신 발견

랄프 왈도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다. “어리석은 집착이야말로 옹졸한 마음의 골칫덩이다.”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그 감정에 더 달라붙는다. 그리고 그 때문에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든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자아에 대한 집착이다. 우리는 ‘자아’라는 환상을 쉽게 내려놓지 않는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무상과 무아를 받아들이라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견고하다고 여기는 ‘자아’도 제대로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자아’가 없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흘러가는 경험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아가 있다’는 생각조차도, 어쩌면 끊임없이 변화하고 흘러가는 경험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지 모른다.

끈기가 붓다를 만든다

명상 수행을 하지 않아도 깨어 있는 삶을 살 수는 있다. 하지만 수행을 하지 않으면, 깨어 있는 삶을 살겠다고 의도적으로 결심하기란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깨어 있는 영적 삶을 살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고 불교 승려처럼 새벽 3시에 일어나라는 말은 아니다. 그렇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유로운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평화로운 마음과 마음챙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아침에 여유 시간을 가지라. 불교는 자신의 머리카락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수행하라고 가르친다. 이는 무지와 망각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지금 나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라는 의미다. 머리카락이 타들어 가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조치를 취하지 않겠는가.

불교에는 많은 대중 앞에서 꽃 한 송이를 조용히 들어 보인 붓다에 관한 일화가 전해 내려온다.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자 마침내 대중 가운데 가섭 존자만이 미소를 지었다. 붓다는 자신이 가섭에게 깨우침을 전했다고 말했다. 마음챙김은 단순하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것인지 모른다. 그렇다고 그것이 언제나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현명함과 부드러운 끈기로 마음챙김의 길을 간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님도 알 수 있다. 불교는 붓다가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도 당신과 나처럼 실재했던 인간이었다. 불교가 지닌 인간적 면모는 우리의 용기를 북돋는 중요한 진리를 드러낸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가 성취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진리다. 당신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붓다의 삶은 그것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아직 완벽한 붓다가 되지 못한 우리들이기에 마음챙김을 잊고 망각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망각에 빠질 때마다 얼굴에 웃음을 지으라. 그리고 마음챙김으로 돌아오라. 마음챙김은 ‘무엇이든 알아차리는 것’임을 명심하라. 〈새로운 자각의 눈을 뜨라(Opening the Eye of New Awareness)〉(1999)는 책에서 달라이 라마는 어느 수행승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말한다. “얼핏 보기에,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합적인 현상은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 계속 변화합니다. 쉽게 낙담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백 년이 걸려도 어렵다고 여겼던 일을 하루만에 이룰 수도 있습니다.”

끈기와 자기 수용을 주요한 수행으로 삼으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변화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더 깨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끝〉

이 글은 〈중독이 나를 힘들게 할 때〉(불광출판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당신도 명리학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주를 풀어주기 위해 명리학을 공부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본 책자는 초보도 만세력에서 일주만 찾으면 성격 및 당해년 운세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포교를 하다보면 제가자들이 많은 것을 물어오는데 부록편에서는 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 우혜안 –



慧眼決書

발행인 : 초암사 주지 혜 안 스님
주문처 : 초암사 043-215-1569
010-9405-8186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내수읍 초정길 156-9)
입금계좌 : 농협 317-02-322143 (우복진)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기적

모든 것은 기적이다. 멀고 먼 시간으로부터의 나, 몰랐던 너, 깊어가는 영혼,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 어제까지 없었던 한 편의 시, 마침내 보게 된 오늘, 어제와 다른 달…. 삶에 기적은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늘 기적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짙어가는 하늘 아래, 너와 나 모두 기적이다.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우승미의 불교창작동화

내 이름은 이필구 上

"난 삐꾸가 아니라 필구라고!"

필구는 거울을 봤다. 금방 세수한 얼굴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눈과 코와 입을, 눈썹과 뺨과 이마를 오랫동안 바라봤다. 오른쪽 눈보다 왼쪽 눈이 작았다. 오른쪽 뺨이 왼쪽 뺨보다 불룩했다. 콧대도 왼쪽으로 조금 휜 것 같았다. 필구가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뜯어본 것은 처음이었다. 볼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오른쪽과 왼쪽. 자신의 얼굴에서 완전하게 대칭을 이루는 부분은 어느 곳도 없었다.

'삐꾸야!'

누군가 자신의 별명을 부르는 것 같아 필구는 얼굴을 찌푸렸다. 아이들은 필구를 삐꾸라고 불렀다. '사과 같은 내 얼굴'의 가사를 바꿔 '삐꾸 주제가'를 만들었다.

'삐꾸 같은 내 얼굴 우습기도 하지요. 눈도 삐꾸 코도 삐꾸 입도 삐꾸 삐꾸.'

필구는 그동안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잘 생겼다거나 못생겼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필구에게 얼굴은 그냥 얼굴이었다. 가장 익숙하고 친근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오랫동안 거울 속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눈에 띄었고, 다른 사람의 얼굴과 마주한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이게 다 이름 때문이야."

필구는 거울 속의 얼굴을 외면하며 중얼거렸다.

"엄마,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개명신청을 할 수 있대요."

"갑자기 웬 개명신청?"

"저 이름 바꾸면 안 될까요?"

"네 이름이 어때서?"

필구는 입을 다물었다. 아침 식사 시간은 진지한 이야기를 할 타이밍이 아니었다. 아침에는 가족 모두 정신이 없었다. 엄마는 아침 식사를 차리면서 출근 준비를 하느라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젖은 머리는 수건으로 둘둘 감겨 있었고, 한쪽 눈썹은 그리다 만 채였다. 밥을 먹는 사이사이 깨작거리는 우진이 숟가락 위에 반찬을 올려놓느라 손이 네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필구의 이름은 우송 스님이 지으셨다고 한다. 집안의 돌림자인 '구' 자를 넣느라 이름 짓는데 애를 먹었다고 한다. 그러면 우진이는? 우진이는 왜 우구나 진구가 아니라 우진이였을까. 굳이 돌림자를 쓰지 않아도 되었다면 필구는 왜 돌림자를 넣어서 필구라고 지은 걸까.

필구는 할아버지 시대의 이름 같은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은결이나 소율이나 선빈이 같은 세련된 느낌의 이름이 아니어도 좋았다. 민규나 지성이, 동혁이처럼 흔해서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고 싶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방구라는 별명을 얻었을 때, 필구는 엄마에게 왜 이름을 필구라고 지었느냐고 따졌다. 아무 데서나 방귀를 뽕뽕 뀌어대는 방귀쟁이가 아닌데도 이름 때문에 방구라고 불리는 게 억울해서였다.

"필구 이름에서는 정말 듣기 좋은 소리가 나지."

엄마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뽕뽕뽕 방귀 뀌는 소리가 아니라 맑은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난단다."



그림 · 강병호

필구 이름의 필(泌)자에는 샘물이 졸졸 흐른다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했다. 거세게 휘몰아치고 주위를 삼켜버리는 격류가 아니라 작은 골짜기에 돌돌돌 스며흐르는 맑고 깨끗한 물소리라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필구는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졸졸졸 물소리가 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지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름 속의 물줄기는 가늘어졌고, 이제는 수맥까지 말라버렸는지 이름이나 별명을 들을 때마다 자기 자신까지 싫어지는 기분이었다.

사실 듣기에 좋고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별명은 거의 없었다. 별명이라는 것이 재미로 붙이는 거라 외모를 비하하든 성격을 과장하든 어느 정도는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게 마련이었다.

최예린은 얼굴이 길쭉해서 마리아였다. 박주영은 엉덩이가 빵빵해서 오궁(오리 궁둥이), 행동이 느린 정은수는 나무늘보, 홍재민은 여자 같은 성격이라고 홍마담이라고 불렀다. 별명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이름 때문에 지어진 별명이었다. 김은지는 묵은지, 최원승은 원숭이, 지진희는 찌질이였다.

필구의 별명은 모두 '구' 자 돌림이었다. 5학년 때는 호구였다. 먹구, 똥구, 벼멸구, 영구, 팔구, 맹구, 짱구, 기억도 안 나는 '구' 자 별명들이 수도 없이 필구 주위를 맴돌다 떠났다. 필구는 그 별명들이 좋지도 싫지도 않았다. 듣기에 싫든 좋든 아이들이 부르면 부르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하나의 별명은 곧 다른 별명에 묻혀 사라졌다. 아이들은 화를 내면 더 짓궂어졌고, 필구 자신도 별명 같은 거로 화를 내는 게 옹졸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삐꾸는 정말 싫었다. 삐꾸라고 부르면 이상하게 신경이 곤두섰다. 자신의 외모나 성격이 부족하고 삐뚤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삐꾸라는 별명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정말 삐꾸가 되어가는 것 같았다.

체육 시간은 필구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다. 구기 종목이든 육상 종목이든 체육이라면 자신이 있었다. 지난달에 높이뛰기를 할 때는 필구가 가장 높은 기록을 세웠다. 필구는 발바닥에 스프링을 단 것처럼 훌쩍 뛰어올라 가뿐하게 바를 넘었다. 선생님께서 전문적인 육상선수 교육을 받아야할 것 같다고 말해서 필구는 한층 더 우쭐해졌다.

이번 시간은 뜀틀이었다. 뜀틀 대가 3단으로 올라가자 여자아이들이 '어우~' 하고 탄성을 질렀다. 4단으로 올라갔을 때는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뜀틀을 말처럼 타고 앉았다. 5단으로 올라가자 구르기를 하다가 뜀틀 앞에서 그대로 멈춰버리는 아이들이 나왔다. 6단으로 올라갔을 때 체육을 잘하는 주영이도 엉덩이가 뜀틀 모서리에 걸리며 앞으로 고꾸라지는 바람에 체육관이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다.

필구 차례가 왔다. 필구는 힘차게 도움닫기를 했다. 구름판을 구르자 몸이 가볍게 튀어 올랐다. 뜀틀을 손으로 짚고 밀치며 몸을 앞으로 뻗었다. 성공이었다. 아이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며 손뼉을 쳤다. 기쁜 건 그때까지였다. 착지를 할 때 오른쪽 발목이 삐끗하며 넘어졌던 것이다.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체육관을 나가는데 뒤에서 주영이가 소리쳤다.

"어, 이삐꾸! 진짜 삐꾸됐네!"

아이들이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다. 필구는 빙글거리는 주영이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아이들이 몰려들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필구는 주영이의 배 위에 앉아 있었고, 주영이는 코피를 흘리고 있었다.

"한 번만 더 삐꾸라고 불러 봐. 그땐 정말 삐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계속〉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125호 현대불교
2016년 12월 7일 (11월 9일) 수요일 / 불기 2560년

저 풀 한 포기도 나무 한 그루도 불교 아닌 게 없어요

사회자 오늘은 큰스님께 여러분께서 수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문 나는 점들 질문을 하시고 서로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어저께는 다복하게 토론과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물이든지 또는 초목이든지 요만한 씨에서부터 아주 크게 이루어지듯이 우리는 한 가정에서, 아주 작은 데서부터,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아주 심오한 내 참마음으로부터, 인간의 씨로부터 이 광대무변한 법을 들이고 내는 데 거침없이 할 수 있는 재료를 여러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뉴욕의 여러분은 공부를 참, 공부라는 그 언어도 붙지 않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여여하게 공부를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어저께 오신 분들을 봐도 아주 감사하리만큼 이 세상에 공생 · 공용 · 공체 · 공식화할 수 있는, 조화를 이루는 산하대지의 모든 생명들이 소생하고 또 길러지고 가을에 씨를 거두고 하는 그런 공부를 잘하고 가시더군요. 여러분의 몸과 가정을 화목하게 이룰 수 있고 또 불교를 딴 데서 찾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대로 불법인 줄 알고 찾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진리를 탐구할 수 없고 우리 생활이 불교인 줄 모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를 던질 테니까 여러분은 그 대답을 하시고 또 질문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질문을 하고 서로 토론하는 데서 쪼그마한 것부터 세세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론으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감지하고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어떠한 거든 내 앞에 닥치는 모든 거를 용도에 따라서 자기가 거기에 놓을 수 있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마디 질문할까요? 어때요? 좋으시다면요.

대중 가운데서 예.

큰스님 봄의 꽃이 옳습니까, 가을의 씨가 옳습니까? 대답하실 분이 있으면 거침없이 대답하십시오.

신도1(남) 예, 하납니다. 돈오 점수가 하나이듯이 씨와 꽃도 하납니다. 결국은 꽃이 피어야 열매가 맺고 또 그 씨가 다시 뿌려져서 꽃이 맺어지니까 결국은 하나 아니겠습니까?

큰스님 하나 있으면 내놔 보시지. 하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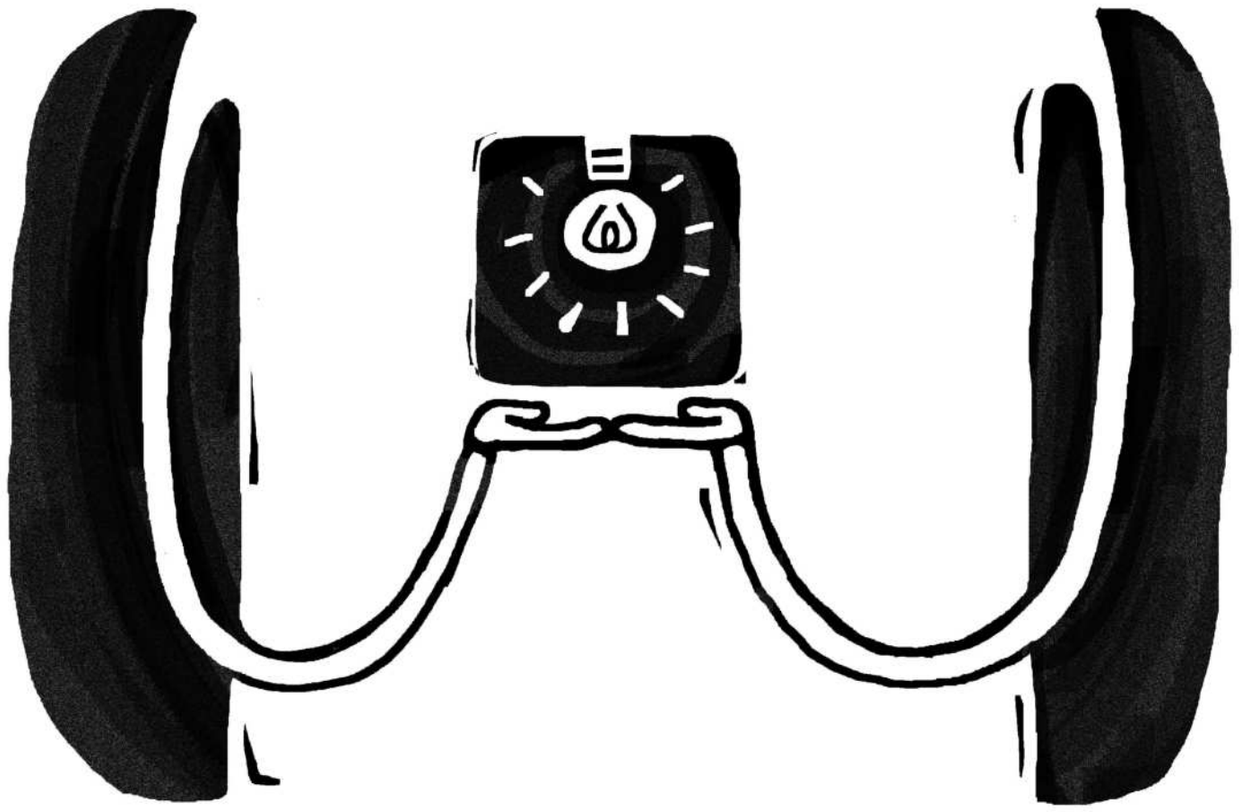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신도1(남) 제가 다시 태어나서 다음에 윤회하면 그때 보여드리겠습니다.

큰스님 허허, 세상에! 대답도 대답 같지 않은 말 하고 있네. 이거 봐! 돈오 점수가 둘이고 둘이 아니고 간에 이 세상은 물레바퀴 돌아가듯 쉴 사이 없이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 그런데 대답이 그렇게 늦어서 되겠어요?

신도2(남) 봄이 오니 꽃이 피고 가을이 오니 열매가 맺습니다.

큰스님 하이구, 그것도 늦어! 하하하…. 아니, 버스 지나간 뒤에 아무리 버스를 타려고 그래도 안 돼. 예전에 어느 스님께서 이렇게 물었대. 제자더러 하는 말이 "토시가 옳으냐, 부채가 옳으냐?" 하고 물었대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소릴 들었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소? 응? 지금 내가 물은 거나 그거나 아마 어상어상할 거요. 지금 대답하신 분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다 옳지. 이것 봐요. 그릇들이 종지도 하나 버릴 게 없어. 풀 한 포기도 버릴 게 없어. 옳은 거야 다 옳지. 대답 방법이 그렇게 게을러서, 벌써 둘로 나누어서 말하는 그 요량이 틀렸다는 거지. 그렇게 해 가지고 더뎌서 어떻게 그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걸 따라나서노?

신도3(여) 예. 꽃이 곧 씨고 씨가 곧 꽃입니다.

큰스님 그래서 그 토시와 부채를 물은 사람에게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했대요. 둘이 있었는데 어떤 스님은 "그 토시도 옳고 부채도 옳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고, 그러니까 또 질문했던 사람이 "그만하면 됐다." 그러는데 그때 아마 큰스님이 열반하셨던 모양입니다. "열반을 하신 스님이 계신데, 다비식을 하는데 저 너머 장승이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까닭은 무엇이냐?" 그러고 물었대. 그렇게 대답을 했으니까 그렇게 또 물을 수밖에. 남 두 번 수고를 하게 만들어, 응? 하하. 그것도 그렇게 두 번 수고라고 하는데 글쎄, 물론 꽃이 씨고 씨가 꽃이겠지. 그러나 그것은 말법밖에 되지 않지. 진짜로 여기 감응이 돼서 우리가 진짜로 실질적으로 자기 법의, 법바퀴가 굴러서 그것을 대답하는 소리가 아니다 이거야, 똑같은 대답이라도.

뉴욕의 식구들이 얼마나 공부가 늘었나 하고 한번 질문한 겁니다. 하하하…. 또 어떤 스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꽃도 없고 씨도 없습니다." 했대요. 그러니까 "토시도 없고 부채도 없다."고 대답을 했대요. 대답을 하는 그것이 끊어지기도 전에 그냥 소리를 질렀대요. (왼손 검지를 들어 보이시며) "저 산에 봄이 왔구나!"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괜히 뭐 귀신 방귀 뀌는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거는 정말이지 자신의 그 마음이 발로가 돼서, 둘이 아닌 도리를 다시 뭉쳐 놨기 때문에, 그 둘이 아닌 나툼을 알기 때문에 그런 대답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묘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인과로 인해서 업이 돼서 뭉쳐진 여러분의 오장육부에 있는 중생들은 어떻게 리드해서 이끌고 가시렵니까? 예전에 부처님들께서도 그러셨고 조사들께서도 그러셨고 팔만대장경에도 그렇고 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이 다 부처님인데 부처라고 한다면 그 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 인과로 인해서 뭉쳐진, 여러분이 과거에 하고 산 것만큼 차원대로 인과로 인해서 업이 된 그 수없는 중생들은 어떻게 제도하시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 마음 의식들을 다스려 가면서 이끌어 가면서 실천에 옮기면서 또는 실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내 오장육부와 더불어 내면세계, 바깥 생활, 사회생활 이 모두를 실험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보배는 바로 여러분 속에 갖추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저께 오시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되풀이하는 말도 있으니, 되풀이해서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질문하시렵니까? 나만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심심해서 안 되겠습니다.

어떠한 질문이라도, 가정에서의 조그마한 거라도 허심탄회하게, 지어서 하지 마시고 자기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빼놓고 이 세상이 벌어지지 않았고 또 생활 빼놓고 종교는 없어요. 불교는 없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조그만 거 하나로 인해서 크게 물리가 터질 수도 있는 거니까 서슴지 말고 나에게 '가다가 이런 것이 참 이상하더라. 또 이런 것이 답답하더라. 이런 것은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질문에서 아마 거름이 될지도 모르죠. 질문하세요.

질문자1(남) 우리 몸이 중생인데요, 제 몸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제도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을 좀 알려 주십시오.

큰스님 그거 간단하죠. 여러분의 마음 내는 지배인은요, 그 마음을 내면 속의 중생들이 전부…, 의학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보편적인 방편으로 헤아린대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생명들이, 의식들이, 모습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따진대도 어저께 말

☞ 26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이따 죽는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편안하세요

☞ 25면에서 계속

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줄잡아서 11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건 숫자를 딱 맞춰서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11억 중에 하나만, 그거 하나가 생각하는 것만이라도 그 한생각에 수천수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수효가 모래알 같겠습니까?

그러니 그걸 리드해 가지고 나가려면 모든 게, 말하자면 그 중생들이 다 그 부처님을 모신다고 합시다. 그런 생명들, 모습들, 그 의식들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있는 그 마음들이 수없이, 자기가 악이든지 선이든지, 쪼끄만 거든지 큰 거든지 다 지은 대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거를 자세히 말하자면 정자와 난자가 그렇게 한데 합쳐져서 수많은 모습들이 그냥 한데 모일 때, 바로 어머니의 살을 빌리고 아버지의 뼈를 빌려서 몸 하나를 받았는데 말입니다, 받았는데 그 영혼이 자기가 과거에 산 거를 짊어지고 거기에 삼합이 한데 합쳐집니다. 그럼으로써 인생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이 나와서 수없는 그 마음들이 속을 상하게도 하고 안되게도 하고, 될 듯하면서 안되게 만들고, 만약에 원수로 인연을 지은 업이 있다면 그냥 속을 썩여서 문드러지게 만들고, 남이 속을 썩여서 자기가 못 견디게 만들고, 병고를 일으키고 온통 뭐, 그건 말도 할 수가 없는 위기에 처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말고 마음을, 즉 말하자면 비우라 이 소리죠. 그건 왜? 거기서 일어나는 대로 거기에 속아서 말리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너한테서, 너희들한테서 나오는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한마음 알아서 해라." 거기다 놓아라 이 소립니다. 그걸 자세히 얘기하자면 지금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말로 오신통을 말을 하자면 탐지기, 팩스 또는 무전통신기, 망원경 또는 컴퓨터 이 다섯 가지인데 누진통은 그 오신통에서 벗어난 레이더망입니다. 그렇다면 오신통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됐느냐. 그 숙명통이라는 컴퓨터에 과거에 살던 자기 업대로 그냥 전부 인과로서 다 거기에 입력이 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짊어지고 나왔다 이거야.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없단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당장 짊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입력을 해 놓은 거를 지워 버릴 수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그러니 작업을 어떤 거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입력이 된 것이 바로 지금 현실에 살아나가는 대로 나오는 거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용도가 닥치더라도 모든 것을 거기다 다시 맡겨 놓으면 거기 입력이 다시 되는 겁니다, 지금 현실에. 그 과거에 입력된 것은 지금 현실에 또 입력을 한다면, 나오는 걸 되놓는다면 과거에 입력된 건 다 무너지고 말아 버리는 겁니다. 오간지옥이라든가 업보라든가 유전성이라든가 영계성 세균성, 모든 업보, 화탕지옥이니 뭐니 다 무너지는 거라. 그리고 현실에 입력되는 것이 다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 얼마나 평화스럽고, 이 몸이 건강해지니 좋고 마음 편안하니 좋고, 가정 또한 악한 일이 생기지 않으니 좋고 우환 생기지 않으니 좋고 화목하니 좋고 애들 속 안 썩이니 좋고…. 모두가 전력과 같고 광력과 같아서, 참 요 말을 안 해 드렸네요. 여러분이 지수화풍으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지수화풍을 먹고 살고, 지수화풍으로서 그렇게 대두돼서 나가기 때문에 재료가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오븐과 같아. 오븐과 같은데 전기가 전력이 없다면 어떻게 오븐을 돌리오? 물건이 없다면 또 어떻게 해 먹소? 이게 다 맞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주 알맞게 맞춰서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부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 내기 이전은 불성, 부처라고 했고 생각을 냈다 하면 법신이야, 그냥 그대로. 몸을 움죽거렸다고 하면 화신이야, 또. 그러니 화신 따로 있고 법신 따로 있고 부처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은 갖추어 가지고 그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속 썩지 말라 이거야. 하늘이 무너진대도 속 썩지 말고. 그래야 병이 안 생기거든. 혈맥이 막히면 용납 없어요. 암도 생기는 게 거기서 오는 거고, 여러분이 다 그런 거라.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그냥 돈을 벌려고 악을 악을 쓰고 어떤 일이든지 가리지 않고 덤비는 사람이 병들고,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이 병들고, 또 속 썩어서 그냥 어쩔 수가 없어서 펄펄 뛰고 화가 일어나고 그런 사람이 암에 걸려. 암이라는 것도 지금 알았지 옛날에야 암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고 그랬겠어요? 그렇지만 암 잘 걸리죠, 백혈 잘 거리죠, 관절 잘 걸리죠, 풍 잘 걸리죠? 이건 뭐, 혹이다 뭐다 하고 머리에도 뭐, 많이 걸리죠, 눈 시력 나빠지죠? 전체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질문 받는다고 그러고 내가 이렇게 자꾸 말을 하니 어떡하지? 조금만 더 말하고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아나가는 데에 여러분이 없다면 불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어디 있겠으며 상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체라, 모두가. 그러니 모든 것은 마음을 평온하게 가지고, 어차피 이 세상에 나와서 한 번 갈 거 죽는 게 뭣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러니 아예 모든 것은 거기 맡기고, 오는 대로 맡기고, 그냥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시고 편안하게 그냥 움죽거리세요, 편안하게. 이따 죽는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편안하게요.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몸도 건강하지만 가정도 화목하게 되고 웃고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야 어찌 사람 산다고 보겠습니까?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불제자라고 하겠습니까? 저 풀 한 포기도 나무 한 그루도 불교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 여기 미국에 오니까 기독교 가톨릭교 믿는 사람들이 전부 한 버스를 타고선 네 자리 내 자리 하는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도리를 모르겠습니까? 남이 일러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 돌아가는 거 보지 못합니까? 그리고 지구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쯤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한생각 내는 데에 체가 없는 줄 여러분도 번연히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원인이에요, 모두가. 여러분이 가난한 것도 또 질병을 앓는 것도.

또 이런 게 있죠. 여러분이 질병을 앓지 않고 그렇게 사람답게 살다가 '어, 내가 인제 이만하면 옷을 좀 바꿔 입어야겠다. 요새 참, 유행하는 옷이 나왔는데 내 이건 구식 아닌가?' 이러고서 좀 바꿔 입어도 좋습니다. 자손들을 애를 쓰게 하고 3년씩, 2년씩, 5년씩 이렇게 앓아 가지고 똥오줌 다 받아 내게 하고 그렇게 분잡을 떨고 갈 게 뭐 있습니까? 네?

정말이지 아프면 의욕이 생기질 않아요. 남들이 왜 저렇게 아프다고 하나 그러고 나도 아파 봤거든요. 나도 별일 다 해 봤어요. 그랬는데 그거 참 살맛 안 나겠더군. 어떻게 살맛이 나겠어요? 벌써 짜증부터 나지, 아프면 벌써 의욕이 없어지지, 그것도 하루 이틀 앓는 거라야 호사로, 자식들도 그렇고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여보, 당신 어디가 아파?" 이러지 그게 한 달 두 달, 일 년만 가 보세요, 아, 누가 "여보, 어디가 아파?" 이런 소리가 나오나? 이제 지쳐서 그냥 말로 "뭐 좀 잡숴어요?" 이 정도가 그래도 효자죠, 효부고요. "방이나 뜨뜻합니까?" 하고 이런 말이라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효부 효자 이런 사람들이죠. 그 말도 묻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그러니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위로는 묵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아래로는 햇볕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갖추어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소립니다. 몸 벗기 전에 부딪침이 있어야 공부하거든. 부딪침이 없고야 고생이라고 어떻게 하나? 안 그런가? 그러니까 걱정을 마라. 아니, 고생하는 사람이나 고생 안 하는 사람이나 살긴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너무 먹을 게 많아서 지천이라도 병이 난다고.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나 가지고선 죽느니 사느니 하지, 또. 그러니까 뭐든지 알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뭐든지.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많이 먹으면 그게 탈이 나. 여기 보약 많다고 보약 많이 잡숫지 말고 식사를 알맞게 잘 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질문을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요. 여러분이 괴상하게 물으면 나도 괴상하게 나갈 거고, 허허허, 여러분이 좋게 나오면 나도 좋게 나갈 것이고, 여러분이 작으면 나도 작아질 것이고 여러분이 크면 나도 클 것이고. 어때요? 우리 화목한 가정과 같이. 이 우주 천하는, 삼천대천세계를 부처님께서는 같이 한마음으로다가 그저 다 요리를 해서 그냥 탁 주셨대요. 그래서 태양은 씨를 뿌리고 또 산하대지는 그 씨를 뿌린 걸 길러서 가을에 씨를 거두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잘 생각하셔서, 불교라는 것은 어디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근본과 또한 우리 서로 말하는 이 말 자체가 교(敎)고 그렇기 때문에 불교 아닌 게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니 기독교라고 그러고 불교라고 그러고 또 알라신교라고 그러고 티베트 불교라고 그러고 뭐 남묘호랑개교라고 그러고, 종교가 그렇게 많은데 말입니다, 글쎄, 지구 안에 다 있지 지구 바깥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해서 우리 몸 안에서 벗어나고 지구 안에서 벗어나고 우주 안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인간이라고, 불제자라고 자부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앉아서 이 세상을 모두 탐험해 가면서, 앉아서 모든 나무의, 아니 다 죽어 가는 한 그루 참고목의 소리라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재밌는데 그럽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고생이 되더라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미생물에서부터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얼마나 진화되면서 쫓고 쫓기면서 인간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 몸 받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짐승의 몸으로 한번 태어나 보세요. 그 습이 붙어 가지고 짐승의 그 무명을 벗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천 년 만에 한 번 벗거나 말거나 한다고 그랬습니다. 인간도 이 인간 몸에서 벗어나야 인간을 굴리죠. 자기를 굴리죠. 그 많은 중생들이 자기 몸속에 있는데 말입니다. 그 많은 의식들을 다 한마음으로 몰고 가려면 그래도 그 속에서 나오는 것쯤은 그 속에다 놓을 줄 알아야 되죠. 하인을 부려도 똑똑히 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라면.

여러분이 부처라면 부처는 한생각을 내서 법신으로서, 보살로서, 즉 이 중생들을 보살로 만들려면 그렇게 한마음으로 굴리고 리드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으로써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화해서 리더가 되고, 즉 말하자면 입자가 분자가 되고 분자가 보살이 돼서 수없는, 헤아릴 수 없는 보살들이 털구멍으로 드나들면서 사람을 전부 32응신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고 모든 것을, 누가 어떠한 말을 해도 그냥 순식간에 그냥 한 찰나에 드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달렸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이 잘났으면 나도 잘났고 여러분이 못났으면 나도 못났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자체를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 육신 안에 들어 있는 그 중생들을 딴 남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미생물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그 과정을 모르걸랑은 네 속을 봐라, 네 속!" 그러는 겁니다. 내 속에 다 들어 있어. 그러니 내가 있는 데서 그 공부를 하는 거지 내가 없고 무슨 공부를 합니까? 그러니 큰 거부터 알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알면 그것은 모두 물리가 터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또 '저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무슨 질문을 해?' 이런 사람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다음 호에 계속)

여러분이 지수화풍으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지수화풍을 먹고 살고, 지수화풍으로서 그렇게 대두돼서 나가기 때문에
재료가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하다 이겁니다.

※위 법문은 1990년 12월 8일 뉴욕지원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소외 아닌 소통의 자비행을



선업 스님
통담아카데미아 원장

세월은 어김이 없다. 손과 발이 오그라들고 등이 시린 걸 보니 겨울이다. 이 때 등장하는 대표적 문구가 '소외된 이웃돕기' 이다.

먼저 '소외' 에 방점을 찍고 사전을 찾아보니 '어떤 무리에서 기피하여 따돌리거나 멀리함' 이라고 되어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의미의 '소외' 가 검색된다.

교육학용어 사전에서는 '개인이 그가 속해 있는 사회와의 관계에서 통합되지 못하거나 거리가 있는 상태' 를 의미하고 동녘에서 발행한 철학 사전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활동을 통해 만들어 낸 생산물, 관계들 및 제도가 오히려 인간 위에 군림하는 낯선 힘이 되어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이 맹목적이고 제멋대로인 그 힘의 작용에 종속되는 사회적 관계' 를 뜻한다.

소외와 관련된 '무리, 관계, 사회, 제도, 타자' 와 '기피, 거리, 분리, 소원감, 강제적, 멀어진, 상실, 지배, 종속' 과 같은 단어를 연결하면 결국 소외란,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리가 멀어진 상태' 라고 할 수 있겠다.

소외의 상태가 되면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를 정리해 보면, 우선 바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느끼는 무력감에 시달리게 된다. 이어서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빠져 현재 삶의 가치를 부정하는 무의미성이 증가한다. 게다가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목표를 이

소외 이웃 아닌 '소통 이웃' 으로
내·외부 가난을 없애기 위해
'보시바라밀' 실천이 중요하다

룰 수 없을 때 선택하는 무규범적 행동을 하게 되며, 이와 연계되어 고립과 자기 소외가 발생한다.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감이 생기면서 사회에서의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과소평가하게 되고 카프카의 '변신' 에서 하루아침에 벌레로 변해 버린 주인공이 주위의 외면 속에 쓸쓸히 생을 마감하듯 '현존재' 에 대한 '존재이해' 부족으로 '실존적 소외' 를 겪으며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이렇듯 사회적 존재의 의미가 축소된 이들을 '소외된 이웃' 이라고 한다면 인간 소외로 인한 소외된 이웃의 발생원인 중 하나인 '경제적 요인' 에 의한 '현실 비관' 도 간과할 수 없다.

아서 밀러의 희곡 '세일즈맨의 죽음' 에 등장하는 '하워드' 로 대표되는 '생산력' 즉 '경제적 능력' 이 인간 능력의 척도가 되면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가 자기 주체성 상실을 가져오고 결국에는 자기 소외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소외시킨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불황, 실직, 소외 형 '묻지 마 폭력' 의 증가를 통해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대 재생산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소외된 이웃을 소통적 이웃으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답은 마음 안, 곧 내부의 가난을 없애고 더불어 외부의 가난을 없애는 보시바라밀의 실천에 있다.

먼저 내적 가난을 없애는 방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재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진리를 나누는 법담, 상담 그리고 문화 및 예술치유 활동 등의 방법을 통해 지금 여기에 함께 존재함이 바로 존엄의 증거임을 확인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외적 가난을 없애는 방법은 의식주로 인한 결핍을 없애는 경제적 나눔과 물질적 베풂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바자회와 공익법인 등에 보시하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런 활동은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기능' 을 회복시켜 모든 존재와의 '상호 연결성' 을 체득하게 하고 소외에서 벗어나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돕기의 계절인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재정 확보와 소통 훈련을 통한 공생 운동에 적극 동참하자. 우리의 도움이 구조화되는 그 순간, 자신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여 스스로를 낮추어 보거나 대상과의 물리적 또는 심리적 거리감으로 삶이 괴로운 소외된 이웃은 소통의 이웃으로 대치되어 바라밀의 동참자로 제대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특별기고

民心·佛心의 촛불을 따르길



진광 스님
조계종 교육국장

11월 26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대통령 퇴진과 진실 규명을 외치는 제5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여 스님들과 함께 나간 광화문 광장에는 190만에 달하는 국민들이 운집해있었다. '불교가 사회와 소통해야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행동에 동참해야 한다' 는 스님들의 목소리를 받아 '파사현정' 의 플래카드를 들고 함께 광장에 나섰다.

승려의 신분으로 정치적 구호가 들어간 피켓은 들 수 없었지만 대신 연등으로, '파사현정' 으로 이들의 마음과 함께 했다. 광화문 앞에서 묵언과 함께 정권을 준엄히 꾸짖는 스님들을 보고 시민들도 함께 호응했다.

이날 광장에서 만난 촛불시민들은 참으로 다양했다. 중고생들부터 나이 많은 할머니와 할아버지, 아이를 안고 온 엄마와 젊은 연인 등 지금 현재의 시국에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강추위 속에서도 시종일관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를 보며 이 대중들의 차가운 이성 속에 숨어 있는 더 큰 분노가 느껴졌다.

레지스탕스 출신 작가인 스테판 에셀은 〈분노하라〉란 책에서 '분노와 참여를 차단하는 무관심이야 말로 최악의 태도' 라고 했다. 그는 "가만히 앉아

차가운 이성 속 숨은 분노 보라
거짓은 참을 결코 이길 수 없다

있으면 결코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고 말한다.

하지만 요즘 시국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온 국민의 촛불민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도리어 큰소리를 친다. '젊은이들에게 분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는 스테판 에셀의 '레지스탕스의 발언' 은 이 시대 모든 이들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준다.

문득 행진을 하다 추워 보이는 한 중고생을 발견했다. 힘들지 않느냐는 걱정어린 말에 그 소녀는 "나라가 더 걱정이다" 고 말했다. '아, 우리 세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들까지 거리로 나서게 했구나… 자라나는 세대에게 참으로 부끄럽다' 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초롱초롱한 그 눈동자를 보며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제왕(帝王)은 무치(無恥)' 라는 옛 고사에서 나온 말이 있다. 옛말에 임금은 부끄러움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런 대통령을 가진 국민은 불행하고 부끄럽기만 하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은 제왕인가? 진정 역사와 민족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가 묻고 싶다. 우리가 지금 3공화국에 사는지, 일제강점기를 사는지, 아니 구한말에 살고 있는지 정말로 묻고 싶다.

무엇보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는 말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다' 는 헌법적 가치를 믿는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다. 훗날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 줄 것이란 것을, 또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준 작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이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항상 제 발밑을 살펴보고(照顧脚下)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放下着) 알며, 그르쳐가지 말아야(莫錯過) 할 일이다. 그러면 부끄럽고 욕되지 않으리라 믿는다.

조지훈 시인은 '낙화' 라는 시에서 "꽃이 진다고 바람을 탓할 소냐" 고 했다. 그것이 인생과 자연의 철학이다. 국민의 뜻이 곧 하늘의 천명일진데 따르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형기 시인의 '낙화' 일부를 읊어본다.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할 때

社說

탈북민 포교 전략 바꿔야 할 때다

탈북민 포교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 그동안 탈북민들은 한국 입국 전에 종교활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중국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아 종교활동은 중국서 이미 이뤄졌다. 짐작컨대 기나긴 도피생활로 지친 마음을 종교에 의지하고픈 열망이 강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탈북민들의 입국 절차 및 체류 기간에 변화가 생기면서 종교 생활도 함께 변화의 기류가 흘렀다. 우선 최근 입국자의 경우 중국 체류 기간이 과거에 비해 짧아졌고, 중국 당국이 탈북자 지원 종교기관의 단속도 강하게 하고 있다.

이에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좁아졌다. 통계를 보면 이같은 현상에 고개가 끄덕여 진다.

탈북민들의 종교활동 시작 시점을 조사한 결과, '조사시설서부터' 라 응답한 자가 2,791명(33.9%), '중국에서부터' 가 2,518명(30.6%), '하나원서부터' 가 2,435명(29.5%), '중국 외 제3국에서부터' 가 344명(4.2%), '북한에서부터' 가 154명(1.9%)으로 나타났다. '남한 입국 전후' 비율로 비교 시 '중국에서부터' 포함 입국 전 종교활동을 시작한 비율은 36.6%이며, 입국 후 비율은 63.4%다. 앞서 2008년 백서에선 '중국에서부터' 가 51.4%, '조사시설서' 가 39%, '하나원서' 가 7.7%로 집계됐다.

이는 조사시설과 하나원이 탈북민의 종교생활에 점차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현재 조사시설과 하나원에는 포교사가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를 진행한다. 다만 조사시설엔 불상이나 법당이 없고, 종교의식도 불가하다. 불교·개신교·가톨릭 종교인들이 각 종교의 기초 교리를 전달하는 수준이다.

앞으로 다른 종교보다 한발 더 빨리 이 두 곳을 계속 주목하며, 탈북민 포교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문화재 절도·은닉 공소시효 없애야

도난됐던 보물급 불상을 포함한 불교문화재 11점이 회수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월 29일 "도난된 불교문화재를 27년간 은닉한 前사립박물관장 A씨와 아들인 前박물관 국장 B씨 등 2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고 밝혔다.

사실 A씨는 불교계와 악연이 깊다. 2006년 자신이 운영하던 박물관서 도난당한 불화를 전시한 것이 알려져 불교계와 갈등을 빚었다. 또한 지난 2014년에도 문화재 은닉죄가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당시 불교문화재 48점이 환수돼 사회에 충격을 줬다.

현재 A씨는 1991년~1996년경 문화재 매매업자(2014년 사망)로부터 도난 여부를 모르고 1억7천5백만 원에 구입했다고 선의취득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선의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은닉사범으로 검거되는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문화재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졌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그래서 정부와 유관단체 등은 조계종과 불교계의 '문화재 절도와 은닉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만 문화재의 도난과 밀거래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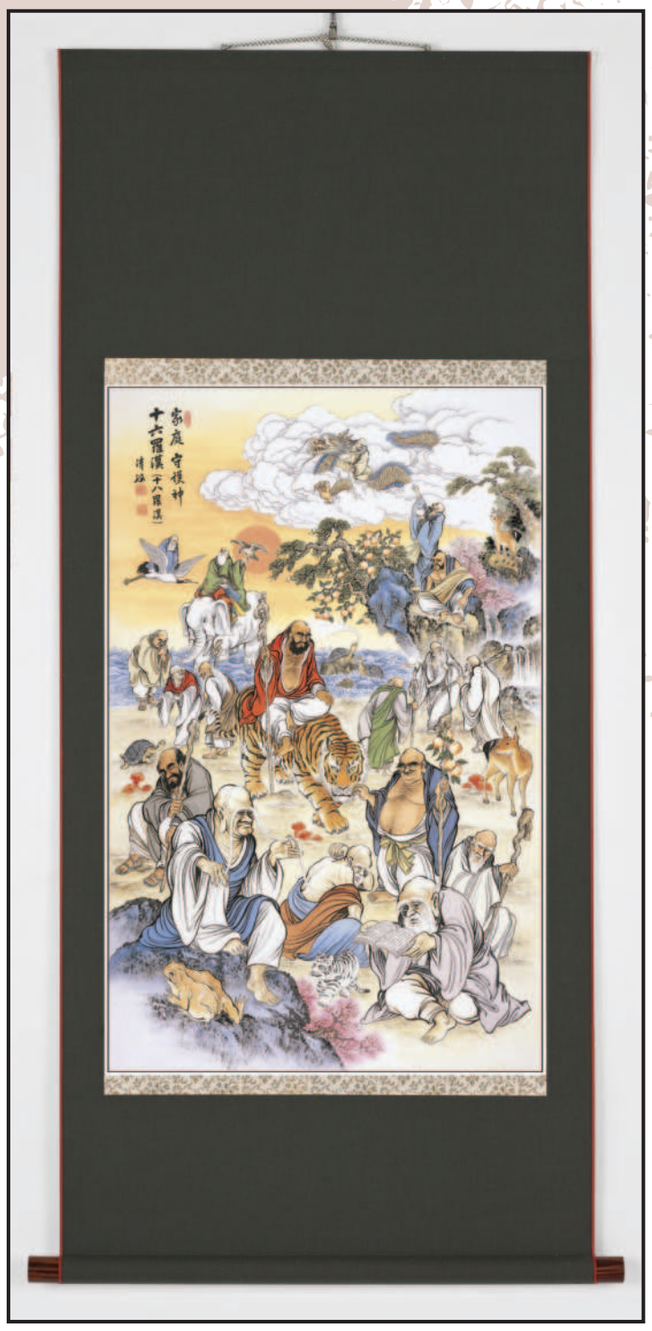
또한 박물관과 경매업체, 개인 컬렉터 등 전문 취급자에게는 문화재 구입 시에 출처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문화재는 우리 선조들의 후손에게 남긴 문화의 핵심이다. 이를 도둑질하는 것은 역사를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 문화재 절도와 은닉은 중범죄임을 법개정을 통해 사회에 각인시켜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 1644 - 9108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1개월 60팩
80ml×60팩(1BOX)
다슬기 眞 골드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가정에 수호신을 모셔 두십시오"

십장생이 들어간 16나한도(18나한)포대화상도, 달마도

이상 작품들은 한점 한점 마다 수호신이 될 것이며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 줄것이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 이제까지 불교카렌다를 통해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스님과 사찰 풍속도를 그려온 청곡 이한동 화백께서 이번에 직접 세가지 작품을 족자로 제작하여 불자님들에게 보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길이 : 120Cm x 폭 54Cm • 가격 : 각 100.000원

16나한도을 구입하시는 분에겐 16나한의 이름과 권속나한들과 같이 살고있는 곳을 기록한 설명서를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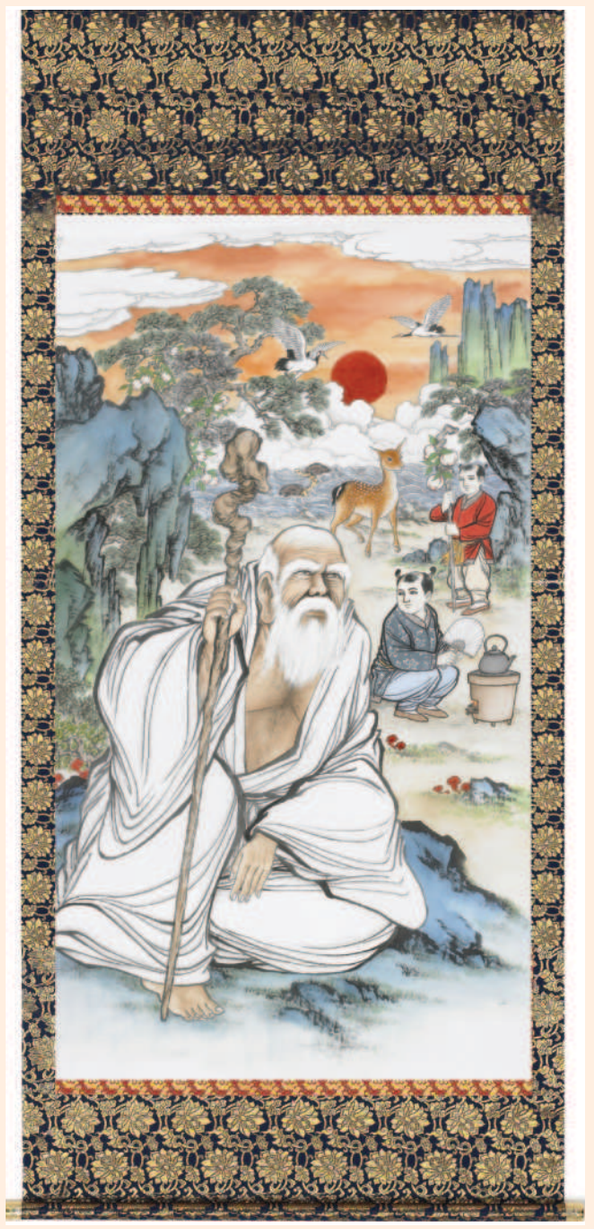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입니다. 나한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되는 나한이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에게 복전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이들 나한들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 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자 이시다.
이들16명의 나한 외에 미륵불의 하현이며 용을 타고 복을 전해 준다는 항룡나한과 야수를 다스리며 악귀를 물리친다는 복호나한을 더하여 18나한이라고 한다.
이들 18나한들은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린다는 뜻에서 한분 한분의 신비한 모습들을 십장생도와 함께 모셨으며 영원한 수호신으로 모셔 주기를 바랍니다.

사찰용 십장생 수호신 – 산신각, 칠성각, 독성각

• 길이 : 180Cm x 폭 80Cm
• 가격 : ~~각 380.000~~ 각 280,000원







그림마다 십장생을 배경으로 하였으며 칠성각은 해 대신 무지개를 넣어 제작 하였으며 그림마다 천도 복숭아가 들어가 있고 **전통불교 황금족자**로 제작하였습니다.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 ` :ǂ ' 053-01-269062 [` ‰ ¨ » ' · ″ – ‰ „»]